보다아름다워

소중한	님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여	이야기를 전합니다.



Contents

#### 발간사 및 심사평

꽃보다 아름다운 그대들에게 정현철 공동위원장 010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를 발간하며 김동문 | 실무위원장 013 건강한 삶의 의지가 돋보이는 글의 감동 이시백 심사위원 016 사회복지수필공모전 심사를 마치고… 문촌 윤덕규 | 심사위원 018



## 🍎 | #1. 수상작 |

대상 세상을 향한 힘찬 발걸음 유미향 021

최우수상 행복과 행운은 내 속에 있어요 황미선 028

우수상 희망을 함께 하는 행복 김문희 034

우수상 치매 걸린 새 박미선 038

장려상 자활의 이름으로 엄재영 046

장려상 나는 달린다 한경란 050

장려상 밥상만 받으려 말고 봉사하라! 이희원 056



## 🎢 | #2. 나눔을 실천한 훈훈한 이야기

사람과 희망이 오고가는 시간 진혜선 064 희망이 보이는 청소년 자원봉사교육 이유경 070 새로운 세계 윤혜빈 075 나의 꿈 박수현 077 행복한 동행 김금순 079 우행시(우리들의 행복한 시간)를 넘어 김은경 084 배움을 넘어 나눔과 행복을 디자인 하는 자원봉사활동 김혜진 087 호스피스 봉사는 나를 위한 미래준비 최서윤 091



#### #3. 사회복지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

내 남자친구 이야기 박영은 096 삶에 있어서 누구에게나 시련과 아픔은 있기 마련이겠지만 OI정자 101 살렘 행복의 날개 정연수 106 행복한 꽃망울을 피우기 위해… 김혜진 111 기쁨을 가져다 드리겠어요 구본주 115 하루를 시작하는 이야기 유태준 118 행복해서 웃고 있어요 이복자 125 "서비스를 통해 피어나는 정" 김지혜 128 환갑을 넘어 얻은 당당한 직업 한선란 131 안쓰럽고 안쓰럽다 김학분 134 "우리집에 놀러오세요" 음영옥 138 "진호야 안녕?" **김명자 141** 그대가 주신 희망 한 모금 김태훈 144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김금선 147 외치지 않아도 사랑해 배양숙 150 포기하지 않은 억척이 김옥선 154



### 👚 | #4. 다시 부르는 희망 노래

"대성아 학교가자!" 이순이 156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 김혜숙 158

봄날에 아지랑이 윤태경 167 천사같은 도우미 누나 김갑수 171 희망으로 날다 김영진 176 어둠속에 비친 한줄기 희망의 빛 이수백 179 마음의 청소 정순자 183 액땜?! 우재섭 186



## 쓸 | #6, 제안합니다

꽃처럼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아이들 지술형 211 죽음준비학교 운영을 제안합니다 박구현 219 나를 깨우쳐 준 사람 그리고 사랑 고정화 221

편집후기 225

U쾌한남양주지역사회복지협의체 소개 | 226



#### 👚 | #5, 참… 고맙습니다 |

나의 소중한 학교 '노인대학' 김주심 190 여기가 행복입니다 김병연 192 김장 **손옥주 195** 선생님 감사합니다 김윤심 196 선생님께 지노순 197 존경하는 선생님께 한상옥 198 좋은 만남 김양순 199 복지관 사랑합니다 유순례 200 복지관은 행복관 김분이 201 사랑 홍순숙 202 배움의 즐거움 박일순 203 선생님께 드리는 편지 김세현 204 천사할머니 유준희 205 제주도 첫 여행의 추억 이영자 207



#### Contents

#### 발간사

## 꽃보다 아름다운 그대들에게

다양성속에서 배움과 나눔을 경험합니다. 형형색색 참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 가지만 애타심으로 누군가의 기쁨을 위해 존재함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추운 겨울이지만 "딸랑딸랑~" 남녀노소 자선냄비를 보자 반가운 듯 달려가는 모습 속에 사람에 대한 희망을 보게 합니다. 손에서 손으로 전해지는 사랑의 연탄 나눔 현장은 살맛나는 세상을 꿈꾸게도 합니다. 언 발을 통통거리지만 김치를 전하려는 마음은 기쁨으로 더 콩콩 뛴다는 사랑의 김장 김치를 나누는 현장 속 봉사자들의 미소 속에는 이시대에 꼭 필요한 사랑에 대한 진정성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집수리 사업으로 이웃에 대한 수줍은 봉사를 건네는 손길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꾼임을 믿게합니다.

이렇듯 사람은 꽃이 주는 아름다움과 향기에 비할 데 없이 깊이 있는 아름다움과 잊혀지지 않는 진한 향기를 전하고 희망을 보게 합니다. 민·관 협의 기구인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주최하는 제1회 사회복지 수필 공모전에 참여하신 꽃보다 아름다운 여러분 감사합니다. 귀하게 써주신수필들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글들을 접하면서 점수를 매기는 심사자에 앞서 많은 것들을 느꼈습니다.

굴곡 많은 삶을 지켜내신 사연 속 큰 용기에는 숙연함을…

소박한 삶에서 얻은 행복한 견해들 속에서는 빛나는 지혜를..

일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삶의 윤택함을 봉사활동에서 느낄 수 있었다는 고백에는 공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의 생생한 현장성을 전해주신 글을 통해 앞으로 사회복지의 발전방향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며 개인 맞춤형 복지시대를 향한 정책의 실천이 필요함 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10 \* 사람이 꽃보다 이름다워 발간사 \* 11

제1회 사회복지 수필공모전은 5명의 심사위원이 참여하여 총3차 심사로 복지현 장성과 문학성에 대한 심사로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사회적 유대와 인간 정신에 대한 자연스럽고 진솔한 표현, 문장의 정확성, 내용의 충실성으로 현장의 생생한 이 야기에 대한 공감을 잘 이끌어냈는지를 중심적으로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수상 여부를 떠나 글들에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남양주시의 시민들이 유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빛과 기쁨이 되어주시는 사회복지계의 실무자분들과 시 민 봉사자 여러분, 또한 복지인들에게 기쁨이 되는 이용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회 사회복지 수필공모전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도록 수필들에서 보여주셨던 아름 다운 마음가짐과 열정을 사회복지의 현장에서 발산해주시고, 사회복지가 한발 더 앞 서도록 좋은 의견도 많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도 제2회, 3회 수필공모전에도 참여해주셔서 꽃보다 아름다운 여러 분들의 향기를 감동적이고 좋은 소식들과 견해들로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겨울 보내십시오.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공동위원장 **정현철** 

발간사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를 발간하며…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곱씹고 또 곱씹어 봐도 이렇게 아름다운 레토릭이 또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인이 이렇게 아름다운 레토릭을 구사할 수 있는 것은 시인 그 자신이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사람의 눈에는 다른 사람들도 아름답게 보이는 법이지요.

제1회 남양주시 사회복지 수필공모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에 출품된 글들을 꼼꼼하게 읽고 심사하면서 우리 남양주시에는 시인 이상으로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의 이웃이 되어주고자 아낌없이 헌신하시는 공무원,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님들, 그들 또한 하루하루의 삶이 고달픔의 연속일진대 자신들보다 더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가

12 사람이 꽃보다 이름다워 발간사 13

슴에 지핀 사랑의 불로 시린 가슴들을 녹여주는 이들의 글들을 읽으면서 그들이 있음으로 우리 사회가 그나마 살만한 세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 사람 인(人)자는 사람이 서로 기대어 있는 모습이라고 그러더군요. 설령 그 것이 학술적 근거가 없는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 기대고 서로 를 받쳐줌으로 사람다운 사람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누가 나의 버팀목이 되어주기를 바랄지언정 나 자신이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어주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어주기 위해 때로는 직업인으로서, 때로는 자원봉사자로서 그렇게 스스로를 희생시키면서 헌신하시는 그대들, 그대들이야말로 진정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번 수필 공모전이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은 참여 대상이 공무원이나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들 뿐만 아니라 시민, 자원봉사자를 비롯하여 서비스 수혜대상자들도 함 께 하는 공모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양주시에 수혜자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놓치지 않고 발견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주어 수혜자에게 감동을 주었던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글로 표현해준 수혜자들이 있었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현장에서 직업의식에다가 따뜻한 휴머니즘을 더하여 자신을 희생시켜 가면서 헌신하시는 사회복지사님들과 낮은 데로 임하는 마음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의 도움

의 발이 되고 도움의 손이 되어주신 자원봉사자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진솔한 글을 읽으면서 왜 시인이'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았 으며, 우리 남양주시에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감동의 휴먼 드라마 가 펼쳐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대들을 감탄합니다!

바라기는 이번 사회복지 수필집 발간을 통해 우리 남양주시에 정말 민과 관이 합력하여 더욱 감동이 묻어나는 휴먼 드라마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로 가득한 우리 남양주시는 분명 소망을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위원장 **김동문** 

14 사람이 꽃보다 이름다워 발간사 15

## 건강한 삶의 의지가 돋보이는 글의 감동

글이란 사람이 살아가는 이야기이다. 그 가운데에 삶이 놓여 있어야 하며, 응당 삶의 주인은 사람이어야 한다. 글이란 것을 통해 글쓴이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 를 넘어 이웃의 삶을 조망하며 이해하게 된다. 따라서 좋은 글이란 자신에 대한 성찰 과, 자신과 다르게 살아가는 이웃들의 삶에 대해 이해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한다. 일견 글이란 무언가 멋스럽고 장황한 지식이 드러나고, 미사여구로 채워져야 한다는 그릇된 생각이 글을 왜곡시키고 멀어지게 하기도 한다.

이번에 응모한 수필들을 읽으면서 우월을 가름하기에 앞서, 어려운 생활 속에서 도 희망을 지니고 살아가는 건강한 삶의 의지가 돋보였고, 자신을 넘어 이웃의 아픔을 함께 하려는 이해와 사랑의 마음들이 감동적이었다. 무엇보다 자신의 삶과 멀리 떨어진 황당한 환상에 붙들리지 않으며,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체험과 느낌들을 진솔하게 돌아보는 글들이 수필이라는 글의 성격에도 걸맞았다.

다만 수필도 문학의 한 갈래이니 그 안에 담긴 문학적 감동과 수필 고유의 여유와 운치의 아름다움을 살려내는 노력이 조금 아쉬웠다. 수필이 지닌 일탈과 파격의 형 식미, 글쓴이의 개성과 진솔한 고백들이 어우러졌다면 감동이 더욱 컸으리라 여겨진 다. 아직까지는 수필의 문학적 성과보다는, 자신의 삶을 전달하는 수기나 사례발표 문과 같은 전달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글들이 적지 않아 안타까웠다.

이번에 응모한 모든 글들은 평범한 이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소재들과 체험을 바탕으로 삼아 그 자체만으로도 적잖은 감동을 주고 있지만, 그것을 문학적으로 다듬어내는 데는 무엇보다 안정된 문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글을 이웃과나누는 이야기로 여겨 가까이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감동적인 글들을 쓰게 되리라 믿는다. 그것은 바로 글쓴이들의 삶이 가져다주는 감동이라 하겠다.

심사위원 이시백

전업 작가, 한국 작가회의 회원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졸업 동양문학 1회 소설부문 신인상으로 등단(1988) 청소년 문예지 '푸른작가' '문학이' 편집위원 도서출판 '삶이 보이는 창' 편집위원 주요저서 장편소설 '메두사의 사슬'(1990), 산문집 '시골은 즐겁다'(2003), 소설집 '890만 번 주사위 던지기'(2006), 연작소설집' 누가 말을 였을까'(2008) 등

16 사람이 꽃보다 이름다워 심사명 🖈 17

## 사회복지수필공모전 심사를 마치고…

이번에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주관한 수필공모전에 응모한 많은 글들을 읽으며 어떤 때는 숙연해지고, 어떤 때는 코끝이 찡해지는 큰 감동을 받기도 하면서 저 자신이 사회복지와 자원봉사의 현장에서 몸소 사랑과 희생정신으로 봉사를 실천하는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봉사자들의 생활을 간접 경험하는 기대치 못하였던 큰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참으로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글이란 결국 글을 쓴 사람의 마음이 담긴 정신의 전달 수단입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마음을 대등한 입장에 있는 인간의 잣대로 이렇게 저렇게 평 한다는 것은 사실 어찌 보면 인간의 권한 밖의 일 일거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한 작품 한 작품을 꼼꼼하게 읽어 내려가며 심사가 아닌 글을 쓰신 분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과 공감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모든 작품이 사회복지와 봉사의 현장에서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며 가슴으로 느낀점을 써 내려간 귀중한 작품이기에 내용으로는 도저히 심사하여 우열을 가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각 분야의 심사위원들이 고심에 고심을 더하여 객관적인 기준과 보편적인 느낌에 따라 한편 한편을 성의껏 읽어가며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아주 미세한 차이의 채점을 하여 순위를 정하고 수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수상자들이나 애석하게 수상의 기회를 놓치신 응모자 여러분 모두가 사랑을 실천하는 진정으로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 이라 자부해도 좋을 것입니다.

수상자 여러분에게는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수상은하지 못했지만 사회복지의 일선에서, 그리고 봉사의 현장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고귀한 초아(超我)의 사랑을 실천하고 계실 모든 분들에게 전합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고 그리고 그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이 '바로 여러뷰' 이라고…

심사위원 문촌 윤덕규

수필가 |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민문화분과장

18 \* 사람이 꽃보다 이름다워 심사평 \*\* 19



수상작 #1

66편의 공모글 가운데 복지현장성, 문학성에 관한 분야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장려상, 우수상, 최우수상, 대상으로 입상하신 분들의 글입니다.

# 세상을 향한 힘찬 발걸음

유미향 지원봉사자

따르릉, 따르릉

아침 일찍 전화벨 소리가 요란하다.

"해피짱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봉사자가 급히 필요한데요. 시간이 하루 종일인데 괜찮으세요?"봉사자를 못 구해서 다급해 하는 센터 직원의 설명에 다른 일을 미루고 가기로 했다

그래서 인연이 닿은 마석에 "그룹홈" 딩동!

"저 봉사활동 왔습니다. 문 좀 열어 주세요"

삐그덕. 문을 열어 주시며 반겨 주시던 맑은 웃음을 띤 남자 사회복지사 선생님

"반갑습니다. 갑자기 연락을 드렸는데도 와 주셔서, 오늘은 계절이 바뀌었으니까 옷장에 철 지난 옷들을 모두 정리해 주시고, 전등 갓 위 먼지부터 대청소, 겨울동안 빨지 못한 이불빨래. 냉장고 청소. 식구들의 물품정리…"

와우, 오늘 하루 열심히 한눈팔지 말고 해야 끝낼 수 있을 것 같았다.

1명의 남자 사회복지사와 5명의 장애우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곳은 늘 가던 시설과는 많이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고 손길이 더 필요했다.

아침밥을 지어 먹고 모두 일터로 출근을 한 터라 그 분들이 퇴근하고 오시기 전에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옷장에 겨울옷을 넣어두고 봄옷을 꺼내 놓지 않으면 봄에도 겨울옷을 입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커다란 조미료를 과자인줄 알고 사오는 장애우도 있다고 한다. 요리도 복지사 선생님과 함께 해서 먹어야 하는데 소금과 설탕을 잘 구분하지 못해 음식을 버린 일도 있고 시설생활에 익숙해져 있어서 자율적으로 뭔가 하는 일에 가끔은 힘들어 한다는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나니 이래서 그룹홈이 필요하구나. 이래서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필요하구나 싶었다.

정말 엉덩이 한번 안 붙이고 일을 한 끝에 마무리가 얼추 되었을 때 식구들이 돌아왔다.

아, 얼마나 표정들이 밝던지.

그 중에는 시설에서 자주 봐온 얼굴들도 있었는데 집에서 보니 더 반가웠다.

그들은 익숙하게 자기 맡은 일을 하고 씻고 자유 시간을 보내고 사회복지사선생 님과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이제. 가야 할 시간.

"봉사자들이 꾸준히 필요합니다. 혹시 다음에도 전화 드리면 오실 수 있으신지 요? 오늘 너무 힘들게 일을 하셔서…"

사회복지사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꼭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하고 대문을 가볍게

나설 수 있었다.

그날 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 후로 그룹홈에 정 선생님과는 소중한 만남이 계속 되었다.

그룹홈 식구들은 한달에 한번 이웃초청 저녁식사 시간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졌었는데 그동안에는 아파트 부녀회에서 많이 도와주셨다고 한다. 하지만, 저녁식사 시간이라 함께 할 봉사자를 구하는데 늘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셨다.

그래서 얼마 후 난 딸아이와 함께 저녁식사 준비를 하러 가게 되었다.

메뉴를 뭐로 할까 고민을 무척 많이 하다가 '오삼불고기'를 하기로 결정했다.

평소에 시설에서 단체 급식으로는 먹어 보지 않았을 것 같고 복지사 선생님께서도 해 주지 못 하실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딸과 함께 장을 보고 밑 손질을 하고 그룹 홈에 도착하자마자 저녁밥부터 짓기 시작했다. 준비가 한창일 때 도착한 식구들은 우리 딸을 보자 낯설어 하면서도 좋아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건을 슬쩍 딸 손에 쥐어 주고는 아닌 척 하며 텔레비전만 쳐다보기도 하고 손을 잡고 놓아 주지 않는 분도 있었다. 우리 딸은 그때 2학년이라 다음날 시험 볼 받아쓰기 숙제를 엄마가 밥 할 동안 거실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은 그런 모습이 참으로 예뻐보이고 신통해 보이셨던 모양이었다. 딸내미는 그분들에게 갑자기 글씨를 가르쳐 준다고 하기도 하고 같이 만화 영화를 보며 깔깔대는 모습이 참 좋아보였다.

그 사이 도와주시기 위해 오신 여자 복지사 선생님 두 분과 갓 지은 밥에 매콤하게 준비한 메인 요리 '오삼불고기' 로 식사 준비가 완성되었다.

기대반, 걱정반,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식구들의 젓가락만 쳐다보는데, 이럴 수가!

오삼불고기 맛에 흠뻑 빠진 복지사 선생님들과 달리 그룹홈 식구들은 평상시 먹 더 반찬에만 손이 가는 것이었다. 정 선생님께서는 시설에서 워낙 몇 십 년씩 몇 년 씩 생활하다 보니 새로운 것에 호기심도 많지만 두려움도 많아서 그렇다는 설명을 해 주셨다. 여자 복지사 선생님들께서 자꾸 먹어 보라고 권하고 복지사 선생님들께 서 드시는 모습을 보고야 오삼불고기에도 젓가락이 가는 걸 보니 그제야 안심이 되 었다. 푸짐하게 준비한 오삼불고기는 깨끗이 맛있게 먹어서 동이 났다. 그리하여 그 날에 이웃초청 저녁식사 프로그램은 다행히 잘 마무리 될 수 있었다

그룹홈 식구들과 나와 우리 가족들은 그 날 저녁 식사 후 많이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 가족은 6년 전부터 함께 봇사활동을 하는데 그룹홈 저녁식사 봇사 활 동을 가도록 자장면으로 저녁을 먹으면서도 배려해준 남편과 아들, 엄마를 도와주기 위해 함께 동행 한 딸 모두가 참 예쁜 마음들이다.

이제 그룹 홈에 순수하고 성실한 청년 영대씨(이하 대상자 이름 가명). 사고로 다 리가 불편한 철수 아저씨, 일터에서 만든 머리 고무줄, 양말을 딸아이에게 챙겨주시 며 예뻐하시는 상우아저씨. 손이 불편한 나로아저씨. 자꾸 혼자 떨어지는 남규아저 씨는 만나면 친근한 가족같은 느낌이다.

그 후, 어느 날 시설로 봉사 활동을 갔는데 누군가 뒤에서 와락 껴안는 것이었다.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영대씨였다 나도 너무 반가워 안아주었더니 참 좋아라 한다. 다른 그룹홈 식구들도 집에서만 보다 시설에서 보니 또 반가웠다. 그들도 이

제 내가 익숙해진 덕분인지 먼저 반가워하고 딸아이 안부를 묻는다

다채로운 꽃들이 만발한 어느 날 우리는 아침고요수목원으로 나들이를 갔다. 봉 사자를 못 구해서 딸아이와 나만 봉사자로 가게 되었다.

다리가 불편한 철수아저씨도 굴곡진 길이 힘에 부쳐서 땀을 줄줄 흘리면서도 오 랜만에 나온 나들이가 좋으시다고 한다. 딸아이 손을 잡고 꽃밭을 누비는 상우아저 씨,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계속 내 손을 잡고 걸으시던 나로 아저씨도 흐드러지게 피 어난 관상용 양귀비꽃밭 앞에서 한참이나 눈을 떼지 못하셨다. 한참을 구경하다 매 점에서 간식을 사는데 물건 구매 경험이 별로 없다 보니 과자 한 봉지, 아이스크림 하나를 고르는데도 한참을 망설이고도 무엇을 사야합지를 모르는 것 같았다. 딸아이

24 ፟緣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1 수상작 36 25 가 무슨 맛 과자라고 일일이 설명을 해도 선뜻 고르지 못하자, 그래도 그중에서 사회 성이 가장 뛰어난 철수 아저씨가 고구마맛 과자 한봉지를 골랐다. 그러자 다른 식구 들도 약속이나 한 듯 똑같은 과자를 고르는 것이었다. 보통에 경우 다른 종류에 과자를 골라서 여러 가지 맛을 볼 텐데 이런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그날 우린 다섯 봉지의 고구마맛 과자를 먹어야만 했다.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 저절로 웃음이 난다. 하지만 그날 우리의 나들이는 더욱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점심 식사 후 남규아저씨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해서 우리는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남규아저씨가 나오지 않자 정선생님이 남자화장실에 들어가서 찾아보았지만 아저씨는 보이지 않았다. 정선생님과 나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딸아이에게 나머지 4명의 식구들을 잘 지키고 있으라고 하고 우리는 재빨리 남규아저씨를 찾아 나섰다. 잠시 후 정선생님께서 남규아저씨를 찾았는데화장실 입구가 반대편에도 또 있었고 아저씨는 방향 감각이 부족하다보니 그쪽 입구로 나가서 두리번거리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 아닐 수 없었다.

그렇게 우리의 만남은 많은 추억들을 만들어 가며 정이 들어갔다.

이제 돌이켜보면 이런 만남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큰 힘이 되게 한다. 정말 주어진 환경에서, 아주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장애를 가진 자기를 부정 하기보다 성실히 살아가는 그룹홈 식구들! 오늘도 아침 일찍 아침을 해 먹고 통근차를 타고 일터로 나가고, 작은 월급을 알뜰히 모아서 삶을 계획하는 그들!

시설에서의 편안함보다는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자기의 하루하루를 스스로 채우고 세상을 배워 나가는 그들을 누가 업신여길 수 있겠는가.

세상에 자기 몫을 다하려고 애쓰는 그들의 용기에 진정한 박수를 보내고 싶다. 오늘도 세상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그룹홈 식구들 힘내세요! 여러분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심사평 | 그룹홈 봉사 활동의 내용을 다채로운 일화 중심으로 편안하게 구성하였으며, 장애우분들의 그룹홈 생활에 대한 현실적인 묘사를 통해 장애우들을 만나는 자원봉사자의 따뜻한 시선으로 지역사회 내장애인 그룹홈의 필요성과 그 의미를 잘 전달해주었습니다.

#### 최우수상

## 행복과 행운은 내 속에 있어요

황미선 | 지역아동센터교사

아침저녁으로 겨울을 알리는 쌀쌀함이 가슴 깊숙이 파고듭니다.

높고 푸르던 하늘과 알록달록 아름답게 옷을 갈아입은 산들도 어느덧 겨울 준비에 한창입니다. 계절도 철따라 옷을 갈아입고, 예쁜 꽃들도 철 따라 다르게 피어나듯 지역아동센터에 나오는 아이들 중에도 얼굴이 예쁜 꽃, 마음씨가 예쁜 꽃, 욕심이 많은 꽃, 질투심이 많은 꽃, 울음이 많은 꽃, 장난이 심한 꽃… 등 여러 종류의 꽃들이 각자의 형형색색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온 지 이제 2달 정도 되어갑니다. 아이들이 좋아서 시작한 것이지만 언제 나 활기 넘치는 아이들과 있으면 내가 그 아이들의 나이가 되어버린 착각에 빠질 때 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5-6학년 아이들과 함께 생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나름대로 아픔을 하나 정도 품고 살아가는 마음이 강한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아픔 이 있어도 전혀 내색하지 않고 씩씩하고 당당하게 힘껏 자기 역할을 해나가는 사랑 스러운 아이들입니다.

여럿 아이 중 은서(가명)라는 아이가 가장 머릿속에 생각납니다. 단발머리에 검은 테 안경을 쓰고, 손이 가늘고 몸이 가냘픈 여자 아이. 다른 과목은 자신이 있어도 유 독 수학에 약해서 수학이 평균 점수를 깎아 먹는다고 투정부릴 줄 아는 아이, 미술 시간은 너무 재미있고 좋다며 열심히 참여하고, 동생들에게 여러 가지 율동을 가르 쳐 주는 율동 짱 은서!

은서와 난 저녁 시간에 수학 문제를 풀면서 더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수학 문제를 다 풀고 난 후 집으로 돌아갈 때 버스 정류장 옆에 있는 맛있는 붕어빵 집에 들러 단팥, 매코미, 슈크림 붕어빵을 먹으며 손을 다정하게 잡고 모녀사이처럼 걸어 갑니다.

"은서야, 너는 꿈이 뭐니?"

"저는 나중에 방이 3개 있는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각 방을 여러 가지로 꾸미고 싶은 마음이 은서에게 있나 봅니다. "아직 정하지 않았나보구나 .나중에 꿈이생기면 선생님께 이야기 해 줘 기도 해 줄게. 그리고 있잖아 선생님도 꿈이 있는 데그 꿈은 너희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상담해 주는 좋은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야. 그리고 힘이 들고 마음이 아픈 친구들에게 책을 통해 힘과 용기를 주는 동화작가가되는 것이지."



"선생님은 지금도 좋은 선생님이에요."

"그래! 은서야? 그렇게 생각해 주니 정말 고마운데. 은서도 선생님을 위해 기도해 줄래? 그리고 좋은 작가 선생님과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상담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말이야"

"네 .선생님" 그러면서 은서는 씨익 함박웃음을 나에게 전해 줍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서로 달라서 헤어지며

"은서야, 잘 가 내일 만나자. 사랑해" 했더니 은서는 사랑해라는 말이 어색했는지

조금 머뭇거리다가 "선생님도 안녕히 가세요."라고 말을 건넵니다.

며칠 전에도 신<del>종플</del>루로 인해 1주일 정도 결석한 성호(가명)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 전화와 함께 "성호야, 사랑해 빨리 나아야 돼."했더니"선생님, 왜 이상한 말 하세요?"하며 전화를 끊었던 생각이 났습니다. 은서와 성호에게 이상하게 들렸나봅니다.

"사랑해"라는 말이…

요즈음 운전을 배우려고 학원에 등록했는데 안전 교육 중 은서에게서 전화가 왔 습니다

"선생님, 어디세요? 잠깐 아지트에 내려오면 안돼요?"

"은서야, 선생님 교육중이야 이따가 전화할게"(작은 목소리로)

"그래요. 알았어요."(실망한 목소리)

공부방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갈 무렵 은서에게 왜 전화 했냐고 물어보았더니 작은 귓속말로 "선생님께 와플 드리려고 했어요. 다음에 다시 사 드릴게요."

아마도 공부 끝나고 매번 붕어빵을 사준 나에게 외플을 사주고 싶었나 봅니다. 은서의 따뜻한 마음이 와플을 먹진 않았지만 나의 마음에 전해 오는 것 같습니다.

세 잎 클로버의 상징은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잎이 네 잎이 되는 건 생장점에 생긴 상처 때문입니다.

네 잎이 행운의 상징 인건 이런 상처와 고난을 극복하고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나오는 아이들은 가정이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아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아이들이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행복을 느끼지 못했다면 그 아픔을

이겨내고 성장하여 자기 스스로 행운을 만들어 가는 그런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빛을 발하는 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커서 나중에 대학생이 되면 이곳에 자원봉사 하러 와서 동생들을 가르 쳐 주렴"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을 낳는 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받은 사랑을 다른 이웃들에게 전해주는 행복 전도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아이들이 물과 같은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은 분자구조가 가지는 특징 때문에 다른 물질과 잘 결합하고, 가장 많은 물질을 녹인다고 합니다. 가정이 어렵다고 하여 모난 성격으로 자라지 않고 물처럼 다른 사람들과 잘 결합하고 마음이 차갑게 얼어붙은 사람들을 감동시켜 그 차가운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 사회 구성원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사람으로 그러한 아이들로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이들도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나는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나의 새로운 길을 계획하였고, 아이들은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지금은 부모님 품에서 행복해 보이는 아이들이 부럽지? 조금은 네가 불행해 보여도 그 아픔을 이겨내면 그 곳에 새로운 싹이 나오고 행운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 win-win방법 어떠니? 나는 인생의 후반기를 너희들과 같은 아이들과 보내

기로 보이지 않는 그분과 약속했단다. 나는 행복할거야, 너희들은 잘 될 거야. 우리는 꼭 승리할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 기쁨을 다른 사람과도 나눌 줄 아는 성숙한 존재가 될 거야!

지금부터 시작이다. 화이팅!

심사평 이 마치 한 폭의 수채화를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는 글로 소박한 소재를 따뜻하고 감성적으로 풀어내어 공감을 유도했습니다. 글을 통해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의 성장기에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선생님과의 만남이 아이들의 인생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글이었습니다.

#### 우수상

## 희망을 함께 하는 행복

**김문희** | 사회복지공무원

자랄 때 어른들이 흔히 자식이 죽으면 부모 가슴에 묻는다는 말을 들어 왔다. 내가 자식을 낳고 키워보니 그 말의 뜻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초 봄 어느 날, 남부희망케어센터에서 공적제도로는 보호가 어렵다고 통보 받은 어르신이 계시는데, 가정 방문을 함께 가자며 사무실에 센터 직원이 왔다. 어떤 어려움이 있기에 그렇게 다급히 나를 찾을까 이유를 묻기도 전에 나는 사무실을 나서고 있었다. 가정방문을 했을 때 노부부의 얼굴에는 그늘이 가득하고 안절부절 어쩔 줄몰라 하셨고 모든 희망을 잃은 듯 한숨만 내 쉬고 계셨다.

약 15년 전, 막내아들이 믿었던 여자 친구의 배신으로 아픔에 못 이겨 정신 이상으로 성격이 난폭해졌다가 지금은 우울증과 대인기피로 집 밖을 나오지도 않고 집에서만 생활하고 있지만 형편이 어려워 몇 년 전 부터는 병원 문턱에도 갈 수 없었다고

하셨다. 그뿐만이 아니였다. 막내어들의 행색은 말로서는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말라 있었고 밥은 물론 미음조차 먹을 수 없어 밥물만 하루 서너 번 마시는데 그것조 차도 힘들어 한다는 것이었다. 노부부는 희망을 잃고 막내어들이 죽을 날만 기다린 다고 하셨다. 병원에는 병원비 무서워 갈 수 도 없지만 지금 상태로는 살 것 같지 않다며 병원 치료 조차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계셨다. 먼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질병인지 아닌지 먼저 병원진단을 받는 것이 우선이다는 생각이 들었다

병원진단을 받도록 노부부를 설득은 했지만 노부부는 희망을 갖지 못하고 어차피 죽을 자식이니 병원에 한번 가보자며 하는 식으로 허락을 하시는 것 이였다. 나로서도 살 수 있으리라고 확신을 갖기 힘든 상황이었다. 얼굴 형체가 텔레비전에서나 볼수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먹지 못해 죽어 가는 그 모습 그대로였다.

먼저 인근 병원에 갔으나 병세가 심각하여 치료가 어렵다며 큰병원을 가라며 소 견서를 써주시는 것이었다.

병원을 나와 다시 큰 병원에 입원을 시킨 후 검사 후 중한 위궤양으로 바로 수술을 하지 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수술을 권유하는 것이 이었다. 수술을 받았으나 회복할 수 있는 체력이 되지 않을 뿐더러 환자 상태가 워낙 위중 혼수상태에 빠져 중환자실에서 쉽게 나오지를 못하고 두 달 이상 머물러 치료 받으면서 기적적으로 조금씩 정신도 돌아오고 말도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다

수술한 상처가 아물지 않아 오랫동안 거동조차 어려워 애를 태우더니 수술 후 5 개월 정도 되어서야 겨우 일어 설 수 있게 되었다. 기적이었다.

노부부는 매일매일 막내아들 소식을 전화로 방문으로 전하면서 이제는 병원비

걱정으로 잠을 이룰 수 가 없다는 말씀하신다. 병원비 걱정 마시고 막내아들 회복에 만 기도하시라고 안심을 시켜드려도 너무 많은 신세를 져서 면목이 없다고 하신다.

얼마 전 막내이들이 퇴원하여 집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며 이제는 아들이 다나은 것 같다며 나에게 생명의 은인이라며 언제 은혜를 갚게 될지 모르겠다며 미소 짓는 노부부의 환한 표정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죽은 자식을 내가 살려 주었다며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노부부…. 정말 내가 그렇게 큰일을 한 것인가….

내가 해야 할 일인데 내 스스로 되묻게 된다. 어쩌면 빨리 발견 못한 내가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아직 숙제는 남아 있다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면 서서히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

얼마 전 등산을 가면서 우연히 많이 아파하는 분을 보게 되었다며 어떻게 도와줄수 없냐며 전화를 받았다 이름이 뭐냐 전화는 있느냐 물어도 잘 모르겠다며 지금 나와 주면 좋겠다고 다급히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다. 모든 일을 뒤로한 채 갔지만 정말말로는 표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파하는 모습 이었다. 한쪽 팔 전체가 마치 검은 석고 깁스를 한 것처럼 붓고 딱딱하고 팔을 내리지도 못하고 들고 있으면서, 가슴 한쪽은 염증으로 고름이 차있는 상태로 고통과 두려움에 거의 실신상태로 쓰러져 있는 것이 이었다.

나는 먼저 119를 불러 환자를 병원 이송을 부탁하고 병원 사회 복지실에 긴급전화 를 해 접수와 입원실을 부탁했다 일사철리로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도착하자마자 진찰이 이루어졌고 바로 수술이들어갔다. 수술은 순조롭게 잘 되었고 며칠 지나자 검게 붇고 깁스한 것처럼 딱딱하던 팔도 붓기가 빠지면서 환자 상황도 많이 안정되어 보였다. 이 환자는 5 ~ 6년 전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다 집을 나와 오갈 때 없어 친정어머니가 계시는 곳으로 왔으나 산기슭 밑에 비닐하우스 집이라서 인적이 드물고 지역주민들도 왕래가 많지 않아잘 몰랐던 것 같았다.

아파도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민간요법으로 치료한다며 온갖 약재를 산에서 캐다 환부에 발라 그것이 화근이 된 것 같았다. 점점 팔도 움직일 수 없고 가슴 한쪽이 없어질 정도의 통증을 느끼면서 얼마나 더 고통을 느껴야 죽을 것인가를 생각했다는 것이었다.

초기에 병원치료로 간단히 치료가 끝날 수도 있는 것을….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조금 일찍 발견되었더라면 이런 고통은 받지 않아도 될 것을… 병명은 암으로 판명 받아 지금은 병원의 도움을 받아 열심히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날로 발전하는 풍요로운 생활 속에서도 그늘에 가려져 고통 받고 사는 분들이 지금도 어디엔가 계실 것이다. 그 분들께 삶의 희망과 함께 하는 행복을 알려 드리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심사평 | 공적제도를 통해 위급한 상황에 있는 대상자를 도왔던 사례를 사실적으로 묘사하였으며 일로서 가 아니라 마음으로 어려운 이들과 함께하는 헌신적인 공직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 우수상

## 치매 걸린 새

젊은 날에 꿈을 펼치지 못한 치매 걸린 장애인가족을 돌보며…

#### **박미선** 생활재활교사

2006년 7월 12일 온 세상이 뜨겁고 강렬한 태양빛이 창가를 타고 나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 강렬함에 실눈을 뜨고 부스스 눈을 비비고 잠이 덜 깨어 멍하니 천정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재훈의 '사랑합니다' 란 핸드폰의 벨소리가 내 귓전에 시끄럽게 멤돌았다.

어제 야근을 하여 잠깐 낮잠을 자다가 한낮의 더위에 잠이 깨어 있는데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 시간에 나의 단잠을 깨우는 사람이 누구지?"

핸드폰 액정에 뜬 번호는 김 팀장님의 번호였다. 무슨 일일까? 이 시간에 전화한 다는 것은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인데 잠깐 받기를 망설였다. 휴일인데 또 일이 생기면 일처리 하러 나가기가 싫었기에 나의 망설임은 잠깐…. 혹시 급한 일이면….핸드폰을 받았다.

"팀장님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나의 생각은 적중하였다.

"네, 박 선생님 반에 한명의 원생이 입소해서요. 그분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하려고요." 일단 그의 장애상태는 뇌병변1급이지만 양호하다는 말씀이었다.

"그래요, 그럼 씻고 있다가 가서 뵙지요." 그래도 새 가족이 입소했다는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기에 어제 야근한 몸은 천근만근 더위와 함께 무거워 그대로 다시 눕고 싶은 생각이 컸지만 그래도 그 유혹을 이긴 채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그래도 새 가족과 첫 만남인데 부스스한 모습을 보여 주기 싫었다. 화장대 앞에 앉아서 내 나름 대로 예쁘게 화장을 한다.

이제 40대가 내일모래인 나이에 야근을 했기에 이제 피부가 따라주지를 못한다. 화장이 곱게 되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 꾸며본다. 나름대로 옷도 신경 써서 입고 출근 을 했다. 나의 첫 이미지를 새로 입소한 가족에게 좋게 심어 주고 싶었던 것이다.

나의 근무처였던 신망애000 믿음2층 믿음 4반의 방문을 열었다. 방문을 연 순간 나의 기대는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 장애 상태가 양호하다는 팀장님 말씀만 굳게 믿고 왔는데 팀장님 말씀과는 전혀 달랐다. 새까만 얼굴에 빼빼하게 마른 얼굴, 빼빼한 다리에 휠체어를 의지해서 다녀야한다고 한다.

대화가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하기에 나는 방에 앉아서 상담을 했다.

이름은 이 기현(가명), 나이는 49세 슬하에 자녀는 딸 하나 친척 집에다 맡기고 온 상태였고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사랑하던 부인은 사고가 난 뒤 아직 세상을 헤쳐 나 가기가 버거운 어린 딸아이와 그를 혼자 남기고 떠나 버렸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는 먼 그의 과거를 회상해 보는 듯하였다.

다른 이야기와는 달리 그의 눈에는 어느새 굵은 이슬이 두 눈가에 맺혀 울먹거리



고 있었다. 아직도 그의 마음에서는 사랑하는 부인을 못 떠나보내고 있는 듯하였다. 또한 어린 딸아이를 친척집에다 맡기고 온 것이 마음이 못내 아린다고 하였다. 그리고는 한참을 쉬었다가 다시 마음을 가다듬어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2002년 건설업에서 종사를 했다는데 일을 하다가 건설현장에서 미끄러져 낙상하여 뇌출혈로 수술을 했지만 회복이 안 되었다는 것이었다. 현재 폐렴도 앓고 있는 상태라서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보기 가여울 정도로 이렇게 빼빼 하게 마른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했더니 임의시설에서 기거를 했는데 잘 못 드시어 영양실조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 했었고 그 병원에서 가망 없다고 진단이 내렸지만 그래도 기적같이 살았다고 한다. 병원 측에선 그가 적응을 잘 못했던 임의 시설로 다시 기현

씨를 보낼 수 없기에 시청에 의뢰하여 신망애000을 소개해 주어 우리 시설로 입소 하였다고 한다.

대화 도중에 중간 중간 기억을 더듬어서 대화를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대화가 가능한 상태였고 학력도 고등학교까지 나왔기에 글도 알고 숫자의 개념과 돈의 개념도 잘 알고 있었다.

이렇게 이기현씨와의 첫 만남은 시작 되었다.

일단 뇌병변1급이란 진단을 받아 이곳에 입소되었지만 뇌를 다쳤기에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한양대 구리병원 신경외과에 정확한 진료를 위하여 의무실에 있는 간호사 선생님께서 예약을 하였다. 예약날짜 날에 진료를 받고 왔다. 진료 결과를 간호사 선생님께 물었더니 파킨스병 이란 병명으로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진단을 내렸다한다.

파킨슨병의 증상은 팔 다리 떨림증, 근육 경직, 몸동작이 느려지는 운동장애, 우울 증, 수면장애, 치매 등 비운동성 장애를 유발하는 만성 진행성 신경 퇴행 질병이다. 이 병은 약물치료와 운동요법을 병행하여야 증상이 더 악화되지 않는다고 한다.

나는 이 병을 악화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리치료실 선생님과 상의하여 물리치료를 받게 했다. 물리치료실에 다니면서 운동으로는 평행봉 잡고 걷기 운동을 하여 다리의 힘을 키워서 혼자 걸을 수 있으면 하는 소망에 운동을 시켰다. 그리고 작업치료 중 콩을 병에 담기, 퍼즐 맞추기, 블록 모양 맞추기를 하게 하여 손의 떨림 중상을 관찰하며 손에 근육강화와 뇌 활동에 도움 되는 운동을 시켰다. 이렇듯 물리치료는 잘 되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일상생활이 문제였다. 입소하고 첫날에는 대변을

그냥 바지에 실수하였다. 기현씨가 안보이기에 무엇 하시나 찾아보았더니 화장실에서 혼자 대변처리를 해야겠다고 온 화장실 바닥에 대변을 칠해 놓았다. 그것으로 부족하였다. 밤에는 잠을 잘 안주무시고 환청도 들리신단다. 친구가 부른다고 새벽에도 밖으로 나가시려 한다. 그러는 행동 때문에 야근을 서는 선생님들은 초비상이다. 잠시도 눈을 돌릴 수 가 없었다.

한번은 야근 하시는 선생님이 각방 순회를 하는데 기현씨가 안 보이는 것이다. 어디에 있을까… 램프길과 각방을 찾는데 없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되고 급한 마음에 헐레벌떡 계단으로 뛰어 내려가고 있는데 두 번째 계단코너에서 한손에 휠체어를 붙들고 서 있었다 한다. 어떻게 힘이 없는 한손으로 그 무거운 휠체어를 끌고 또 한손으로는 계단 손잡이를 잡고 그곳까지 내려갔는지 지금도 알 수 가 없다. 그 뒤로 기현씨의 손은 초능력손이라 불려졌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가 밤에 야근자들을 힘들게 하는 행동들은 더 이어졌다. 밤잠을 안자고 소변을 받아 다른 가족들이 자는 이불에 뿌리는 행동을 하지를 않나, 아니면 이불과 바지에 흥건히 실수를 하지 않나 그런 기현씨 때문에 야근자들은 늘 비상이다. 그러하기에 시간에 맞추어 소변지도를 해야 했다. 또한 그것도 모자라 그는 밤에 안자고 옷장 서랍을 다 열어 잘 정돈된 옷가지들을 다 흩트려 놓는 행동을 했다. 기현씨의 행동들은 파킨슨병 증상 중에 치매의 증상이 아주 강하게 나타났다. 밤에나타나는 증상 때문에 진료를 받은 후 밤에는 신경안정제가 투약되었다.

첫 만남 때 보여 졌던 그의 모습들은 어디로 간대 없고 나를 더 힘들게 하였다. 대 화를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아주 정상인 같이 말했다가 또 횡설수설하지를 않나 담임 선생님 이름을 가르쳐 주면 금방 기억했다가 다른 선생님 이름을 말하지를 않나… 다른 행동들은 그래도 담임으로서 행동수정 하려고 노력하여 어느 정도 수정되었는데 욕설하는 부분에선 수정하기가 제일 힘들었다. 쌍시옷 들어가는 욕설은 보통이었고 특히 직원 선생님들 중에 나를 제일 어리고 만만하게 보았는지 제일 많은 욕설을들었고 남자선생님들보다는 여선생님들에게 더 욕설을 많이 했다.

한번은 걸레대를 이용하여 방걸레질을 하는데 "방을 닦아야 하기에 옆으로 좀 옮겨 주세요."라고 하니까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욕설을 하면서 걸레대로 나를 때리려는 행동을 하여 나는 안 맞으려고 걸레 대를 붙들고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다른 반 남자 선생님이 오셔서 그 상황을 종료 시켰던 적이 있다. 난 온몸에 기운이 없고 맥이 풀려 그 자리에 그냥주저 앉고 말았다. 이렇듯 나와 기현씨의 승부 없는 일 상생활이 이어졌다. 그러는 관계로 나의 몸무게는 3키로나 빠졌다.

나는 힘든 이 일들이 빨리 해결 되고자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빨리 이 힘든 기현씨와 관계가 평화의 관계가 되어서 서로 사랑으로 평안의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 병을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그러던 어느 날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 주셨다. 나의 침묵어린 깊이만큼 나의 기도는 힘들어했던 먹구름을 거둬주시고 태풍의 비바람을 잠재웠다. 조금씩 먹구름 속에서 희망의 햇살이 비춰지기 시작했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이 들어가면서 거칠었던 행동들은 조금씩 순한 양과 같이 온순해 지고 있었다.

비가 내리고 햇살이 밝게 개인 어느 날, 청록 빛 창문 밖을 바라보며 마음의 여유를 보여주면서 기현씨는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했다. "이제 나도 일을 하며 단란한 가

정을 꾸며가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난 마음이 아팠다. 더 퇴행되어져 가는 증상에 어떤 희망을 줄까… 그저 나는 아무말 못하고 바라만 보았다.

그를 바라보면서 그동안 치매로 인해 시달린 행동들을 기억해 볼 때, 한 마리의 치매 걸린 새처럼 그가 보여 지면서 그동안의 행동들과 걸어온 그의 인생을 회상해 보았다.

그의 행동 중에는 늘 심심하여 식당 식탁에서 냅킨을 가져다가 그것을 한장 한장 쌓아 놓는 일을 하였고 열심히 방 한 귀퉁이에서 쪼그리고 앉아 냅킨 한장 한장 세면서, 그동안의 지나온 세월들과 기억들을 되 내이고 있었다. 그 나름대로의 무엇인가를 세고 있었는데 오늘도 열심히 하얀 냅킨을 한쪽 방 귀퉁이에서 쪼그리고 앉아 한장 한장 세월을 세고 있다.

그 무엇인가를 쌓아가고 있었고, 아마도 나의 생각엔 한창 비상하며 날아야할 인생을 세월이 못내 아쉬운 듯 꺽어진 한쪽 날개를 쓰다듬으며 녹음 짙게 내린 먼 산을 바라보는 눈동자는 행복했던 젊은 날을 기억하며 노래하고 있었다.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둥지를 틀며 행복한 초록의 잎사귀에 희망을 물어다 날랐던 그 시절, 생각지 못했던 지붕위에서의 추락…. 뇌 손상으로 수술 후에 완치 못하고 젊은 나이에 치매증상이 어인 말인가… 사랑스런 어미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새끼 새는 포악해진 아비 새의 횡포에 빈 둥지만 남기고 떠나 버렸기에…

빈 둥지를 코가 썩어버릴 것 같은 알코올 냄새로 채워갔고 결국 그 종말은 알코올 냄새와 포르말린냄새가 배어 있는 하얀 가운의 두려움을 주는 철창 없는 둥지…

이제 그곳도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포악해지고 깃털 다 빠진 볼품없는

새를 버렸다. 그래도 그를 사랑하는 신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 그의 한껏 날아보지 못한 꿈을 불쌍히 여기셨고, 날지 못한 꿈을 펼쳐 주기위하여 물 좋고 산 좋은 아름 다움과 녹음이 우거진 포근한 사랑이 깃 들여 있는 주황색 아름다운 둥지를 주었다.

그는 신의 사랑을 받아들였고 그의 생활은 변화 되었다. 그의 얼굴에는 순수함과 평안이 있는 아가의 배냇 웃음과 함께 신이 창조한 어린아이로 돌아갔다.

이제 그의 유일한 비상은 휠체어에서 일어나 워커에 그의 몸을 의지해 하얀 냅킨 위에 그의 못 펼친 꿈을 담고 한 장 한 장 잃어버렸던 행복한 기억을 담아 차곡차곡 쌓아 가고 있다. 치매라는 병 앞에 굴하지 않으며 하얀 냅킨 위에 지친날개를 접지 않고 활짝 펼쳐 그의 꿈을 쌓아가고 있다.

이제 내가 그에게 해 줄 일은 이 희망을 잃지 않고 지친 날개를 활짝 펴서 저 푸른 하늘을 마음껏 비상할 수 있게, 그에게 필요한 참 섬김과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치지 않고 섬김과 사랑하는 것이다. 섬기고 베푸는 참사랑…. 크고 거창하고 대단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작은 도움을 주는 것, 힘을 주는 말 한마디, 작은 배려 등이 세상을 밝게 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 된다.

살아 숨 쉬는 동안, 지치지 않고 섬기고 베풀며 참사랑하며 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고 싶다. "그 목적을 위하여 나는 지치지 않고 나의 사랑이 필요한 곳이라면 저하늘의 떠 있는 별까지라도 새가 되어 찾아갈 것이다."

심사평 | 추이에 따른 차분한 전개와 감정 표현, 은유 등이 적절히 가미된 글로서 사회복지 현장성에 문학적 감성까지 곁들어져 읽는 이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불러 일으킵니다.

#### 장려상

## 자활의 이름으로

**엄재영** 남양주지역자활센터 실무자

자활후견기관. 지역자활센터 전의 명칭이다.

자활이라는 명칭도 왠지 낯선데, 게다가 후견기관 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지니 어떤 이들에게는 발음하기조차 어렵기도 해서 자활훈련기관이니 재활훈련기관이니라는 이름으로 종종 불리어지기도 했다. 심지어 어떤 카드 사에서 날아온 우편물에는 자활흑연기관으로 표기되기도 했다.

그런데 정작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정확한 발음보다는 '자활' 이라는 이름에 대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편견이다. 자활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딘가 정신적으로 모자란 부류의 집단으로 인식하는 그런 편견인 것이다. 그러나 자활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모자란 것이 아니라 단지 생활상 부족할 뿐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생계비가 부족하고, 가난으로 인해 학력이 부족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기회와 비용이 부족한 것이다.

남양주자활센터에는 자활 근로 청소사업을 하고 있는 환경 사업단이 있다. 이 사업단도 마찬가 지로 생활상 부족한 지역의 저소득 주민들이

일하고 있는 곳이다. 재작년 늦봄, 환경사업단이 청소용역을 맡고 있는 남양주시 와부읍의 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다. 나는 당시 업무상 일처리를 하기위해 그 학교에 방문하게 되었다. 화장실을 둘러보는 중, 어느 한 교사가 나를 보고 "청소책임자 인가요?" 라고 물었다. "예! 그런데요 어떤 일이시죠?"라고 답하자 그 교사는 할이야기가 있다고 했다.

이야기의 내용은 이러했다. 교실 안에 놓아두었던 자신의 지갑을 도난당했는데 그 '용의자' 가 다름 아닌 이 학교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 환경사업단의 김모씨라

는 것이다. 나는 평소 순박한 그 분의 성품에 비추어 볼 때 '그럴 리가 있을까?' 라고 속으로 반문했다. 더욱이 청소 범위가 화장실만 해당되기 때문에 교실에는 들어갈 일이 없었던 것이다.

그 교사에게 "어떤 근거로 그렇게 판단하시냐?"고 묻자 그 근거라는 것이 기가 막혔다. "내가 이 학교에 재직한 이래 이런 일이 없었는데 청소 용역으로 외부인이 들어오면서 발생되었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아무 이유가 없었다. 또 그 교사는 "지금이라도 지갑을 돌려주면 없었던 일로 넘어가겠습니다."라고 하며 참으로 교직자다운 '넓은 아랑'도 보여주었다. 할 말을 잃은 나는 즉답을 하지 않고 "일단 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그 학교에서 나왔다.

사무실로 돌아와서 이 사건에 대해 다시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학교의 화장실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김모씨에게 이미 그 교사가 전화를 걸어 지갑을 돌려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때부터 나의 감정은 분노로 치닫기 시작했다.

'화장실청소나 한다고 사람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아! 그분은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실까?'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막걸리를 마셨다. 분노와 참담함으로 뒤섞인 막걸리는 그날따라 걸쭉하게 목구멍으로 넘어갔다. 다음날, 눈을 떠 시계를 보니 새벽 5시가 조금 못되었다. 어제 있었던 일이 다시 떠올랐다. 문득,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다. 그 때부터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다. 분노를 삭이면서 가만히생각을 정리해 보았다. '일단 교장을 만나야겠다. 그리고 근거 없는 주장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사과를 받아내야겠다.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학교에서

미련 없이 철수하자!'

출근하자마자 정지점장님에게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곧장 그 초등학교로 향했다. 가보니 교장선생님은 출장이었고 문제의 그 교사는 수업 중이었다.

행정실장이 나서서 "그 선생님은 원래 성격이 저래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 테니마음 푸세요."라고 말했다. 사업단 책임자 분들과 이 문제를 놓고 회의를 했다. 논의끝에, 사업적인 고려도 해야 하니 억울하지만 일단 이 정도 선에서 정리하고 이후 과정을 지켜보자는 것이 중론이었다. 지갑 도둑으로 찍힌 그 분은 그래도 묵묵히 일을 해가셨다. 이후 그 학교에서 교내 방송이 있었다. 도난당했다는, 우리 식구가 훔쳐갔다는 그 지갑이 학교 안 어느 곳에서 발견되었다는 내용의 방송이었다. 짐작하건데, 아마도 그 문제의 교사를 빗대어 의도적으로 방송을 통해 알린 것 같았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묵묵히 일하신 김모씨는 이를 계기로 더욱 학교 측에서 인 정받게 되어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식사대접까지 받을 정도였다. 그 학교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 것이다.

자활이라고 하면 별 근거도 없이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에게 '자활의 이름으로' 말하고 싶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못난 사람들이 아니라 단지 생활상 부족할 뿐이라고. 우리도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세상의 한 주체라고 말이다.

심사평 | 문장이 매우 안정되며, 글의 내용이 주제와 유기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자활사업 실무자로서 사업 참여자에 대한 일반인들의 편견이 낳은 에피소드을 통해 함께 일하는 참여자와 자활사업에 대한 깊은 애정을 느낄 수 있는 글이었습니다.

우수상

## 나는 달린다

한경란 |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소속 노인돌보미

"아이고! 이 먼 곳 까지 오느라 고생했어!"

주름진 손이 주름진 손을 마주 잡는다. 한 손은 어르신의 손이고, 다른 손은 내 손이다. 어르신 손에 난 주름보다 내 것이 덜한 탓에 어르신 앞에 서면 한참 젊어진 느낌을 받는다. 마주 잡은 어르신의 손에선 추운 겨울을 이기고도 남을 따스함이 베어나온다.

매일 어르신들의 따뜻한 온기를 전달 받기 때문인지 요즘 나는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내 나이 육십 하나, 환갑의 나이에 다시 삶을 찾았기 때문이다. 누구의 아내, 혹은 누구의 엄마로 사는 삶이 익숙했던 나는 이제야 잃어버린 내 이름을 찾았다.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소속 노인돌보미, 나의 새 이름이다.

서른아홉이란 늦은 나이에 낳은 하나 뿐인 딸이 대학에 입학했을 무렵 나는 무척

외로웠고 허전했다. 이전보다 얼굴 보기도 힘들어지고, 자연스레 대화 시간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딸아이와의 관계를 받아들이는 일이 너무도 힘들었다. 순식간에고독과 허무함이 나를 찾아왔다. 갑작스레 우울증도 찾아왔다. 서운한 마음을 딸아이에게 토론 할 때마다 딸아이의 입에선 "더 늦기 전에 엄마 자신을 찾아."라는 대답만 들려왔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저절로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정말로 내 자신을 찾고 싶었다. 조금 더 욕심을 부려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자고 생각했다. 아직늦지 않았다면 당당하게 사회의 일원이 되어 내 일을 갖고 싶었다. 그러나 육십을 바라보는 나이에 일자리를 구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나이 많고, 흔한 자격증 하나없는 나를 써 줄 곳은 없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한 순간이 괜스레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들었다. 그렇게 기댈 곳 하나 없이 먹먹한 가슴을 어루만지며 살던 어느날, 나는 기적처럼 삶의 탈출구를 발견했다. 바로 남양주시 노인복지관이었다.

여기 저기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딸아이 친구 엄마를 따라 복지관에 일자리를 찾아 간 것이 계기가 되어 나는 복지관 사무실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난생 처음으로 복사하는 법도 배우고, 장식 꾸미는 일도 했다. 처음 해보는 일이었지만 복지관 사무실 선생님들의 "한경란님 참 잘하시네요!" 라는 칭찬은 없던 재능도 생겨나게끔 만들었다. 복지관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하다보면, 종종 처음 직장 생활을 하던 이십대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도 들었다. 그때처럼 내가"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가 아닌 "한경란님!"으로 불린다는 것이 나를 참 설레게 했다.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내 이름 석자를 듣는 것이 얼마만 이었던가!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내겐 너무 큰 행복이었는데,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 재미와 인정 받는 기쁨을 알아버린 마음에 더 큰 것을 욕심내기 시작했다.

바로 노인돌보미 일이었다. 아무런 배경지식도 경험도 없었기에 걱정되는 것 또한 많았지만 도전하고 싶었다. 환갑을 바라보는 나를 받아주고 변화시켜준 복지관에 대한 보답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내 인생을 다시 찾아준 복지관을 위해, 더 능력 있는 일꾼이 되어 보답하고 싶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이제 1년이 다 되어간다. 아직도 초보 티를 벗진 못했다. 모르는 것도 많고, 때론 실수도 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걱정거리가 너무 많다. 그러나 복지관에서 일을 하며 되찾은 자신감이 나를 일으켜 세우고, 도전할 수 있게 힘을 주고 있다. 또 한가지가 있다면, 이 일을 시작하면서 만나게 된 어르신들의 따뜻한 미소가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돌보미 선생님 오셨네!"

산 비탈길을 걸어 올라가 마주한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 나는 하루를 시작한다. 손수 타주신 커피 한 잔에 힘을 얻고, 직접 키우셨다며 그 자리에서 따 주시는 채소 묶음에 웃음이 난다. 노인돌보미라는 이름으로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있지만, 오히려 어르신들의 따뜻한 미소와 소박한 마음에 내 심신이 위로받는 것을 느낀다.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땐, 낯선 사람 보듯 경계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셨던 어르신들께서 이제는 더 없이 따뜻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봐 주신다. 꽁꽁 닫혀있던 어르신의 마음이 열리는 순간 나는 돌보미 생활을 하며 가장 보람을 느낀다. 찾아뵐 때마다 말씀도 안 하시고. 본 체만 체하시던 어르신께서 어느 날 나를 앉혀놓고 들려주

신 딸 이야기에 나는 가슴이 뛰고, 눈물이 맺힌다. 진심을 알이주셨다는 것이 너무도 좋아서 기꺼이 마음을 열어주신 어르신이 너무도 감사해서, 그 날 느낀 감동과 기쁨을 노인돌보미 활동의 활력소로 삼게 된다.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이 어떤 건지를 알 것 같은, 예순 한 살의 돌보미도 어르신들 앞에서는 큰 딸 같은 존재가 된다. 함께 늙어가는 친정엄마, 아빠와 마주앉아 이야기하는 느낌으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울고 웃으며 어르신들을 자식된 마음으로 모셔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하곤 한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는 효자, 효녀 자식 분들을 두신 어르신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어르신들도 많다. 슬하에자식이 없거나, 자식이 있어도 연락을 끊고 사시는 어르신들에겐 나도 모르게 더 마음이 쓰일 수 밖에 없다.

특히 한 어르신을 생각하면 가슴에서부터 먹먹한 슬픔이 느껴진다. 아흔이 넘으신 남자 어르신인데,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계신다. 그러나 중풍으로 장애 등급을 받은 이들과 척추 수술을 하여 거동이 불편한 큰 딸은 직접적으로 어르신의 수발을 들 수가 없는 상황이다. 어르신께서는 작은 딸도 있다. 그러나 사위가 고위 공직에 근무하고 있어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르신을 멀리한 지 오래되었다한다. 안타까운 것은, 어르신께서 충분히 수발 능력이 있는 작은 딸 내외로 인해 수 급자로 인정받지 못하신다는 점이다.

이런 점은 정말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것 만으로 자세한 사정은 따지지도 않고 수급자가 되지 않는 법은 개정되어야 할 필요 가 있다.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를 법으로 고통 받는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노인돌보미가 된 이후의 삶은 확실히 그 이전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를 가져왔다. 일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 일을 통해 인생을 배우며, 날마다 보람으로 마음을 살찌우니 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지난 봄,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팔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을 때가 생각난다. 무사히 회복되어 다시 어르신들을 볼 수 있게 되었지만 자칫하면 머리가 크게 다쳐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다. 팔이 부러지는 것으로 그친 것은 아직은 어르신들을 잘 돌보라는 하늘의 뜻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다시 태어나 살아간다는 마음으로 마지막열정을 쏟아 더 열심히 노인돌보미 활동을 해나갈 것이다. 날마다 나를 반겨주시는 어르신들의 미소에 힘을 내면서, 날마다 새로운 각오로 시작할 것이다.

어르신들을 뵈러 집을 나서기 전, 나는 날마다 기도를 한다. 어르신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돌보미, 더욱 더 잘 할 수 있는 능력있는 돌보미가 되게 해 달라고 말이다. 그 꿈이 이뤄지는 날까지 나는 계속 달릴 것이다.

노인돌보미 한경란, 내 새로운 이름을 걸고!!



심사평 | 육십이 넘은 나이에 새롭게 자신의 삶을 개척하신 경험을 적절한 표현과 고백적 어투로 우수하게 표현하셨습니다. 또한 '노인돌보미'란 사회복지제도의 필요성과 의미들에 대해 현장의 실제적인 사연을 통해 효과적으로 전달해주었습니다. 당신이야 말로 삼팔륙 세대이십니다. 삼십대처럼 팔팔한 육십대!

## 밥상만 받으려 말고 봉사하라!

이희워 | 자워봉사자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은 산 좋고 물이 맑아 살기 좋은 고장으로 소문난 지역이다. 나는 이곳 수동면에 산다는 것이 큰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무언가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작년(2008년 3월) 봄에 수동면 원유관 노인회장이 수동면 노인회에 나와 노인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마침 잘됐다 싶어 흔쾌히 승낙을 하고 노인회 사무장 직을 수락하였다. 나는 우선 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살펴보았다. 노인회의 조직은 어느 정도 잘 구성되어 있었다. 그런데 활동 내용은 너무 빈약하였다. 매월 한 번 모여서 월례회를 하고 관내 단체에서 제공하는 식사대접만 받는 것이 전부였다.

이런 노인회 운영을 2개월 하고나니 개선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대접만 받고 있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노인회장들과 상의해 마을을 위하여 할 만한 일거리를 찾기 시작했다. 우리 고장을 위하는 일! 젊은 세대에 모범이 될만한 일과 어린이를 돕는 일이 무엇일까! 즉시 22개 경로당 회장들을 소집하여 일을 하자! 봉사를 하자고 했더니 노인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나는 설득 또 설득하여 어렵게 절반의 승낙을 받는데 성공했다. 절반의 승낙에 힘을 얻어 바로 활동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봉사활동은 길에 버려진 쓰레기 줍기 운동을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몇몇 회장들은 '우리가 그래도 노인회장인데 길에 다니며 어떻게 쓰레기를 줍느냐? 이게 체면이 말이 아니지 않느냐?' 며 거부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불만이 다른 회장들에게 전파될 것이라는 걱정이 생겼다. 참으로 답답하기가 그지없는 일이었다. 설득할 방법도 막연했다. 나는 왜 이런 불만이 발생 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니 우리지역 경로당 회장들은 봉사활동 경험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다.

봉사의 중요성과 즐거움, 보람에 대하여 지역 유지나 자원봉사 활동가를 초빙하여 교육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수시로 설득하였다. 회장들이 어느 정도 봉사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을 즈음에 조심스레 다시 활동을 시도해 보았다. 이번에는 중학교 앞



에서 학생들 상대로 금연캠페인을 하기로 했다. 금연 관련 전단지를 만들어 등굣길 학생들에게 배포하였다. 처음엔 쑥스러워하던 노인들이 시간이 조금 지나자 점점 자연스럽게 전단지도 주고 인사말을 건네기도 하는 것이었다. 금연 캠페인 결과는 쓰레기를 주울 때 보다 훨씬 좋은 반응을 보였다. 우리는 점점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다음 자원봉사활동으로 아동 성범죄 추방 캠페인을 하기로 했다. 이캠페인은 경로당 총무까지 포함하여 50여명이 어깨에 띠를 두르고 현수막을 들고면소재지 도로에서 도보행진을 했다.

우리 지역에서는 전에 없었던 캠페인이고, 특히 노인들이 나서서 한 적은 더욱이 없었던 일이었다. 이 광경을 본 주민들은 노인들이 좋은 일을 한다는 소문을 퍼뜨려 노인회에 대한 칭송이 지역사회에 퍼지게 되었다.

그런 말음 들은 노인회장들은 어깨가 으쓱해지고 마음에 변화가 조금씩 오는 것 같았다. 나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 또 다른 시도를 하게 되었다. 우리 지역에는 축령산과 서리산등의 아름다운 산들이 있다. 이 곳에 오는 등산객들 을 상대로 자연보호 캠페인과 산불예방 캠페인을 해 보기로 했다. 등산로 입구에서 등산객을 상대로 전단지를 나누어 주고 산불예방을 당부하였다. 등산객들 중에는 노인들에게 '훌륭한 일을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심지어는 음료수를 주는 분 사탕을 주는 분 노인들의 손을 잡아주는 분 등등… 다양한 형태로 고마움을 표 현하고는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었다. 캠페인 전단지를 배포하는 우리 회장단 얼굴을 보니 맨 처음 쓰레기 줍던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이제 이 분들이 봇사의 즐 거움을 맛보는 구나' 하는 생각과 절반은 성공 한 것과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이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일년 내내 하고 나면 연말쯤에는 전 회장들이 훌륭한 일을 해냈고 또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길 것이라는 생각에 좀더 새로운 계획 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곳 수동지역에는 매년 여름 행락철이 되면 많은 행락객 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며 무질서하게 놀고 간 흔적 때문에 하처변이 말도 못할 정도 로 훼손되곤 한다. 우리 고장 우리 하천에 맑은 물이 흐르고 깨끗하게 보존하기위해 노인회에서 캠페인을 하번 해보자고 제의했더니 상상외로 만장일치의 동의를 얻게 되었다.

관내 면장에게 협조를 받아 명예환경 지킴이 회원증을 만들어 목에 걸고, 매주 주말이면 12명씩 4개조로 나누어 수동천 일대에서 환경보호 캠페인과 어린이 물놀이 안전 지킴이로 활동을 하였다.

주중엔 관내 모든 행사에 질서유지 활동을 하며 학교주변에서 등하굣길에 교통안 전 지킴이등 봉사활동을 하며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이러한 우리 노인회 활동을 지켜보던 관내 기관장 및 유지들의 시선이 예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또한 노인회 활동에 관한 사진과 동영상이 각 지역신문과 우리고장 노인신문,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수차례 게재되어 모범노인회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러한 활동으로 인하여 대한노인회 남양주 지회는 수동분회를 2008년도 최우수 분회로 선정하고 부상으로 100만원의 상금을 받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부상으로 받은 상금의 사용처 때문에 잠시 즐거운 논쟁이 생기기도 하였다. 경로당별로 소주와 안주를 제공하자는 등, 현금으로 나누어 갖자는 등, 회식을 하자는 등의 의견이 분분했다. 그러나 논의 끝에 상금 모두를 불우이웃 돕기에 쓰기로 결정하고 경로당별로 1명씩을 추천받아 22명에게 쌀을 전달했다. 이러한 훈훈한 선행을 목격한 관내 면장이 여름에 활동할 때 필요한 유니폼과 전단지, 현수막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주어 노인회 운영을 도와주었다. 2009년 시무식 때 전년보다 10% 더 많은 봉사활동을 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다. 얼마 전 보건소에서 노인대상 독감예방주사 접종 때에도 노인회장들의 질서유지 활동으로 보건소 직원들을 도와주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

수동 노인회가 2년 동안 시행한 봉사활동은 어느 단체도 따라올 수 없다고 자부하고 싶다. 나 역시 봉사는 남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이고 자기만족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 새삼 느끼게 되었다. 날이 추워져서 봉사활동 횟수가조금 줄어들자 노인들이 먼저 묻는다.

'이번 주는 어디로 활동 나가느냐?' '별로 안 추운데 왜 안하냐?' 심지어는 '몸이 근질근질 하다' 라는 분도 있다. 첫 봉사활동을 할 때 뒷짐 지고 멋쩍어 헛기침 하고 먼 산만 보던 분들이 많이 변한 것이다. 노인들이 봉사의 제 맛을 알고 그 보람을 온 몸으로 느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저절로 웃음이 난다.

그 동안의 봉사활동으로 얻게 된 결과는 매우 크다

첫 번째, 존경받는 노인으로 어디를 가나 할일을 다하는 노인, 당당한 노인으로 거듭났다는 것이다. 맨 처음 쓰레기를 줍기를 꺼려하던 모습은 지금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쓰레기를 줍든, 금연, 산불조심 캠페인을 벌리든, 교통안전 지킴이 활동을 하든…. 노인들의 얼굴엔 자신감과 웃음이 가득하다. 이제는 빨간 모자를 쓴 노인들을 보면 주민들이 알아보고 먼저 인사하고, 거리감을 두던 아이들, 청소년들도 친근하게 다가와 '할아버지, 할머니~' 하며 반가워한다.

두 번째, 수동 노인회의 숙원사업인 노인회관 신축부지 매입비의 부족분을 각 단체와, 유지들의 후원을 받게 된 것이다. 노인회 활동을 눈여겨보시던 많은 분들이 노인회관 신축 소식을 듣고 여러 방면으로 후원해주시고 홍보해 주신 덕분이다. 이 모

든 일의 결과는 노인들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 수동 면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을 알 아봐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지역의 발전과 자라나는 어린 이들을 위하고 젊은이들에 모범이 되어 더욱 존경받는 노인으로 거듭나는 노인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대한민국 모든 늙은이여! 앉아서 밥상만 받으려 말고 다함께 봉사를 생활화하는 늙은이가 되기를 바라며…"

심사평 | 어르신들의 지역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새로운 사례를 발견하게 한 참신한 글입니다. 문장의 명료함과 정확성이 높아 주제가 잘 표현되었으며 노인회가 가야할 방향을 잘 제시했으며 지역을 위해 솔선수범하신 어르신께 저절로 머리가 숙여집니다.



# #2

# 나눔을 실천한 훈훈한 이야기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지역 사회의 소외 받은 이웃들을 위해 자원봉사를 하면서 겪은 사연과 자원봉사를 하면서 대상자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이 변화된 보람들을 나누는 글입니다. 자원봉사에 관한 다양한 주제의 글을 통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느끼며 시민의 자발적인 힘으로 더불어 함께 모두가 행복한 남양주시를 꿈꿔봅니다.

## 사랑과 사랑이 오고가는 시간

#### 진혜선 | 자원봉사자

오래전 가족들과 함께 장애인 시설인 등대마을이라는 곳에 간적이 있었다. 처음 가보는 장소, 처음 보는 낯선 사람들에 의해 잔뜩 겁먹은 난 엄마, 아빠의 손을 꼭 잡고 문에 들어섰다. 자폐증이 있어서 4계절 내내 장갑을 끼고 있어야 하는 아이, 마비로 인해 몸이 뒤틀린 채 누워계신 아저씨, 부모님의 폭행으로 인해 뇌를 다쳐 장애가온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 아픈 사연이 나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다. 각자의슬픔은 안고 있는 아이들과 나는 어색함도 잠시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뛰어 놀았다. 살짝 데친 호박 잎, 구수한 된장, 그리고 갓 지은 따끈따끈한 밥을 함께 먹어서 인지이날의 저녁은 잊지 못할 최고의 맛과 추억을 남겨주었다. 하루를 보내고 헤어질 무렵 나와 함께 뛰어놀던 오빠가 따듯한 오빠의 두 손으로 내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또 놀러와 같이 호박잎에 저녁먹자." 오빠의 따듯한 이 말이 난 아직도 귓가에 맥돈다.



이 시간 이 추억을 계기로 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그동안 봉사활동을 하면서 나에게 기억이 남는 이야기가 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어느 날 방과 후 교실 봉사활동을 하다가 다문화 가정의 아이를 만나면서 시작된다.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 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한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하였다. 그 아이의 한글 교육을 담당한 나는 하루하루 열심히 한글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나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한글 실력은 좀처럼 나아지질 않았고, 아이도 나도 지쳐있었다. 가장 큰 문제는 아이의 태도였다. 아이는 한글 공부를 너무나도 싫어했다. 아무리 칭찬을 하면서 읽으면서 열 번씩 쓰라고 해도 마음은 다른 곳에 둔 채 공부했다. 이렇게 하다가는 도저히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나는 가끔 무섭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아이는 내가 오면 공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인상을 찌푸리고 도망갔으며 내가 오는 것을 반겨주지 않았다. 누군가가 날 반겨주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슬

64 사람이 꽃보다 이름다워 #2 나눔을 실천한 훈훈한 이야기 65

픈 상황임을 이때 알았다. 이렇게 방학동안의 봉사활동을 마치고 그 아이와 난 이렇게 헤어졌다. 그리고 1개월 후, 학교 과제로 복지관에 인터뷰를 하러갔다가 방과 후교실에서 "김밥 만들기"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함께하기로 했다. 너무나도 오랜만에 보는 아이들이 그저 반가웠고 아이들도 나를 잊지 않고 반겨주었다. 단 한명의 아이만 빼고…. 아이들은 4명씩 조를 이루어서 김밥을 만들었다. 아이들이 김밥을 잘말지 못해서 김밥 마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다. 그런데 이 때, 까맣고 작은 손위에 옆구리 터진 김밥하나가 내 앞으로 불쑥 나타났다. 그 아이였다.

"선생님, 먹어요."

이 말 한 마디가 내 가슴을 찌릿하게 만들었다. 남들에겐 비록 서툴고 못생긴 김 밥처럼 보일지 몰라도 나에겐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사랑의 김밥이었다. 그날 아이는 계속해서 나에게 김밥을 주었고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내 옆으로 와서 내가 김밥 마는 것을 구경하기도 했다. 오랜만에 보는 아이의 모습에 그저 반가웠는데 아이의 변화된 모습을 보니 더욱 반갑고 사랑스러웠다. 아이도 내가 보여준 사랑에 보답을 하는 것이었을까? 아이는 이제 공부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처음 만났을 때 보다는 많이 밝아지고 말도 많이 했다. 이 아이가 변화한 이유가 나 때문은 아니다. 그러나 아이의 변화에 있어서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길 바란다.

두 번째 기억은 봉사동아리를 통해 일주일에 한번 맹인 학교에 봉사활동을 다녔을 때였다. 내가 처음으로 맡게 된 아이는 웃는 모습이 너무나도 밝은 2학년 여자아이였다. 너무나도 밝고 예쁜 아이의 모습에 보고 있는 나도 절로 웃음이 났다. 그러

나 아이의 참여도는 너무 낮았고 소리를 지르거나 울며 발로 차기도 했다. 처음해 보는 봉사 분야인데 아이가 잘 따라 주지 않아 조금은 어려웠고 속상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자 아이도 나도 서로에게 적응을 하고 잘 이끌어주고 잘 따라와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간식으로 사온 양파링이 나에게 한줄기 빛이 되었다. 양파링을 너무 나도 좋아하는 아이는 나를 만나면 "오늘은 양파링 있어요? 없어요?"를 가장 먼저물어본 뒤 프로그램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양파링이 있는데도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날에는 노래를 불러주거나 노래를 해달라고 하면 금세 기분이 좋아져 "선생님, 박수쳐요" 하고 노래를 불러주었다. 우리가 준비한 마지막프로그램이 끝나고, 함께 간식을 먹는 날 나는 아이에게 물어보았다.

"선생님이 좋아요? 양파링이 좋아요?"

"……"

"선생님"

이럴 수가! 언제나 양파링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던 아이가 내가 더 좋다고 말하다니, 나는 이 짧은 한마디를 잊지 못할 것 같다. 그리고 다음 학기가 되자 나는 또다시 맹인학교로 봉사활동을 갔다. 아이는 나의 목소리를 잊지 않고 기억해주었다. 방학기간동안 아이는 많이 성장해 있었고 여전히 밝고 예쁜 미소로 나를 맞이해 주었다. 아이는 이제 더 이상 울지도 때를 쓰지도 않고 그 누구보다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많이 웃는다. 아이 역시 우리와 함께 그 시간을 즐기고 서로 사랑을 전달해준다. 아이의 변화 속에 서로의 사랑이 함께하고 나의 사랑을 아이가 많이느꼈으면 좋겠다.

66 사람이 꽃보다 이름다워 #2 나눔을 실천한 훈훈한 이야기 67

봉사활동을 하다보면 별것 아닌 사소한 일에도 슬프기도 하고 보람차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다. 욕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준 방과 후 교실의 아이, 버스아저씨께 큰소리로 인사하는 장애 아동, 수회를 배워오라고 재촉하는 농학교 학생, 함께 얼음땡 놀이 하자고 조르는 아이들 그 순수하고 맑은 모습에 나의 생각조차도 맑아지고 순수해지는 시간이 되는 것 같다. 아이들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에 상처받고, 감동받고, 행복을 느낀다. 이런 아이들의 모습 역시 나에게 상처가 되고 감동이 되고 행복이 된다. 봉사활동을 하다보면 그 시간, 그 장소가 너무 밝아지고 따듯해지는 것 같다. 나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람들의 밝은 웃음이, 서로의 사랑이 그 시간을 더욱 따듯하게 해주는 것이라 믿는다.

다른 사람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 그 사람들에게 나의 존재가 힘이 되고 그들의 존재가 나에게 힘이 된다는 것, 이것만큼 기쁘고 보람찬 일이 어디 있을까?

봉사활동은 내가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나에게 안겨줄 수 있다. 언제나 준다고만 생각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받고 있는 게 더 많은 것이 봉사활동이다.

모든 것이 그렇듯 봉사활동 역시 시작이 어렵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렇듯 봉사활동 또한 시작이 반이다. 물론 봉사활동을 하고나면 정신적, 신체적으로 많이 지치고 힘들 때도 있다. 그러나 그 힘든 것 보다는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이 사랑을 주는 것이고 사랑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봉사활동의 매력에 빠지는 것 같다. 이처럼 나는 많은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며 행복해지길 바란다.



공모동기 |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감정들과 보람차고 감동적인 순간을 공유하고 많은 사람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참여하였습니다.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경험했던 소소하지만 감동적인 순간, 아이들의 순수하고 맑은 마음을 전하고 자원봉사활동의 보람참, 행복감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68 사람이 꽃보다 이름다워 #2 나눔을 실천한 훈훈한 이야기 #69

# 희망이 보이는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

이유경

나의 이름 세 글자 뒤에 불리어지는 또 다른 이름이 있다.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 강사이다. 올해 3월 남양주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청소년 자원봉사 지도자 양성교육〉을 4주 동안 받고 얻어진 고귀하고 소중한 선물이었다. 수료 후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게 되었다. 직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 낮에는 일에 매달리고 저녁에 돌아와 보면 잔뜩 쌓인 집안일에 아이들을 챙기는 엄마로서의 본분을 지키면서 과연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을까 하는… 스스로 지켜야 할 약속에 대한 깊은 책임감이었다고 할까!

하지만 자원봉사센터에서 교육받은 열정으로 청소년을 변화시키고 움직이게 한다면 자원 봉사에 희망이 보일 것이라는 생각에 청소년이 쉽게 이해하고 받아 들일수 있는 나만의 교안을 만들어보겠노라고 연구하게 되었다. 파워포인트에 익숙하지 않은 내가 날밤을 새며 독학 속에 어설픈 프로그램이지만 최선을 다해 만들어 나가

는 하나 하나의 과정이 어렵고 힘든부분도 있었지만 갖추어져 가는 교안을 보면 뿌듯함이 있었다.

딱딱한 이론보다 학생들의 마음을 즐겁게 움직일수 있는 자원봉사의 정의와 의미를 담은 신나는 〈자원봉사 하고송〉을 액션과 함께 만들었다.

자원봉사하면 기쁨 전염되고 자원봉사하면 마음 부자되고 자원봉사하면 통장 불어나고~ 자꾸 자꾸 하면 되고! 자원봉사송

몇백번을 불러보았다 행하는 것에 감사가 생겼다.

드디어 첫 강의가 있는 4월4일 학생들을 만나러 가는 마음은 설레임으로 가득차 있었다. 쌍둥이 딸 아침밥을 먹이고 준비물 챙겨 학교를 보내고 급하게 버스를 타고 가는데 "엄마 송이가 신발주머니 놓고 와서 집으로 갔어요"라는 찬이의 말을 듣고 집으로 되돌아 가서 다시 챙겨주고 급하게 퇴계원 고등학교로 달려갔다. 음악실로 이동 봉사조끼를 입고 강의하게 될 1학년 4반으로 향했다. 샤방샤방 4반 학생들은 반가운 모습으로 첫 만남의 인사를 건네 왔고 자원봉사 하고송으로 에너지를 모으고

70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2 나눔을 실천한 훈훈한 이야기 71

학생들의 마음을 열어나갔다.

뭘까? 하고 호기심에 찬 학생들은 신나는 웃음과 함께 흥미를 보여주었고 적극적 인 태도로 어느새 한마음이 되어가고 있었다. 담임선생님도 유쾌하게 따라 하시는 모습에 강의에 신바람이 났다 강의가 아니라 자원봉사 놀이였고 아쉬울 정도로 빠져 드는 자원봉사 게임과도 같았다.

자원봉사의 특성과 자원봉사의 의미 남양주 자원봉사센터의 역할과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고 학생들이 가진 재주와 재능으로 할 수 있는 자원봉사의 다양한 종류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해주었다 학생들의 반응은 컸다! 아니 뜨거웠다! 그 열기가 크게 느껴졌다. 학생들의 환한 웃음에 자원봉사의 의미가 잘 전달된 것 같아 첫 강의의 결과는 행복과 기쁨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었다.

헤어지기가 서운할 정도로 빨리 지나간 50분의 강의시간 학생들이 앞으로 나와 "선생님 강의 너무 재밌네요" "코스튬도 봉사활동이 된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해요?" 라고 물어오고 봉사활동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색종이로 하트를 접어 "선생님 선물이에요"라고 건네준 소박한 마음을 담은 선

물은 세상의 어느 선물보다도 값진 선물이었다.

청소년은 미래의 희망이고 재산이다 그들이 능력을 펼쳐내는 만큼 주변도 돌보는 아름다운 마음을 지니기를 바란다. 그것이 바로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이다.

"자원봉사교육을 받는다길래, 아 또 뭔가 지루한 일을 하는거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surprise.!! 내 이제껏 이렇게 교육 받는데 재미있었던 적이 있던가? 지루한 느낌 전혀 없이 즐거운 교육 아니 바로 놀이였다.

게다가 자원봉사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어서 정말이지 좋은 계기였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자원봉사 활동이 훨신 많았다니 정말 즐거웠다.

"오늘 처음 받아본 자원봉사교육 참 재미있었고 선생님께서 강의를 재밌게 해주 셔서 힘을 얻었습니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유경선생님 정말 재밌으셔요. 오늘 자원봉사에 대해 많은 걸 배웠어요. 저는 앞으로 자원봉사 열심히 해서 착한 사람이 되야겠어요. 여태 제가 한 행동을 되짚어보면 정말 부끄럽네요 이유경샘 아자아자 파이팅!"

"자원봉사는 박지성이다. 자원봉사는 엄마이다. 드럼세탁기이다. 폭탄이다. 신종 플루이다. 공동체이다. 넓은 하늘이다. 비다. 행복이다. 즐거움이다. 생각대로이다.

72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2 나눔을 실천한 훈훈한 이야기 73

나의 의지로 하는 것이다. 추수이다. 생활 에너지이다. 감기이다. 축구이다. 가족이다. 마음이다. 스펀지이다. 그림자이다. 자신의 얼굴이다. 행복바이러스이다.

학생들이 자원봉사 교육을 받고 생각한 자원봉사의 의미였다.

자원봉사는 나눔을 전염시키는 학생들의 생각처럼 행복바이러스이다.

청소년 자원봉사교육을 받은 9개 학교의 5030명의 학생들의 마음 속에 자원봉사가 생활화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그 희망의 나무가 튼튼하게 뿌리를 내려갈 때 온 세상이 맑고 밝은 사람들로 가득차지 않을까 싶다

청소년 자원봉사 강사…

나에게 가장 소중한 또 다른 이름을 주신 자원봉사 센터에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공모동기 | 개인적으로 바쁜생활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나눔과 자원봉사의 의미를 남양주시 자원 봉사센터의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 강사로 활동하며 학생들에게 자원봉사 강의를 통해 전하고 있다. 자원 봉사센터의 기자로 소식지에 행복한 소식을 전하고 봉사 나눔터에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 코치로 다양한 형태의 자원봉사를 하면서 내게 돌아오는 보람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특히 청소년에게 자원봉사 강의를 하면서 얻는 기쁨은 글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이다. 공부가 앞서는 시대 학생들이 자원봉사의 정의와 필요성을 자연스럽고 쉽게 받아들이고 자원봉사가 결코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어려운 일이 아님을 알리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공모에 참여해 본다.

### 새로운 세계

윤혜빈 | 청소년자원봉사자

너나울 봉사단은 친구의 권유로 우연히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봉사시간을 채우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2월 봉사단 발대식 날 자원봉사 기본교육을 받으면서 봉사란 어떤 것이고 앞으로 내가 이런 봉사활동을 하게 되는구나 하며 기대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봉사활동 내용을 보며 감탄하게 되었다.

봉사활동을 가게 된 곳은 신망에 재활원, 에덴노인요양센터, 서울시민 안전 체험관, 하수처리장, 휴면에버, 선경농원 등 다양한 곳이었다.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에덴노인요양원이었다. 그곳에는 몸이 불편하거나 정신이 약간 온전하지 않으신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셨다. 나는 그곳에서 청소를 해드리며 간식과 식사도 먹여드리면서 많은 생각을 하였다. 사실 처음에는 냄새도 나고, 노인들의 행동이 이상해서 거부감이 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손녀처럼 나를

74 사람이 꽃보다 이름다워 #2 나눔을 실천한 훈훈한 이야기 75

대해주시는 할머니가 정말 우리 할머니처럼 느껴지며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리고 할머니들이 가여운 생각이 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되는데.. 누구나 늙는 것인데 늙으면 이런 곳에서 외롭게 지낸다는 것이 슬프게 느껴졌다. 나중에 끝나고 나오면서 많이 아쉬웠고 조금 더 있다가고 싶은 생각도 들었다 다음에 또 이곳에 와서 말벗이나 청소를 해드리며 마음의 친구가 되어드리고 싶었다.

1년 동안 너나울 봉사단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또 다른 세계에 대해 알게 되었다. 이렇게 재미있고 뿌듯한 일들을 하게 되어 기뻤다. 이번 봉사단활동은 마무리되어가지만 이번 활동을 계기로, 나는 또 다른 봉사활동을 하며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갖는 마음이 따뜻하고,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여유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다. 앞으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또 다른 나를 만들어 가고 싶다.

윤혜빈양은 너나울 봉사단에서 열심히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청소년 자원봉사자입니다. 처음 자원 봉사활동을 시작했을 때의 어려움과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느껴가는 보람을 전하고 있다.

### 나의 꿈

박수현 | 청소년자원봉사자

나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너나울 봉사단에 가입했고 정말 열심히 잘해보고 싶은 생각이 가득했고, 의욕만 넘쳤었다. 그리고 그 의욕만으로 6월 봉사 활동처인 에덴노인요양원에 봉사활동을 가게 되었다. 나는 명랑하고 쉽게 어른이랑 친해지니까 잘 할거야. 잘하겠지? 라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가자마자 하게 된 노인들의 식사보조에서 그 기대는 무너졌다. 그곳의 할머니들은 내 주변에서 보던 분이 아닌 요양을 하시는 분들로 내 모습을 못 보시고 나의 소리조차 잘 듣지 못하셨다. 그런 분의 식사보조는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고 나를 반성케 했다. 식사 보조를 하려고하면서 나는 그 순간 나의 기준으로 나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입을 열어 줄 것이라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할머니는 듣지 못하셨기 때문에 배가 고픈 상태에서 입을열고 수저가 들어오기를 기다라고만 계셨다. 나는 잘 몰랐었고, 봉사라는 것을 너무쉽게 생각한 나를 반성 하게하는 계기가 되었다.



김금순 | 자원봉사자

..... 사랑하는 당신께

오늘도 전 당신 사진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 합니다.

당신이 떠나고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정말 당신을 그렇게 보내고 살 수 없을 것 같았는데… 당신이 내 곁을 떠나던 날을 생각 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려 옵니다. 그날따라 늦은 출근을 하시면서도 자꾸만 현관에 서서 발길을 돌리지 못하던 그모습이 당신의 마지막 모습이 될지 누가 알았는지요? 회사에서 당신이 쓰러져서 병원에 있다는 말에 전 가는 동안, 차안에서 당신이 몸이 불편 하더라도 한 평생 내 곁에 있게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기도마저도 신은 들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전 당신의 임종도 지키지 못한 채, 준비 하지 않은 이별을 했습니다. 당신을 보내고 나서 난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문소리만 나도 당신이 웃으며 들어오는 것만 같았으니까요.



그때 느끼고 고쳤다. 봉사를 할 때 나의 입장보다 그분들의 입장에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 성장 할 수 있었다. 나는 내가 몇 년 후 사회복지사가 되었을 때를 생각 한다. 그때 이 봉사 활동의 기억을 살리고 기억해 진정 그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내가 진정한 봉사를 할 수 있는 계기 된 것 같아 좋은 경험 이었다. 이런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다양한 봉사활동과 체험을 할 수 있도록한 너나울 봉사단에 가입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박수현양은 사회복지사의 꿈을 꾸고 있는 청소년 자원봉사자 입니다. 자원봉사를 통해 만났던 할머니와 의 만남을 통해 봉사할 때 나 자신보다는 대상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 깨달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78 ※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2 나눔을 실천한 훈훈한 이야기 🚿 79

그러던 어느 날 당신이 가고 하루하루 마음에 문을 닫고 있는 내 생활에 변화가 생겼어요 우연히 찾은 집 근처의 복지과에서 자워 봉사자를 뿜는다는 말에 신청을 하고 봉사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봉사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그 삿软에 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교육을 받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은 지역 에 사시는 혼자 계신 외로운 어르신들에게 복지관에서 만든 반찬을 가지고 찾아가서 전해드리기도 하고 말벗도 해 드리고 또 어르신들이 불편한 곳이 있으면 복지관에 말하여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도와드리는 그런 봉사를 하게 됩니다. 교육을 받는내내 과연 내가 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 한 구석이 무겁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만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일까? 하는 궁금함도 생기고, 나이 60이 다되어 남을 위해 무엇인가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했 어요. 그러나 봉사 첫날 가족도 없이 혼자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신 가엾은 독거 어르 신의 모습을 보고 그만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도저히 잊으려 해도 그 분의 마지막 모 습이 잊혀지지 않았고, 당신의 마지막 모습도 생각나서,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 다. 그런 나에게 복지관에 계신 여러 분들이 많은 격려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당신도 웃으며 저에게 '당신이라면 잘 할 수 있을 거야.' 하고 격려해 줄 것 같았 거든요. 이렇게 시작한 노인복지회관에서의 독거 어르신들과의 만남이 어느덧 10년 이 되어갑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는 많은 어르신들과 만나기도 하고, 가슴 아 픈 이별도 했습니다. 우리 독거 어르신들은 옆에서 항상 돌봐 줄 가족도 없이. 환경 이 안 좋은 곳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 않지만, 누구보다도 정이 많으시고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에요. 항상 제가 가면 가족이 그리우신지 손을 꼭 잡으시고는 갈 때 까지 놓지 않으셔요, 그리고 없는 살림에도 손수 텃밭에서 재배 하셨다며 검은 봉지 가득 상추며 깻잎을 담아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라도 더 챙겨 주고 싶은 마음에 불편한 몸으로 하루 종일 땀 흘리시며 텃밭에서 고생 했을. 어르신의 모습을 생각하니 가슴이 따뜻하고. 코끝이 찡합니다.

저는 어쩌면 이 분들에게 제가 준 사랑 보다 더 큰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좀 더 많은 봉사 시간을 통하여 여러 어르신들과 만나고 싶지만, 저도 이젠 나이를 먹어서 인지 몸이 자꾸만 아파오네요. 몸이 아파 어르신들과 만나지 못할 때에는 어르신들이 걱정하실 것 같아 죄송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해서 자꾸 내 자신에게 화가 나기도 합니다.

요새는 복지관에서 배운 수화를 여러 어르신들 앞에서 가끔 공연도 하는데, 잘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는지 고맙게도 어르신들은 아주 좋아해 주시네요. 그런데 요새는 점점 날씨가 추워지는데, 어르신들이 편찮으셔서 추운 겨울을 어떻게 보내실지 정말 걱정이에요. 간경화로 인해 복수가 차올라 고생하시면서도 항상다정한 웃음 잃지 않으시는 이영수(가명) 어르신, 전신 장애를 가진 딸을 돌보느라허리를 다쳐 힘들어 하시면서도, 자신보다 나의 안부를 먼저 물어 보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정연언니(가명), 정이 많으셔서 자신도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 남이 어렵다고 하면 콩 한쪽도 내 주시는 이희자 어르신(가명), 제발 이런 좋은 분들이 아픔으로고통 받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오래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80 ※ 사람이 꽃보다 이름다워 #2 나눔을 실천한 훈훈한 이야기 ※ 81

11월 11일에는 복지관에서 독거 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나기 준비를 위해 지역 주민과 함께 '행복 나눔 축제'를 준비하였어요. 오시는 분들을 위해 여러 가지 축하공연도 준비하고, 먹거리 음식도 준비했어요. 이 축제에서 나온 수익금 전액은 독거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난방비지원을 위해 쓰일 거예요. 매년 복지관에서 준비 하던 일이지만, 올 해는 신종 플루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참석하지 않을까, 얼마나 걱정이 되었는지 몰라요. 다행히 후원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따뜻한마음 때문에 축제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번 축제의 수입으로 우리 독거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 흐뭇한 마음이 드네요.

### 사랑하는 당신

전 당신을 떠나보내고 난 후, 많은 슬픔을 겪었지만, 이젠 더 이상 슬퍼하지 않을 거예요. 슬퍼만하고 있기엔, 아직 할 일이 많고, 또, 하고 싶은 일도 많이 있으니까요. 비록 나에게 많은 시간이 주어 진 것은 아니지만, 주어진 시간동안 만이라도 독거 어르신들과 함께 서로 사랑을 주고, 받으며 내 생에 마지막이 될 아름답고 행복한 동행을 하고 싶어요. 당신도 이런 저를 격려 해 주고, 도와줄 거죠? 작은 힘이지만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프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지켜봐 주세요. 저와 독거어르신들의 아름답고 행복한 동행의 여정을…

... 당신을 사랑하는 아내가



김금순님은 하늘나리로 먼저 떠난 배우자에게 자원봉사활동을 하며 보람 있게 사는 자신의 삶을 편지글로 따뜻하고 다정다감하게 표현하셨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자신의 동기 및 소감을 전달하기 위해 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와 활동을 하며 느끼는 감정들,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에 대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82 사람이 꽃보다 이름다워 #2 나눔을 실천한 훈훈한 이야기 83

# 우행시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를 넘어

**김은경** 지원봉사자

매주 화요일 아침이면 다른 날 보다 좀 더 부지런을 떨어야 한다. 아이들 밥 먹이고 집안 청소 대충 해놓고 후다닥 씻고 '빙그레 할머니' 댁으로 충충 걸어간다. 평범한 여느 날 보다 발걸음도 마음도 가볍다.

언제부터였을까… 아마 6개월 전쯤이었지 않나 싶다.

교회 네 분의 집사님들과 빙그레 공장 근처의 할머니 댁을 방문해 약간의 도움을 드리기 시작했다. 남양주 희망케어센터의 소개로 이 가정을 알게 되었는데 전부터 꼭 하고 싶었던 일이라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했다. 도움이라고 해봐야 집 안 청소, 화장실 청소와 가끔 빨래 감이 있을 때 세탁기 돌려 빨래 널어주는 것이 전부이지만 할머니께서 좋아하시고 고마워하시는 걸 볼 때면 기쁘기도 하고 더 큰 나눔을 하지 못하는 부끄러움에 안타깝기도 하다.

하루는 제법 쓸 만한데 버려져 있는 서랍장을 넷이서 끙끙거리고 가져와 할머니 방을 대청소 하고 깨끗이 정리해드렸다. 바퀴벌레가 많이 나와 교회 전도사님께서 오셔서 소독도 해주셨다. "할머니, 이렇게 정리하니까 어떠세요? 좋으세요?"

"응. 집이 아주 깨끗해졌어. 좋아."

평소 말씀이 없으시기에 그 한마디만으로도 할머니의 마음이 어떤지 고스란히 전해져왔다. 비닐봉지를 몹시 아끼시는 할머니께서 우리가 지저분하다고 버리자 했을때 마지못해 허락하셨는데… 당신께는 그것도 얼마나 큰일이었을까 싶다. 평생을 작은 물건 하나 쉽게 버리지 못하고 살아오셨을 것이기에 젊은 우리가 그 어려운 삶의 힘겨움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을 것인가… 할머니에게 지워진 고단한 삶의 무게가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가벼워질 수 있을까 생각하니 내내 마음이 아리다.

한 집사님께서 염색약을 가지고 오셔서 할머니 머리 염색도 해드렸다. 십년은 더 젊어 보인다고 칭찬해드렸더니 연신 소녀 같은 미소를 지으신다.

할머니와 손자 둘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이 가정을 볼 때마다 무언가 좀 더 근 본적인 도움을 줄 수는 없을까 계속 고민하고 있다. 큰 아이가 휴학 중인 상태라 집 에 갈 때 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거나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본다. 그런 아이에게 우리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아이들이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며 위 로반을 수 있는 대안학교라도 갔으면 싶어 이곳저곳 알아보고 있다. 나 역시 엄마 없 이 할머니 손에서 자라며 지독한 외로움에 힘들었기에 아이들이 느낄 상실감과 외로 움이 어떨지 생각하면 가슴 한 켠에 무거운 돌멩이 하나 얹어져 있는 느낌이다. 앞으 로 계속해서 할머니와 아이들과 삶을 나누어가다 보면 언젠간 아이들이 마음을 열어 주지 않을까 하는 소망을 가져본다.

함께 우행시(우리들의 행복한 시간)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

84 사람이 꽃보다 이름다워 #2 나눔을 실천한 훈훈한 이야기 \* 85

네 분 모두 건강하신 분들이 아님에도 기쁨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며 인생의 스승이 많아졌다는 사실에 감사하다. 무릎이 아파 침을 맞고 계시는 중에도, 몸이 약해 자주 몸살을 앓으면서도, 얼마 전 큰 수술을 받고 회복되어가는 중에도, 오랜 시간 교사로 계시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보듬어 오시다 퇴직하시고… 이런 저런 마음으로 동참하고 있는 따뜻한 사람들… 이 분들이 있어 섬김이 더 즐겁고 행복하다. 우리의 작은 나눔으로 잠깐이라도 할머니 얼굴에 드리워진 고단한 그림자가 걷히고 밝은 햇살 비추일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날이 많이 차다. 할머니와 아이들에게 이곳저곳에서 따뜻한 사랑이 전해져 외롭지 않고 춥지 않게 행복한 겨울을 날 수 있게 되면 좋겠다. 그리하여 우리들만의 행복한 시간을 넘어 수많은 사람들이 나눔으로 얻어지는 같은 행복을 맛보길 간절히바래본다.

공모동기 | 남양주 희망케어센터의 소개로 한 가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과 삶을 나누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제게 의미 있는 삶에 대해 일깨워 준 할머니와 아이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나눔은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지 참 행복한 일입니다. 나눔을 받는 이보다 주는 이가 오히려 더 많이 행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 배움을 넘어 나눔과 행복을 디자인하는 자원봉사활동

김혜진 남양주시 자원봉사센터 통역봉사단

2009년 봄, 엷은 초록이 그 색을 점점 짙게 물들이며 조금씩 더위를 느껴갈 무렵 우연히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하는 "2011년 유기농대회를 위한 통역자원 봉사단 양성교육"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제 내 나이 마흔하나, 아이 둘 키우느라 내 자신 뿐만 아니라 주변 어느 한곳도 돌아볼 겨를 없이 바쁘게 지내왔던 시간들.. 왜 그리 정신없고 빠르게 지났는지…

이제는 새롭게 나를 찾고 내 가족만을 위함이 아닌 다른 타인을 위해 더 할 수만 있다면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위해 무엇인가 할 일이 생겼다는 기쁨과 설 레임에 잠을 설치기도 했다.

86 × 사람이 꽃보다 이름다워 #2 나눔을 실천한 훈훈한 이야기 \* 87



더욱더 3년 후에는 내가 우리 남양주시에서 열리는 세계유기농대회에서 멋지게 통역봉사단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는 결의까지 생겼다.

세계유기농대회를 대비한 통역봉사단 교육이라 처음부터 영어테스트를 받아야 했다. 너무도 오랜만에 받아보는 원어민과의 테스트는 두렵기까지 했지만 예전의 대학 때의 나의 모습이 떠올라 짜릿한 긴장감이 돌기도 했다. 힘겹게 통역봉사단으로 선정된 나를 포함한 통역봉사단30명은 매일매일 정말 재미있게 공부하며 하루하루

를 보냈다.

20여년 만에 새롭게 시작한 공부에 하루 하루를 기쁨으로 보내던 어느날, 자원봉 사센터 사회복지사 선생님으로부터 우리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타에서 영어교육 자원봉사자를 구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자원봉사라면 정말 남의 이야기, 특별한 사람들의 소유물이라고만 생각해왔었다. 특별한 기술도 없고, 누군가에게 내놓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는, 그럴만한 위치에 있 지도 않은, 내가 타인을 위해 봉사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해 본적이 없었다.

오로지 내 아이들만을 위한 엄마이자 아내에 만족하고 살던 나에게 자원봉사를 결정하기란 쉽지 않았다. 하지만 계속적인 사회복지사 선생님의 권유로 봉사활동을 결정하고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했다.

처음 아이들을 만나던 날, 가슴이 뛰고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교실로 들어섰다. 내 생각과는 달리 나만을 기다리고 반가워하는, 두 눈을 반짝이며 나를 보는 아이들의 표정을 보니 그동안의 내 걱정이 괜한 것이었구나 하는 안도 감과 새로운 열정이 꿈틀거림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 우리 아들 민준이 민영이에게 하는 것처럼 하면 될거야'주문을 외듯 마음을 다잡으며 아이들과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자료를 만들고 수업준비를 할 때 마다 나와의 시간을 기다리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찼다. 그런 나의 모습을 지켜보는 민준이 민영이도 엄마를 자랑스러워하는 눈빛이 더욱 나를 기쁘게 했다. 남편 역시 나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 주었다.

88 사람이 꽃보다 이름다워 #2 나눔을 실천한 훈훈한 이야기 89

예고 없이 찾아 온 나에게 아이들은 너무나 맑고 순수했다.

종달새처럼 따라 말하기를 좋아하는 민준이, 장난꾸러기 혁준이, 수줍음 많은 윤정이, 게임을 할 때면 의욕이 앞서 목청껏 소리 지르며 정답을 외쳐대는 아이들에게서 뜨거운 에너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렇게 우리는 한 마음으로 여름의 무더위와 싸우며 영어 정복을 꿈꾸었다.

누군가를 위해 나의 시간을 내어준다는 것, 나로 인해 누군가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닌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달아 가는 시간이었다.

배움을 넘어 나눔과 행복을 디자인하라는 파스칼의 명언이 비로소 이해됐다. 20 년 만에 새롭게 시작된 배움의 기회가 부족한 나도 누군가와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나를 나눔으로 인해 행복해진다는 것.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나 의 자원봉사는 특별한 경험이었다. 또 너무나 값지고 가슴 벅찬 경험이었다. 그것은 마치 내 인생의 전환기와도 같았다.

이제 자원봉사자로서 나는 새내기의 첫발을 디뎠다. 어렵게 시작된 나의 봉사인 생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을 스스로 다짐해본다. 미약한 나의 작은 에너지를 누군가 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자원봉사. 참으로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다.

김혜진님은 한 남자의 아내와 두 아이의 엄마로 살아오다가 용기 내 시작한 자원봉사활동의 보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통역봉사단으로 활동하는 것을 계기로 지역아동센터의 영어선생님으로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순수한 아이들과의 만남에서 오는 기쁨과 감동들을 소소한 글로 표현했습니다.

### 호스피스 봉사는 나를 위한 미래준비

최서유

나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호스피스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집을 나서면서 맨 먼저 만나는 수락산, 불암산과 대화하면서 자원봉사의 현장으로 향한다. 사철의 변화를 보여주는 이 곳, 청학리에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마을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갈아타고 병원으로 가면서 오늘 하루가 또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소망한다.

나의 사회봉사의 시작은 15살, 중학교 2학년 때부터이다. 그때부터 봉사의 현장에서 활동을 한 것이라기보다 우선 마음으로 먼저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산촌의 가난한 농부의 장녀로 태어나서 조부모의 사랑을 받고, 성실한 부모님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사회에 봉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었다. 아울러 십리 길을 걸어서 다니는 학교 길에서 자연과 대화하면서 또 가난한 시골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기에 게을리 하지 않으시는 선생님들의 열정을 보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받은 것을 돌려주면서 사는 사람이 되리라고 마음먹었다. 그 마음이 이어져서 지금 봉사의 현장에서 나누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본격적으로 호스피스 봉사를 하게 된 계기는 나의 사별 경험 때문이다.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나에게 뜻하지 않았던 가족의 죽음은 나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 사는 것이 무엇인지 또 죽는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만들었다. 가족을 사고로 잃고난 후 도무지 왜 계속 살아가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시간이 나를 엄습했고 '죽지 못해산다'는 말을 실감하면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다. 이제 막 백일을 넘긴 딸과 함께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하니 죽고만 싶었다.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가 없었다. 서른 살 나이에 나는 내 인생을 끝내고 싶었다. 그래서 그 때까지 살아 온 삶의흔적을 정리했다. 일기장, 상장, 성적표, 사진 등 차곡차곡 모아 놓았던 것들을 불태웠다. 옷도 태우고 나머지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삶을 정리했다.

그 때 친구에게서 삐삐가 왔다. 나보다 두 달 먼저 남편을 심장마비로 보낸 친구였다. 내가 필요하니 지금 바로 와 달라는 내용이었다. 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세상에 내가 제일 힘들고 나만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줄 알았다. 그런데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었다. 여고 동창인 내 친구가 나보다 더 힘들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든 것은 바로 그 때였다. 나는 그 친구부터 만나고 나서 죽기로 했다. 그 친구를 만나서 몇 날 며칠을 울고 또 울었다 우리는 함께 울면서 내가 이렇게 힘든 시기를 겪는 것은 비단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 같은 사람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먼저 호스피스 자원봉사교육을 받았다. 자원봉사를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봉사를 위한 교육을 받아야했다. 체계적으로 하는 교육을 통해서 자원

봉사가 무엇인지, 왜 봉사를 하는지, 봉사의 현장에서 지켜야 할 일들, 현장에서 실제로 해야 하는 기술 등을 배우고 익혔다. 여러 곳에서 하는 교육을 받고 자원 봉사의 현장으로 가던 첫 날을 잊을 수 없다. 설레는 마음으로 병원에서 처음 환자를 만나던 날 나는 "안녕하세요?"하고 불쑥 말을 했었다. 우리가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이 말이 환자와 가족들에게는 불편한 말이 될 수도 있었음을 그때는 몰랐다. 보호자가 나를 쳐다보면서 "보기에 안녕해 보이냐"고 반문했다. 난 몸 둘 바를 몰랐다.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다. 돌아서서 나가야 할지 아니면 계속 그 분들과 만나야 할지를 모르고 서 있는데 환자분이 나를 보면서 희미하게 웃어 주었다. 그 웃음은 나는 괜찮다는 말을 하고 있는 듯 했다. 한번 두번 만나면서 처음 만나던 날의 일을 웃으면서 이야기하기도 하였지만 나는 그 처음의 일을 잊지 못한다. 지금은 처음 만나는 분에게는 "좀 어떠세요?"라는 말로 다가간다.

자원봉사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헤어지고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2006년 가을에 만난 췌장암 환자이시다. 멀리 지방까지 가서 호스피스를 하면서 3개월 가까이 만나고 돌아가셨다. 거의 매주 내려가서 만났는데 9월 첫 주 토요일에 내가 내려갔을 때 임종을 맞으셨다. 호스피스로 만나서 임종을 보고, 내 손으로 입관까지 해드렸다. 그리고 사별가족으로 유족을 만나고 있다. 죽음의 현장에서 봉사를 하다보면 가시는 분을 잘 배웅해 드리는 가족을 만나면 함께 마음이 편안하고 흐뭇해진다. 그렇게 잘 보내 드리고 나면 유족들은 사별로 인한 슬픔을 안고 살아간다. 한 사람의 죽음은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 살고 간 흔적은 오래

92 사람이 꽃보다 이름다워 #2 나눔을 실천한 훈훈한 이야기 93

남아서 유족과 지인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사별 가족들은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

나는 자원봉사를 하면서 장례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장례의 현장에서 입관 봉사도 해드리고, 장례 후에는 사별가족을 만나게 되었다. 내가 사별로 인해서 힘들어 할 때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도 몰랐고 그저 막막해서 죽고만 싶었던 경험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일들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지금의 내가 좋다. 한사람, 한사람이 소중한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듯 소중한 삶을 살아내고 누구나 가야하는 죽음의 길에 좋은 친구가 되어서 도와주고, 내가 가는 날이 왔을 때 떳떳하게 잘 배웅을 받고 싶다. 그래서 나는 호스피스 자원봉사가 나를 위한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다름 아님을 알고 있다.

공모동기 | 최서윤님은 호스피스 자원봉사의 현장 이야기를 통해서 자원봉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따스한 사회 만들기에 동참하는 일임을 알리기 위해 공모했습니다. 글을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고백과 함께 호스피스 자원봉사의 필요성을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 #3

# 사회복지현장의 생생한 이야기

사회복지현장의 실무자, 자활근로자, 장애인노인 생활도우미 등 다양한 현장에서 대상자들을 만나면서 겪은 안타까운 사연과 실무자들의 어려움, 절망속에 희망을 발견하는 보람 등을 담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현실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켜 희망의 불씨를 피우는 실무자 여러분들의 헌신과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글들입니다.



### 내 남자친구 이야기



"에헤헤헤헤~" 오늘도 나를 발견한 정만(가명)이는 특유의 웃음소리를 내며 내 팔을 조심스럽게 당기며 나를 따라온다.

두 번째 손가락을 치켜들며 "사진 한 장만 찍어이~ 사진 언제 찍어이?" 오늘도 정 만이는 중중걸음으로 나를 졸졸 따라오며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한다.

2007년 10월 나는 이 곳 신망애에 입사했다. 신망애는 장애인들을 가족이라고 부르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세 단어로 만들어진 장애인들의 꿈동산이다. 운동장에 위치해 있는 건물도 신망애의 이름을 따서 믿음관, 소망관, 사랑관 으로 나뉘어 있다. 신망애에 처음 입사를 하면 일주일동안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생활관과지원부서 사무실을 차례대로 돌아가며 오리엔테이션을 받는다. 오리엔테이션 일정중 세 번째 날이던가? 믿음관 2층 오리엔테이션을 받던 날이었다. 그 날은 장애인 가족들의 재활프로그램 중 하나인 튼튼 교실이 있는 날이었다. 튼튼 교실은 가족들의건강과 체력단련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장애인 가족 10명, 믿음관 2층 선생



님 한분, 나 이렇게 총 12명이 두 명씩 짝을 지어 손을 잡고 천천히 산책로를 걸었다. 정만이와의 처음 만남이 있던 것은 그날이었다. 포크레인과 예쁜 여자를 좋아한다는 26살의 청년. 지적장애 1급이라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너무나 맑고 순수한 모습 의 청년이었다. 산책하는 내내 내손을 꼬옥 잡고 내 옆자리에 앉는 등 유독 나를 잘 따라주고 좋아하는 정만이의 행동은 사회복지 분야에 처음으로 입문한 나에게 장애 인들과 나도 함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주었다.

튼튼 교실에서 달리기 시합도 하고 싸가지고 간 간식을 사이좋게 나누어 먹으며 단체사진을 찍고 돌아가려는 찰라 정만이가 나의 팔짱을 끼고 단 둘이서만 사진을 찍어 달라고 선생님께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누구에게 사랑받고 관심 받는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다. 게다가 정만이는 예쁜 여자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정만이의 눈에 내가 예뻐 보였다는 사실에 나의 기분은 무척 좋았다.

튼튼 교실을 마치고 믿음관 2층으로 돌아온 우리는 튼튼 교실에서 찍은 사진을 사무실 모니터로 확인했다. 정만이가 사무실 모니터에 나와 둘이 함께 찍은 사진을 보고 프린터기를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사진을 출력해 달라는 의미였다. 흑백 프린터로 나온 시커먼 인쇄물, 겨우 얼굴만 알아볼 수 있는 그 종이 한 장을 들고 좋아서 입을 헤벌쩍 거리며 방으로 돌아갔다.

그 날 후에 정만이는 멀리서도 나를 보면 뛰어와서 "에헤헤헤헤~" 하는 특유의 웃음소리와 함께 "사진이랑 똑같애이~" 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한다.

그 후 두세달 쯤 뒤 차차 신망애 생활에 적응해 가고 있을 때 였다.

그 날도 어김없이 저만치 멀리서 정만이가 날 보고 뛰어왔다.

손에 초코파이 상자를 하나 들고서…

"정만씨~ 이거 뭐예요?" 라며 초코파이 상자를 뒤집어 보았는데…

거기에는 몇 달 전 튼튼 교실에서 나와 단 둘이 찍은 흑백 사진이 예쁘게 오려져서 붙어있는 게 아닌가? 내 눈은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고, 그 동안 '장 애인이니 몇 번 그러고 말겠지. 저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나를 잊어버리겠지.' 라고 생각했던 정만이, 아니 장애인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던 내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

2009년 1월 정만이가 생활하는 믿음관 1층에 위치한 지원사업팀 에서 근무할 때의 일이었다. 지원사업팀 사무실 출입문은 안쪽을 훤히 볼 수 있는 작은 창이 달려 있다. 하루는 행사를 앞두고 컴퓨터 모니터를 쳐다보며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동료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모니터를 쳐다보던 내 고개를 들게 했다.

"정만씨~ 한시간째 여기서 뭐하고 있는거예요?"

작은 창을 통해 한 시간동안 사무실 안쪽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고개를 들어 정만이를 쳐다보자 그제서야 정만이가 웃으며 둘째 손가락 을 치켜들며말한다. "사진 한 장만 찍어이~~"

카메라가 없어서 안된다는 얘기에도, 어서 돌아가라는 선생님의 꾸중에도 저녁 식사시간이 가까워 질 때까지 정만이는 그렇게 사무실 주위를 서성거리며 떠나지 않 았다. 보다 못한 같은 팀 동료 선생님께서 정만이의 열정이 대단하다며 카메라를 빌 려 오셔서 나와 함께 사진 한 장을 찍어 칼라프린터로 출력하여 주었다. 정만이는 "에헤헤헤~" 하는 특유의 웃음소리를 내며 그제서야 사진 한 장을 들고 2층으로 돌 아갔다.

그 일이 있은 후 인사발령으로 사랑관 2층 행정팀 으로 부서를 옮기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믿음관 에서 생활하는 용만이와 는 자주 얼굴을 볼 수 없게 되었다. 행정팀에서 근무한 지한달이 조금 넘어서였을까? 용만이가 운동장에서 나를 보며 쏜살같이 뛰어온다.

"에헤헤헤~ 어디갔었어이~ 사진 한 장만 찍어이~"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일까? 나를 아직도 기억해 주는 것에 대한 고마움일까? 내 머릿속은 이 감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내리며 행정팀 사무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정만이는 종종걸음으로 나를 쫓아온다.

다음 날 화장실을 가기위해 사무실 문을 열었던 선생님 한 분이 기겁을 하시며 "아이쿠 깜찍이야~"하고 소리를 지르셨다. 1센티 정도나 되려나? 그 작은 문틈 사이

로 정만이가 사무실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라고 타일러도 말을 듣지 않는 정만이에게 "정만아~두 밤만 더 자고 사진 찍자~ 알았지?"라며 또 바쁜 업무평계를 대며, 나의 무심함과 미안함과 죄스러움의 마음을 작은 사탕하나에 고이 담아 정만이에게 건네준다. 나의 그 마음이 전해지리라 생각하며…

요즘도 정만이는 가끔씩 사무실 문틈을 들여다 보다 사무실 문을 여는 선생님들을 깜짝 놀래키고는 한다. 동료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정만이를 보면 "영은선생님~ 남자친구 왔네~"라며 농담을 하신다. 창문 밖에 푸른옷을 입고 봄단장을 마친 나무들을 보며 나는 다짐한다. '내일은 꼭 정만이와 사진을 한 장 찍어야지~'

오늘도 내 귓전에 드리는 선생님의 말 한마디…

"영은선생님~ 남자친구 왔어요~"

공모동기 | 근무하고 있는 직장 게시판에 사회복지수필공모전 포스터를 보고 훌륭한 글솜씨는 아니지만 사회복지 현장에서 겪고 느꼈던 점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공모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사회복지라는 일에 입문하면서 지적장에 1급인 남자생활인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개선되고 장애인과 함께하는 일상에서 겪은 경험담을 담았습니다.

# 삶에 있어서 누구에게나 시련과 아픔은 있기 마련이겠지만…

이정자 | 쉼터노인의 집 원장

삶에 있어서 누구에게나 시련과 아픔은 있기 마련이겠지만, 노후에 오는 치매나 중풍 같은 노인성 질환 또한 피해 갈 수 없는 또 다른 삶의 연속이 아닌가 생각된다. 모두가 나에게만은 오지 않았으면 하고 바랄 뿐, 누구도 장담 못하는 것이 현실이 되 었으니 말이다.

지금까지 치매, 중풍 어르신을 60여분 모셔 왔지만, 모두가 색깔이 다른 모습들이 었다. 딱히 치매의 종류가 '이것이다!' 라고 말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종류도 다양했고, 각기 환경이나 살아온 인생여정의 모습만큼이나 증상이나 성향도 다양했던 것 같다.

사람마다 모두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치매환자인 것 같다. 60여분들 중에서 단한사람도 같은 종류의 치매 어르신은 없었다. 각자 살아오신 삶이 다르듯이 치매의 증상과 상태 또한 어르신마다 각각 다르게 나타나신다.

그 가운데 어느 누구 한 분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소중한 분들이셨지만, 그 중에 도 사랑받지 못하고 방황하며 노숙하시다가 병들어 쉴 곳을 찾아서 들어오시는 분들을 접할 때는 그 만큼 마음도 무겁고, 관심과 노력을 더 할 수밖에 없었다.

어떤 분은 대변으로 방의 구석구석 그림을 그려 놓으시고, 진흙탕 속에 계신다고 하시면서 옷과 이불로 닦으시면서 다니신다. 멍하니 바라보다 정신을 차리고 수습하여 씻겨서 욕실에 모셔다 놓고, 물장난 치며 놀도록 하였더니, 어린아이처럼 너무나도 좋아라 하신다. 이불을 마당의 고무 다라에 담궈 놓고, 목욕을 시킨 후, 쑥 향을 피우고 뽀송한 새 이불도 깔아 놓은 방으로 모셔다 드리면…

"개운하고 좋구나."라며 말씀하신다.

천진난만한 모습 하나 하나가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게 비쳐지는지! 잠시 행복의 교감처럼 말로도 표현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언젠가 세월이 더 흐른 후, 이러한모습이 '나의 모습이려니' 생각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섬긴다. 누군가가 나의모습이 이러할 때 나에게도 이렇게 해 주길 원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 어르신들을 공경하며 모실 뿐이다.

모두가 나를 이해가 안 된다고 한다. 인사동에서 까페를 운영하던 여자가 어찌하여 이런 힘들고 고된 일을 자초하는지 모르겠단다. 그러나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다. 어르신들을 가만히, 천천히 들여다보면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고 천진난만한 모습을 지니고 계시는지 말이다. 할아버님들이고, 할머님이던지 난 연애하는 기분이 든

다. 어느 날은 할아버지에게 입맞춤까지 해 드리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간다. 어르신의 눈빛이 관심을 받고 싶어 하시고, 사랑받고 싶어 하시는 애절한 신호를 주실 때는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 그래서 마음껏 애정표현을 해드린다. 마냥 행복해 하신다. 윙크도 해주시고, 사랑한다는 표현도 많이 해주신다. 그럴 때면 모든 내 몸의 피로가 봄 눈 녹듯이 사라짐을 느낀다.

이 나라가 있기까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이 어르신들의 수고와 희생이 없었다면 과연 존재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무한의 존경과 사랑을 받기에 너무나도 합당하신 분들이 아닌가 싶다. 그런데 요즘 현실은 어떠한가? 버림받고, 천대받고, 학대를 당하시는 어르신들이 비일비재하다. 그리하여 이곳에 들어오시는 어르신들만큼은 최상의 서비스와 최고의 사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천사와 같은 마음들을 가진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어르신들의 몸이 내 몸이라고 생각하고 만져 드리도록 교육하고, 항상 사랑으로 감싸줄 것을 당부한다. 이곳이 천국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마음의 평안을, 또한 그로부터 자연스레 피어오르는 미소를 가질 수 있도록 항상 생각하고 생활한다. 또한 이곳은 따로 치매 약을 갖고 있지 않다. 음식으로 해결하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항상 넉넉해서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채워 드리면, 불평과 불만 또한 없으시다. 모시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욕장이 나지 않도록 케어를 잘해드려야 하고, 감기나 그에 따라오는 폐렴과 같은 합병증을 주의해야 하며, 항상 일정한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관리해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중화자실에 들여보내지 않는 것이 보호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고.

최상의 몸 상태로 계시다 당신의 삶이 다 되셔서 주무시듯이 소천하시는 것이 마지막 가시는 행복의 순간이라 생각한다.

여럿의 어르신들의 임종을 지켜드렸지만, 보내드릴 때 마다 만감이 교차하고, 아 쉬움도 남는다. 부족하지는 않았나 싶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모셨나 기억의 되새김 질도 해본다. 기억 속 어느 날의 어르신들의 몸에 구석구석 나의 기를 불어넣어 드린 다는 생각을 하고 만져드린 날엔 나 자신에게 백점을 주웠던 날도 있었다. 하지만 매 번 같은 생각으로 행해지진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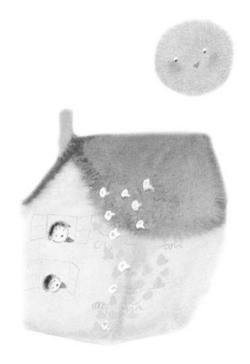
그래서 그럴 땐 가끔 테레사 수녀님을 생각한다.

"그 분은 24시간을 천사와 같은 마음으로 하셨을까?" 혹은 "그 분도 언제나 생각하는 동물인 인간이셨는데 가끔은 짜증도 나셨을 것이고, 혹시 게으름은 피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머리 한편에 떠오른다. 나름대로 수양을 쌓으면서 산다고 살지만, 가끔은 힘에 겨워서 주저 않고 싶을 때도 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하여 나를 사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지 알기에 오뚜기처럼 일어나 다시 끔 씩씩하게 동서남북을 누비고 다니며 많은 이들에 게 사랑을 나누어 주려하고 또한 어떨 땐 그 곳에서 내가 베푼 사랑의 곱절 이상의 사랑을 받아와 어르신들에게 나눠 드리기도 한다.

이른 새벽 눈을 뜨면서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

오늘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숨을 쉬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또한 나의 몸짓 하나 하나에 힘을 낼 수 있도록 축복의 기운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일을 할 수 없는 밤이 쉬 오리니. 일을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힘차게 오늘도 파이팅을 외친다.



공모동기 | 삶에 있어서 누구에게나 시련과 아픔은 있기 마련이겠지만, 노후에 오는 치매나 중풍 같은 노인성 질환 또한 피해 갈 수 없는 또 다른 삶의 연속이 아닌가 생각된다. 모두가 나에게만은 오지 않았으면 하고 바랄 뿐, 누구도 장담 못하는 것이 현실이 되었으니 말이다. 현실성 있는 복지 정책을 만들고 현장에서 인간 존중을 실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고백으로 사회복지현장의 이야기들을 알리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다.

# 살렘 행복의 날개

#### 정연수 기억이동센터 실무자

이곳 살렘교회에서 시간을 보낸 지 어언 2년. 전도사의 이름으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토요일 밖에 없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이들이 나를 자꾸만 끌어당기는 것이었다. 내가 아이들이 예뻐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나를 좋아해서 인 것 같지도 않다. 아이들은 단지 자신들과 놀아 줄 수 있는 친구들을 찾고 있었나보다. 전도사님 놀아주세요.~! 내가 유일하게 아이들에게 듣는 첫 인사였다. 이상하게 여기 아이들은 밖에서 노는 아이들이 많았다. 요즘 아이들이 보통 학원에 다니느라 바쁜 관계로 운동장에서 놀이터에서 아이들 보는 것이 힘든데…. 살렘교회의 아이들은 밖에서 신나게 뛰어노는 아이들이 많았다.

아이들을 데리고 한달에 한번 정도씩은 아이들을 한차에 한가득 싣고 남양주의 숨은 곳곳을 찾아 놀러 다녔다. 아이들이 차에 타면 내가 운전을 하는 건지 신호가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정신이 없다. 아이들과 토요일은 놀아주는 날이었다. 그런데

주말만 아이들을 보다보니 아이들과 친해지는 것이 쉽지 않았다. 마음을 열고 나를 쫓아다니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쑥스러움에 고개를 숙이고 도망 다니는 아 이들도 있었다. 어떤 아이는 어찌나 시끄럽고 정신이 없는지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 는다.

이렇게 한해를 보내는 대학 학부 과정을 하고 있는 나에게 한 가지 소망이 생겼다. 다음 한해는 아이들과 함께 지내보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다. 마음을 먹고 한해 휴학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젠 아이들과 매일매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쁨이 앞서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내 착각일 수도 있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주말마다 보던 아이들을 매일 만나다보니 이 아이들에 대해 너무 잘 알게 되어 버린 것이다. 이 아이들 마음속에는 하나씩 상처들이 있었다. 어떤 아이는 부모님의 무관심…. 버림받음에 대한 상처가 있었고, 또 다른 아이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아이들도 있었다. 더욱더 마음이 아픈 것은 이 아이들의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너무도 무관심 하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아이들이 어디가 아픈지.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내 가슴을 휘어 팠다. 나도 어릴 적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그 잊고 있었던 시간들이 내 눈앞에서 아른거렸다.

그때부터 생각했다. 내가 할 수 있다면 큰형처럼, 또 삼촌처럼 좋은 선생님이자 전도사님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이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그때부터 아이들은 더 이상 나에게 아이들이 아니라 친구로 다가왔다. 친구로 다가온 우리 친구들은 내

가 젊은 선생님으로서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 사춘기가 다가오는 친구들에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고, 친구들이 신나게 뛰어노는 것을 논다고만 생각했지 그 안에 어떤 갈등이 있는지 알지 못했다. 어떤 친구는 힘으로 다른 친구들을 제압해서 왕 놀이라는 희한한 놀이를 만들어 다른 약한 친구들은 신하처럼 부려먹기도 하고, 여자 친구들을 괴롭히는 친구를 보며 그냥 좋아하는 마음에 괴롭히는 거겠지 생각했는데 당한 친구는 정말 이곳에 나오기 싫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괴로웠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또 어떤 친구는 형제끼리 그렇게 잘 싸운다. 형이 어째서 싸우고, 형은 동생을 가만 놔두질 않는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형이 동생을 괴롭히고 동생이 대들면 형이 먼저 운다. 이 친구들은 혼 줄을 내줬다. 그 이후로 둘이 싸우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그런데 그 맘쯤 우리 살렘 푸른 학당에 선생님 한분이 더 오셨다. 친분이 있는 선생님이라 나와 마음도 잘 맞고 무언가 일이 착착 진행되는 기분이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온 후로 친구들에게 사랑을 독차지하던 내 사랑을 선생님에게 뺏겼다. 그만큼 선생님이 친구들과 필이 통했나보다.

그때였다. 교회들은 교회끼리 연합된 노회가 있다. 우리교회가 소속된 노회에서 공문이 내려왔다. 찬양, 율동 경연대회를 개최하니 참가할 교회는 신청서를 내라는 것이었다. 사실 작년에 꼭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다. 내가 친구들에게 율동이나 찬양을 지도할 만큼 능력자도 아니고, 무리가 있었다. 그런데 올해는 그 우편물을 뜯자마자 선생님에게 뛰어 갔다. 사실 이제 와서 생각하는 건데 목사님하고는 상의도 안



하고 먼저 저지른 거 같다. 그때부터 곡선정에 들어갔다. 어떤 곡을 해야 좋을까… 꼭 예수님, 다윗, 뭐 이런 성경인물이 나오는 찬양보다 누가 들어도 감동이 되고, 친 구들에게도 힘이 되는 곡이 있었으면 했다.

그러던 중에 선생님과 찾은 곡이 바로 행복의 날개였다. 정말 신기한 것은 이곡을 만든 사람도 전도사지만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곡을 만든 것이다. 연습에 들어갔는데 우리 친구들은 율동에 소질이 있나보다. 선생님과 율동하는 친구들의 모습에 넋을 잃고 쳐다본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거짓말 조금 보태면 날개만 없어서 그렇지 날아갈까봐 조마조마했다. (힘들어도 외로워도 웃을 수 있어요 행복의 날개 아래서 꿈꿀 수 있으니 지친 맘 기대고 플 땐 나를 봐 주세요 늘 위해 기도할꺼에요 언제라도 아빠 사랑해요 내 작은 마음 모두 드릴께요 엄마 고마워요 이제는 내가 지켜 줄 께요)

우리는 이 노래를 가지고 대회에 나갔고 금, 은, 동, 장려상 중 금상! 1등을 했다. 사회자말로 작은 교회가 반란을 일으켰다고 했다. 우리친구들은 왜 우리 교회를 작은 교회라고 하냐고 화를 씩씩 냈다. 그리고 다른 큰 교회에서 온 친구들 앞에서 당당히 어깨를 들썩들썩 거렸다. 나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두고 그냥 시간을 보낼 수없어 이 모든 장면을 캠코더에 담아 부모님들에게 DVD로 만들어 보내드렸다.

그 후에 한 번 더 친구들과 오남 지역 성가제에 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의 날 개를 전했고, 그곳에 사람들 모두가 예쁜 우리 친구들 모습에 감동과 힘을 얻어 친구들을 칭찬하며 지나갔다. 금상을 받은 덕분에 전국에서 1등을 한 교회들이 모여 또다시 겨루는 전국 대회에 나가게 됐다. 친구들은 지금 전국대회를 위해 그리고 또 앞으로 여러 행사에 행복을 전하기 위해 연습하고 있다.

그런데 이 행복의 날개는 친구들에게 한 가지 변화를 일으켰다. 율동팀 오디션을 봤는데 친구들이 예쁜 입에서 행복하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우리 선생님들은 모두가 감동과 감격에 눈시울이 붉어졌고, 친구들의 가슴속에 상처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니였다. 다른 선생님과 난 함께 이 살렘교회 이야기들을 사진과 함께 블로그에 열심히 올리고 있다. 이 감동적이고, 이 땅에 천국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자랑하고 싶어서 이다. 실제로 국내에서 꽤 큰 동호회에 우리 친구들의 행복의 날개 동영상을 올렸더니 힘든 하루 끝에 힘이 되는 율동을 봤다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살렘푸른학당의 행복의 날개는 이제 시작이다. 우리 친구들과 더불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행운의 네잎클로버를 찾기 위해 행복의 세잎크로버를 밟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연수님은 지역 교회의 전도사이자 아이들을 좋아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선생님으로 글을 통해 저마다 아픔이 있는 아이들이 모두가 하나 되어 공연을 준비하면서 자신감과 성취감을 얻으며 성장해 가는 과 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 행복한 꽃망울을 피우기 위해…

김혜진 | 사회복지사

"선생님~ 이영숙이에요. 저 취업했어요."

수화기로 들려오는 상대방의 목소리는 무척 들뜬 상태였다.

"정말요? 우와~ 영숙씨 축하드려요. 잘 되실 줄 알았어요."

나 또한 기쁜 나머지 목소리 톤이 한층 올라갔다. 간단하게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취업한 회사에 대한 정보를 물어본 후 나는 다시 한번 취업 축하의 인사를 건네고 수화기를 놓았다.

나는 00복지회관에서 취업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이자 직업상담사이다. 이영숙씨는 내가 맡고 있는 취업지원프로그램「경리사무전문가양성과정」수료생이다. 이영숙씨는 42세로, 00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결혼 후 아이 둘을 키우며 전업주부로 생활하시다가 3년 전 동네마트에서 계산 업무를 1년 정도하셨다. 이후 재취업을 하고자 하셨으나 자신감 및 경험부족으로 취업 기회를 놓치셨다. 그러다가 내가 진행하는 「경리사무전문가양성과정」교육 홍보물을 보고 경리직으로 일을해보고 싶어 신청하게 된 것이다.

이영숙씨가 처음 경리교육을 신청하고자 복지회관에 오셨을 때가 기억이 난다. 단정한 옷차림에 밝은 인상이었다. 상담실에서 교육 신청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앉아서 상담이 시작되었는데, 이영숙씨가 42세이며 경리직으로 한번도 일을 해보지 않은 사실을 알고 난 후, 난 고민에 빠지게 되었었다.

회사에서 경리직을 채용할 때 대부분 40세 미만의 경리직 유경험자를 채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40세 미만이거나, 아니면 경리직으로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취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경리사무전문가양 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할 때도 약간의 모집 대상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30~40세 기혼 여성 중에서 컴퓨터가능자 또는 경리직 유경험자로 말이다. 물론 이렇게 대상 자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긴 하지만 내담자 중에서 경리직으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확고한 의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신 분에게는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다소 조정하기도 한다.

이영숙씨의 경우도 교육 대상자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열심히 하고 자하는 자세와 경리직으로 취업을 하고 싶어 하는 의지가 강하게 보였다. 또한 상담 을 하면서 내가 단순히 나이와 경력으로 경리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교육의 기 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회의감이 들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교육에 참여 하게 된 이영숙씨이다. 수료 후 취업알선으로는 취업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본인이 노력하여 지인을 통해 취업에 합격하시게 되어 연락이 온 것이다.

처음 취업 지원 사업을 맡게 되었을 때, 경험이 부족했었던 나는 많은 어려움에 부딪혔었다. 우선, 구직자들에게 취업 교육을 홍보하기위해서 무료신문사에 부탁을 해서 게시판에 홍보 내용을 싣고, 시간 나는 틈틈이 홈페이지에 홍보 내용을 올리거나, 인근 주민자치센터나 아파트를 돌며 게시판에 부착하는 등 부지런히 홍보를 해야만 했다.

교육이 시작하기 전에는, 교육 신청자를 대상으로 초기 상담을 통해 교육에 참여하게 된 동기나 취업 목표, 과거 경력 등 미리 내담자에 대한 파악을 하여야 한다. 내 담자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이 과정은 실무자와 교육생과의 신뢰성을 쌓아가는 중요한 일이기도 하다.

이후, 교육이 시작되면 나는 오리엔테이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교육, 면접 교육, 구직상담을 직접 진행한다. 직업상담자로서의 역할을 이때 제대로 발휘해보는 것이다. 본격적으로 경리실무교육은 전문 강사로부터 교육을 받게 되는데 주교육내용은 회계 및 더존 프로그램과 컴퓨터교육(한글, 엑셀)이다. 대략 한 달반 이상을 매일 교육생들과 만나다가 막상 수료식을 하게 되면 고등학교 졸업식을 하는 것처럼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취업알선을 하기위해 연락도 하고, 사후 모임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니 우리의 만남이 마지막은 아닌 것이다.

가끔씩 수료생들이 취업합격 소식이나 자격증 취득 소식을 전해올 때면 나는 그 동안의 힘들었던 사회복지현장의 일들을 잠시나마 잊고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낀다.

사장님께 사정사정을 해서 수료생을 면접 볼 수 있도록 약속을 잡아놓았으나, 면접날 아침에 연락이 안 되고 면접 보러도 나타나지도 않아 사장님께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을 연거푸 해야만 했던 일, 어렵게 취업알선해서 취업성사 시켰는데, 하루만에 퇴사했다고 연락 온 일.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써오도록 과제를 내어줬는데

한 교육생이 도저히 자기소개서를 못쓰겠다고 나에게 써달라고 보채던 일 등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수료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듣거나 취업했다는 좋은 소식을 접할 때면 사회복지업무를 하는 이 일에 보람을 느 끼고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아직 우리 주변에는 사회복지사들의 관심이 필요한 클라이언트가 많다. 취업 장벽을 넘지 못하고 좌절하는 구직자, 보호나 도움이 필요한 아동이나 노인, 여성, 장애인… 그리고 언어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 여전히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이주노동자 등 수많은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의 손길을 기다린다.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따뜻한 손길이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사회의 관심과 지원, 그리고 사회복지사와 자원봉사자들의 노력들이 조금씩 모아질 때 우리사회는 행복 이라는 꽃망울이 피어나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난 오늘도 클라이언트를 만나러 간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사 김혜진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공모동기 시회복지 현장에서 실무자로 겪었던 경험담. '어려운 조건속에서 열심히 생활하여 취업에 합격한 교육생'의 사례를 통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공모하게 됨. 42세의 나이에도 열심히 노력하여 취업에 성공한 한 주부의 사례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면서 겪고 느낀 실무자의 생생한 현장이야기를 씀. 이를 토대로, 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과 방향성을 제시함.

# 기쁨을 가져다 드리겠어요

구본주 | 남양주지역자활센터 돌봄사업 도우미

"아고, 아고,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죽것다. 할머니는 걸음을 옮기실 적마다 허리 아프심을 말을 안 하려고 해도 "아고, 아이고 죽것다"소리가 무의식적으로 나오십 니다. 제가 어르신을 만나 도우미를 한지도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 바우처일을 시작할 때 겉으로는 잘 할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막상 어떤 어르신을 만날까 어떻게 일을 해야하나 과연 내가 잘 처리해낼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 무섭기도 하고 떨리고 처음 방문하는 집이면 전날부터 긴장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밤잠설치고 하던 것이 벌써 2년 이라니…

어르신의 대, 소변 귀저기 갈아 드리고 목욕, 식사도움, 빨래, 청소, 말벗까지 하며 조금씩 친해지면서 저의 걱정도 떨림도 없어졌습니다. 제가 돌봄한 어르신 중에는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요즘 저는 노인, 장애인 돌봄 일과 모니터링도 함께 하고 있는데 노인, 장애인 바우처가 정말 필요하고 일하는 도우미나 수혜자 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양한 연령층의 여성들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소외된 노인, 장애인 들에게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도와주니 일석이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뇌종양으로 서서히 실명 되어 완전히 볼수 없는 사람, 교통사고로 반신 마비되어 휠체어를 이용 해야 하며 갑자기 쓰러지거나 노환으로 움직일 수 없고 때로는 치매 로 가족들의 속알이와 육체적 힘든 일들을 보건복지부 바우처에서 시행하는 이 도우 미 제도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 한 것인지 그들로부터 들을 수 있습니다.

- "예전엔 이런 도움을 받는 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살다보니이런 제도가 어떻게 생겨났고 누가 생각 해낸 것인지 참 잘한 일이며 우리 환자들에게는 희망이 보입니다. 혼자서는 밖에 나갈 수 없어 방에만 갇혀 우울증에 죽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가족 중 아무도 말 걸어 주는 사람이 없고 정말 가족보다 더 소중하고 좋습니다."
- "산책도 할 수 있고 병원, 마트도 도우미가 있어 문제없습니다. 정말 만족합니다. 도움주시는 분이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예전 우리 때는 시부모 모실 적에 중풍, 치매이면 집에서 며느리들이 죽어났지, 목욕, 대, 소변, 병수발에 집안일 어휴~ 말도 말어 어른 돌아가시기 전에 며느리 먼저 죽게 생겼었어, 지금은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도우미가 생기고 나니아파도 자식 보기도 덜미안하고 우리 말벗도 되고 고맙고 좋지~ 아무튼 감사하네. 정말 수고들 헌당께"
- "정말, 정말 나무랄 데 없이 잘혀, 만족 헌다니께. 그라고 말벗도 해주니 적적하지 않고 . 도우미 올 시간이 기다려 진데니께 고맙구만. 고마워"

모니터링 가는 곳마다 도우미가 도와줘서 고맙고 감사하다고 칭찬을 해줄 때마다 제가 일을 잘한 것처럼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우리 바우처 도우미들이 자랑스럽고 마음 뿌듯한 생각이 들면서 우리 도우미들이 수혜자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기쁨 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일을 하기를 잘했구나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됩니다.

남양주 자활도우미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두들 잘하고 계신다니 <del>훌륭</del>합 니다. 그리고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노인, 장애인 보조시간이 좀더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집에서 살림하는 주부님들은 요양 보호나 노인 장애인 돌보미에 도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구본주님은 남양주지역자활센터의 돌봄서비스 도우미로 활동하면서 보람을 느끼던 중 돌보미 바우처 사업이 대상자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사업인지 전화고 싶은 마음에 공모하였으며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대변해주었습니다.

# 하루를 시작하는 이야기

유태준 | 희망케어매니저

"사람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울 적에는 올라가던 암벽에서 생명줄인 밧줄을 놓아버리고 가마득한 절벽 밑으로 두 눈 꼭 감고 떨어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나 자신이 바로 그러했다

그 절망의 나락에서 한줄기 희망의 끈을 부여잡고 나는 지금에 와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찍 산업현장에 뛰어든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장애인"이란 꼬리표 때문에 늘 경쟁력에서 뒤쳐지는 사람으로 살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결심한 것이 사회의 간섭이나 주위의 시선 따위를 의식하지 않으려고 난 20대 초반에 부모님과 형제들의 동의와 도움으로 내 사업을 시작 했다.

그런데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만큼 그리 쉽게 여유를 제공하지 않았다.

가전제품 수리 와 판매, 비디오 대여업까지 병행하면서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장사에 매진하였다 몇 년 뒤에는 경제적 여유가 좀 생겨 가게도 넓은 곳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그렇게 승승장구만 할 줄 알았던 사업도 온 나라에 칼바람처럼 불어 닥친 IMF(국제구제 금융)의 시련속에 어려움을 겪게되었다. 그리고 다음해 여름 내가 영업을 하던 가게가 장마철 집중적인 폭우에 물에 잠기는 일이 발생했다. 난 더 이상 버틸 힘도 살아가고자 하는 의욕마저 완전히 잃어 버렸다. "세상은 온통 짜디짠 바다! 난 그 바다에 아무런 의미 없이 떠있는 한 조각 종이배"에 불과했다. 얼마안가 물에 잠기는 그런 종이배….

#### 파초의 꿈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는가 보다 매일같이 아무런 희망 없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 때 지인의 소개로 한 전자개발 회사에 입사했고 그곳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기술을 최대한 발휘해 3년 뒤 중국 현지공장 책임자 까지 맡게 되었다. 그러나 사람의 노력만으로 안되는 운명이란 것이 있나보다 …. 잘 나가는 줄만 알았던 회



사는 내가 한국에 들어와 보니 부도 직전의 상황에 와 있었던 것이다. 이미 국내 직 원들은 모두들 뿔뿔이 흩어진 상태였고 내게 돌아온 회사 사장님의 단 한 말씀은 ···

"유 팀장? 그렇게 많은 고생을 했는데 결과가 이래서 정말 미안 하네"이 한마디 말이었다. 죽을힘을 다해 일했고 언어하나 제대로 통하지 않는 낯선 타국에서 육체 적, 정신적 고생의 댓가가 고작 이거란 말인가….

나는 이미 또 한 번의 거센 폭풍의 바다 한가운데 에 놓여져 있었다.

모든 것이 싫고 예쁜 사물을 봐도 내게는 그저 한 낯 아무렇지 않은 물체에 불과 했다.

### 아픔을 아는 자는 고통도 즐긴다.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나 가난하고, 힘없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가며 봉사활동을 했고 나 같은 장애인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내 자신을 조금씩 변화해갔다. 변화는 의외의 곳에서 일어났다. 비록 나 자신도 장애인 이지만 남을 돕는 것에 서툴렀던 나로선 처음에 모든 것이 어색하고 내가 할 수 있는가에 의구심마저 생겨났다. 그러나 "내가 나를 이해시키지 못하면 남을 무슨 수로 도울 수 있겠는가…"

그래서 시작한 "희망근로사업"참여···. 그 시작이 나를 변화시켰고 그 변화가 이 제는 너무도 익숙한 내 일상이 되었다. 시골에 홀로 계신 어머니는 이렇게 어려운 이들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막내 아들을 세상 누구보다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 남에게 희망을 주며 보이지 않는 정신적 고통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이런 뜻 깊은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다.

내 주위에 아는 이들은 내게 이런 말을 한다.

"벌이도 시원치 않는 일을 너는 왜 자처해서 하느냐고…."

그러나 그건 그들만의 사고방식일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대답 한다.

"세상에 고통 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그런 고통의 무게가 과연 얼마나 되겠냐고…. 내가 힘들게 살아온 만큼 그들의 편에 한 발짝 다가서서 슬픔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을 두 배로 늘리는 일이 내겐 보람이고 하루하루가 즐거운 일이라고….

#### 깨진 그릇도 쓸모가 있다.

내가 담당하는 어느 지역에 잊을 수 없는 어르신 한분이 계신다.

처음 방문 했을 때 그 어르신은 내게 무척이나 냉담 하셨다. 보이는 얼굴에서 세상의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모습 그대로였다. 찾아오는 사람도 싫고 말씀마다 "사는 게 지옥이여"라는 말씀을 입버릇처럼 하셨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조사업무"이다 보니 업무의 특성상 많은 질문을 드려야 한다. 그러기에 그 어르신께 내면에 있는 "화"까지 자연스레 끄집어 낸 것이다.

"어르신? 제가 어르신 심기를 상하게 했다면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더 이상의 질 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너무 더우니 목이 타네요. 시원한 물 한잔만 주세요…. 그때 였다. 방안 한쪽에 뿌옇게 먼지로 덮여진 오래된 고물 라디오가 눈에 들어온 것이다.

"어르신… 와! 이 라디오 언제 쩍 거예요? 요즘은 볼 수 없는 걸로 아는데요…"

그랬다! 그 고물 라디오는 어르신께서 옛날에 할머니와 사실 때 그 분들 아드님이 첫 월급 타서 사드린 유일한 가전제품이라 하셨다.

그런데 그 아드님이 그만 교통사고로 세상을 달리 하셨다 한다. 순간 가슴이 뭉클 했다….

"아~ 그러시군요… 아드님 많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어르신은 착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셨다. 그런데 세월 앞에 두 분의 옛 추억이 담긴 그 라디오도 그만 고물로 당신의 나이 만큼이나 변모 한 것이다.

"어르신 이 라디오 지금 소리가 나오나요…."

"나오긴 뭘 나와····죽은 할망구가 아끼던 거라 그저 버릴 수 없어서 여태껏 갖고 있는 겨."

옛날에 돌아가신 할머니와 밭에 일 나가셨다 돌아오면 머리맡에 두고 하루의 고 단함을 그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에 자장가 삼아 잠들곤 하셨다 한다.

나는 문득 2년 전 하늘나라로 가신 나의 아버지가 생각났다.

유난히 깡 마르 시고 힘든 농사일에 어느 곳 하나 몸 성할 날이 없으셨던 내 아버지….

그런 내 아버지도 이 어르신처럼 고물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를 따라 부르시길 즐겨 하셨다 ···. "두만~강 푸른 물에 노 젖는 뱃~사공 흘러간 그 옛날에 내님을 실고 떠나간 그 배는 어디로 갔소···."

아버지는 이 '눈물 젖은 두만강' 을 무척이나 애창 하셨다.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졌다. 내 눈은 어느새 짜디짠 바다가 되었다…! 나는 어르시께 제안 아닌 제안을 하나 드렸다

"어르신? 제가 원래 이것저것 고치고 만드는 전자 기술자 이었거든요···.제가 이라디오 고쳐 드리면 안 될까요···."

어르신은 흔쾌히 승낙 하셨다. 그 길로 나는 대략 그 고물 라디오를 점검해보고 어르신과의 약속을 위해 청계천으로 부품을 구하러 차를 돌렸다. 그날 하루 종일 해야 하는 조사업무 보다 내 딴에는 어르신과의 약속이 더 중요 하다고 나름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음날 라디오를 고쳐 어르신 댁에 다시 방문을 드렸다. 예상외로 너무도 좋아하시는 어르신을 뵈니 고쳐 드리기를 정말 잘 했구나! 저렇게 좋아 하시는데…. 난 또 한 번의 보람과 행복을 느낀 것이다. 어르신은 "마치 죽은 할망구가 살아 돌아온 것 같다"하시며 내 손을 꼭 잡으시고 "고맙네이…!고맙네이…!"를 연이어 반복하셨다. 나는 지금도 그 어르신과 자주 통화하며 시간 나면 찾아뵙고 아버지처럼 아들처럼 지내다 온다. 며칠 전에도 비닐하우스 농사일 나가셨다가 채소를 제법 얻어왔으니 가지러 오라는 전화를 하셨다. 난 그냥 "아버지 두고 드셔요." 해도 막무가내시다. 어쩌면 돌아가신 내 아버지가 막내아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고귀한 선물인 것 같다…. 다음 주 에는 더 추워지기 전에 그 아버지를 모시고 가까운 근교에라도 나가 맛있는 거라도 사드려야겠다.

### 하루를 시작하는 이야기

이번 희망근로를 하면서 나는 많은 것을 얻었다. 사람이 물질만으로 살수 없는 귀

# 행복해서 웃고 있어요

한 존재의 가치를….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척 박한 땅에서도 풍성한 결실을 볼 수 있다는 작은 희망! 그것이 내 인생에 어쩌면 값진 보상 일거라 여기며 내가 만나는 한분 한분 께 정성어린 마음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행복한 마음으로 그 분들을 만나러 힘찬 발걸음을 한다. 변함 없이 그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할 것이고 밥을 주시면 맛있게 같이 먹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난 즐거운 마음으로 할 것이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는 너무도 아름다운 말이 있다. 그래서 오늘도 난"하루를 시작하는 이야기"가 왠지 길어 질 것 같다.

유태준님은 등록 장애인 6급 대상자로서 살아오면서 겪은 우여곡절 속에서 '희망케어매너저'란 위치에서 또 다른 어려움에 처한 대상자들과의 감동적인 사연을 잔잔히 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나누는 삶의 참된 의미를 일깨워 주게 하는 글입니다.

이복자 |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장애인활동도우미

벌써 2년이란 세월이 흘러가고 있다. 남양주 아무도 모르는 타지에서 내 자리를 찾기 위해 온힘을 다해 온지 가 벌써 2년이다. 40여년의 세월 속 에 겨우 2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난 2년이 내 생애 가장 화려하고 즐거운 세월이었음을 누구 앞에서든 당당히 말할 수 있다. 내가 처음 장애인과 인연을 맺은 건 벌써 15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다. 하지만 13년은 봉사 활동으로 했던 때였고 2년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주었던 그런 시간들이였다.

처음 남양주로 오면서 시청에서 간병사 공부를 시작 하고 좀더 배우고 싶다고 사회복지와 장애인에 대한 공부를 병행하면서 지금의 활동보조인 일을 접하게 되었다. 남양주 장애인 복지관과 의 인연으로 이젠 나 자신에 대해 감사 할줄 알고 내가 세상에 가장 행복 하다는 걸 느끼며 오늘도 천진하고 아름다운 아이와 놀다 왔으니 오늘도 한 살 더 젊어 진 느낌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왔다.

제가 처음 이용인을 만난 건 차량 운행을 원하는 장애인분과의 만남이였다. 연세는 50대쯤 되었고 남양주 호평동에서 성남까지 재활치료를 다니시는 분이였다. 간병 공부를 같이 하던 언니가 섬기던 분이였는데 사정이 생겨 나한테 오신분이였다. 활동보조인으로 시작하기 전에 경험있는 선배들이 남자 장애우와 첫 대면 때는 농담을 잘 넘겨야 한다는 조언을 해주었다. 푸르른 봄날 문 앞에서 이용인을 만났을땐 정

말 암담하기 까지 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나서 이용인의 휠체어를 트렁크에 싣고 떠나면서 "혹시 지내시다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그랬더니 "난 여자면 다 좋아"라고 말씀하셨다. 난 너무 놀랐지만 이미 들어 알고 있었기때문에 아니, 내 일에 자부심이 있었기에 말씀 드릴수 있었다. "선생님 전 여자가아니고 그냥 활동 도우미 일뿐이예요. 여자로 보지 마요. 전 선생님 불편한 것 도와드리러 온 활동도우미입니다." 이렇게 넘겼지만 정말 기분 묘하고 어떻게 지내야 할지 앞이 캄캄했다. 다음부턴 인사 외엔 별 다른 말을 먼저 걸 수가 없었다. 대화가 오가다 보면 농담이 나오고 그러면서 기분이 상하니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재활 치료에 도움이 조금이나 됐으면 해서 늦더라고 걸어서 다니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엔 반응이 없으셨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지시는 듯 싶어서 그러셨는지 다른 병원으로 옮기시면서 나와의 인연은 끝나고 말았다. 아마도 그 선생님께서도 내가 불편해 하신다는걸 알았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첫 만남은 끝났지만가장 기억에 많이 남고 이쉽고 죄송한 마음이 더 많이 드는 그런 만남 이였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자폐아동이였다. 눈망울과 얼굴이 예쁜 예린이(가명)란 아이였다. 일주일에 3일을 나와 함께 보내는 아이는 항상 본인의 할말을 가슴에 담아둔 듯 노 래를 통해 나와 소통했다. 우리 아이와 보내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차량운행으 로 함께 보내다 보니 난 우리 아이 보다 예린이을 더 많이 알 수 있었다.

우리 예린이를 부를 때마다 정말 내 아이가 된 듯한 기분이였고 항상 우리 아이로 대할 수 있었지만 아무래도 자폐아동을 처음 접하다보니 공부 할 것들이 많았다.

그래서 난 예린이를 만남과 동시에 장애인 복지 공부를 시작하며 자폐 아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선 더욱 열심히 듣고 예린이와 함께 하며 나눌 수 있는 그런 걸 하나하나 배울 수 있었다. 공부를 마칠 때쯤엔 레포트로 자폐아동에 대해 작성해서 만점을 받을 정도로 많은 도움을 받았으니 예린이를 내가 돌봐 준 것이 아니고 내가 예린이로 인해 많은걸 배웠다. 그리고 도움도 아이에게 준 것이 아니고 내가 받은 것이 더많은 그런 시가들이였다.

지금은 다른 아이와 함께 하고는 있지만 우리 예린이가 가끔 보고 싶고 만나면 알아보는 듯 인사를 하는 모습에 웃음이 절로 나온다. 짧은 인연이지만 예린이가 너무좋아하는 피아노와 노래가 예린이의 인생에 꼭 좋은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길 기도한다.

난 여기서 절대 후회 하지 않기 위해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내 나름의 행복을 찾는 방법이며 그로 인해 웃을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봅니다. 시간이 지나고 사회복지사가되더라도 이 활동보조인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활동보조인이 세상에 꼭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 주는 그날까지 힘이 되어 주고 싶습니다.

공모동기 | 묵묵히 장애인들을 돌보는 활동보조인들에게 힘이 되어 주길 바라며 글을 섰습니다. 장애우들 옆에서 생활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얻어 오는 걸 느끼며 순수한 장애 아동과의 만남으로 인해 오늘도 웃을 수 있어 행복합니다.

# "서비스를 통해 피어나는 정"

#### **김지혜** 남양주시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

남양주시 와부읍에 거주하시는 ○○어르신은 작년부터 한 달에 2번씩 차량을 이용한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으신다. 장기요양 2등급인 어르신은 거동이 불편해서 휠체어를 이용해서 차량까지 이동하시며 목욕을 다하시고 갈아입으실 옷을 항상 비닐봉지에 준비해 두시고 기다리고 계신다.

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환한 웃음으로 반겨 주시는 어르신은 신체장애가 있는 이들과 함께 살고 계신다. 아들은 물리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자주 다니는데 집에 있을 때는 방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가 대부분이다. 아들은 한쪽 손이 없어서 집스를 하고 있는데 거동은 가능하시기 때문에 외출이 잦은 편이다.

어르신이 거동은 불편하시지만 인지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욕조를 이용해서 목욕을 받으실 때는 욕구를 표현하시는 편이다. 집안에 욕실이 없어서 평소에 목욕을 못하시기 때문에 머리를 감으실 때는 시원하게 감겨 드리는 것을 좋아하시며 때도 세



게 밀어 드리는 것을 원하신다. 하시고 나면 어르신이 매우 시원해하셔서 보는 사람 까지도 기분이 상쾌해짐을 느낀다. 목욕을 다하시고 인사를 드리면 어르신은 항상 베지밀을 챙겨 주시는데 개수 까지 맞추어 준비를 해놓으신다.

"괜찮아요. 어르신 드세요."

라고 사양을 하면 계속 안 된다고 하시며 꼭 챙겨 가라고 하신다. 어르신 마음만 받겠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르신의 마음이 불편하시다고 하신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지 않았더라면 어르신은 장애가 있는 아들과 단둘이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어르신은 거동이 안되시고 아들은 한쪽 팔을 못 쓰시는데 모자가 힘을 모으더라도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또한, 집도 옛날집이라 화장실도 많이 떨어져 있어서 요강을 방에 놓고 이용하시는 어르신인데 목욕시설이 없는 화경에서 목욕차량이 없었더라면 목욕도 제대로 못

하셨을 것이다.

거동이 불편하셔서 집밖으로 나오시지 못하는 다른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베란다까지 나오셔서 잘 가라며 인사까지 해주시는 분도 계신다. 이렇게 마음이 따뜻하신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면 일의 보람을 느낄 수 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작은 행복을 느끼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 세상은 따뜻하고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것이다. 이런 것이 진정한 사회복지서비스를 하면서 느낄 수 있는 소중한 보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작년부터 생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기간이지만 수많은 노인인구를 봤을 때 반드시 있어야 할 제도라는 것을 확연히 느낀다. 국민기초생활수 급자인데다가 찾아오는 가족, 친척도 없는데다가 도와주는 이웃도 없는 어르신 같은 비슷한 사례를 흔히 만날 수 있다. 매일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 어르신은 장기요양서비스의 필요성을 반드시 느낄 것이다.

겨울이 성큼 다가왔다. 차가워지는 날씨 속에 주위 이웃을 둘러보고 관심을 가지고 손을 내밀어 보면 "정"이라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다. 오고가는 서비스를 통해서 피어나는 정은 돈으로도 살 수 없으며 마음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다. 이 마음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공모동기 | 장기요양서비스를 통해서 어르신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 일의 보람도 느꼈던 점을 글로 표현하고자 했다. 어르신은 방문을 할 때마다 환한 미소로 반겨 주시며 서비스 제공 후에 좋아하는 어르신을 보면서 내 마음까지도 상쾌함을 느낄 수 있다. 추운 겨울 날씨 속에서 피어나는 정이 마음까지 훈훈함을 느끼는 바이다.

# 환갑이 넘어 얻은 당당한 직업

한선란 |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활동보조인

환갑이 훨씬 넘은 이 나이 되도록 나는 꿈도 못꾸고 지금까지 살았다. 그러나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과 인연이 되어 장애인을 돕는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나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된다. 처음 생활도우미로 시작하여 지금은 활동보조인으로 일하고 있다. 직업이 있다는 것이 매사에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게 하고그로 인해 하루가 즐겁고 감사한 일이 너무 많다.

직업을 갖게 되면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첫째는 건강하게 일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다.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도와주고 한마음 한 뜻이 되어 서로 감사하며 사랑하게 된다. 둘째는 항상 즐겁게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일자리가 있고 할 일이 있고 매달 월급을 받게 되니 일을 하면서도 즐거운 맘으로 감사하며 하게된다. 환갑이 넘은 나이에 100만원이 넘는 돈을 월급을 받으니 내 또래 중에 이런 경우가 얼마나 될까. 내 월급으로 친정어머님께 용돈도 드리고 옷도 사드리고 맛있는음식도 사드리고 손자들에게도 용돈을 맘 놓고 줄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셋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이 일을 하기 전에는 자원봉사를 많이 했었다. 지금은 돈을 받고 하지만 사람을 돕는 일은 역시 기쁜 일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힘이 된다는 것이 나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라고 여겨져 그런 점도 감사하다.

나는 네 명의 장애인을 담당하고 있다. 지적장애, 시각장애, 정신장애인 등 여러 장애인을 만난다. 아무리 잘 도와준다 해도 자신이 직접 하는 것보다야 왜 아쉬움이 없을까. 내가 그 사람이라면 어떨까하고 입장을 바꿔 생각하고 일을 하게 된다. 예전에는 하루가 길다고 느낀 적도 있었지만 요즘엔 하루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린다. 그러다 보니 월급날도 금방 돌아온다. 저절로 신이 난다.

나는 매달 100만원 이상 월급을 받으면 절반은 저축을 한다. 지금보다 더 나이 들었을 노후를 생각해서 저축을 하는 것이다. 자식들의 눈치를 보거나 용돈을 얻어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벌어서 필요한 만큼 쓰면서도 매월 50만원 이상 저축을 하고 있으니 자식이나 남편에게도 당당하게 처신 할 수 있어 가끔 나도 모르게 웃음을 웃기도한다. 얼마 전에는 몇 년 동안 부어온 적금을 타서 딸 시집보내는 데 요긴하게 사용했다. 친지들이나 이웃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나이가 많다 보니 활동보조인 일을 하면서 매사에 조심하게 된다. 일에는 자신 있지만 다른 행동거지도 젊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남매를 다 출가시키고 남편과 둘이 알콩달콩 신혼처럼 재밌게 지내고 있다. 남편도 70이 넘었지만 놀지 않고 경비일을 하면서도 집에 있을 때는 청소며 설거지며 세탁 같은 허드렛일을 잘 도와준다. 우리 부부는 자식들 눈치 안보고 정말 재밌게 살고있다.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지 모르지만 열심히 하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관리도 잘 해야 할 것 같다. 남은 여생을 열심히 살고 모든 사람들 많이 사랑하며 살아야 하겠다. 장애인을 돕는 활동보조인도 자신이 하기에 따라서 하나의 훌륭한 직업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당당하게 일할 수 있게 기회를 준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에 감사한다. 더 나아가 이런 제도를 도입한 국가에 감사한다.

한선란님은 환갑이 넘은 나이에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의 활동보조인이란 직업을 통해 당당한 사회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장애인을 돕는 보람에 대해 전하고 있습니다.

### 아쓰럽고 아쓰럽다

김학분 | 가사간병도우미

먼저 서비스 대상자에 대해서 이름을 써야 할까 고민이 많았다.

나는 그에게 4개월 전부터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그전에는 이발을 해드리려고 몇 번 방문한 적도 있었다. 몇몇 사람은 이 남자가 무섭다고 했지만 난 괜찮았다. 그런 데 방문하는 첫날부터 그가 옷을 홀딱 벗고 있었다. 난 문을 얼른 닫고 옷 입으라고 소리쳤다.

하루, 이틀 방문하다 보니 기가 막힌 일이 많았다. 월요일 날 끓여 놓고 온 찌개가 소파에 나뒹굴고 있었다. 치우려고 하니 너무 화가 났다. 소파 방석을 물에 담갔다가 씻어도 국물과 고춧가루가 계속 나왔다. 이불은 오줌을 싸서 난리가 아니었다. 겨우 깨끗하게 씻어 놓고 베란다에 말려 놓고 돌아왔다. 며칠 만에 또 방문했더니 어제는 술을 마시고 싸웠는지 소주병이 깨지고 대상자의 얼굴이 부어있고 머리엔 상처가 나 있었다. 한심했다. 술을 전날 아침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마셨다고 한다. 둘이 왜 싸웠는지 기억이 없다고 한다. 병원에 가자고 하니라면을 가지고 슈퍼에 가서 또 소주랑 바꿔왔다. 식구처럼 협박도 하고 잔소리도 해보고 달래도 보았다. 그러던 중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동거하는 여자가 있었다. 방 한 곳을 치우지 말라고 했다. 궁금해서 방문을 열어보니 여자 한 분이 자고 있었다.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진동을 했다. 누구냐고 물었더니 누나가 놀러 왔다고 했다. 나는 언뜻 보기에 중국에서 온교포인 줄 알았다. 내가 방문을 하면 숨 곤 하다가 말 안할 테니 숨지 말라고 했더니이제는 나한테 일까지 부탁한다. 이혼을 하고 갈 데가 없어 놀러 왔다고 했다. 방문을 할 때마다 여자가 자기 속사정을 말해 주었다.

남자의 선배가 사귀던 여자였는데 선배가 대상자한테 소개해 주었다고 한다. 가 끔 선배가 들러서 셋이서 잠을 자기도 하는 것 같았다. 이혼을 두 번 하고 사기로 결 혼을 또 한 번 했다고 한다. 언젠가는 사기 당했던 남자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진술 을 받으려고 오기도 했다. 여자의 이름은 명운이(가명), 진짜 중국 교포 아니냐고 물 었다. 집은 구리시 토평동이라고.

그런 여자의 배가 자꾸 불러오기 시작했다. 내가 임신했냐고 물었더니 자궁외 임신으로 큰 수술을 하고 나서 폐경이 되었다며 임신이 아니라고 했다. 남자한테 병원에 데리고 가자고 했더니 남자 하는 말이 고집이 세서 말을 안 듣는다고 했다. 아픈 외중에도 둘이 술을 먹고 싸우고 여자가 남자를 때리고 물건을 부수고 난리였다.

그러고 나서 한 달이 지난 후 내가 다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라고 말했더니 양병원에 갔다 왔다고 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그냥 도망 나왔다고 했다.

한심했다. 나라에서 돈이 나오면 술을 먹고 노숙자 친구도 데리고 와서 잠을 자고, 흥청망청 돈을 쓰다가 돈이 떨어지면 반찬도 못 사먹고 굶는다. 여러 번 김치랑 반찬을 가져다 주다가도 화가 나곤 했다. 생활비에 안 쓰고 술값에 돈을 다 썼다.

그리던 중 얼마 전에 한양대병원에 검사하러 갔다고 말을 했다. 몸이 어떠냐고 물었더니 괜찮다고 했다. 링거 맞고 영양제 맞고 집에서 몸 관리 잘 하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셨다고 한다. 그런데 점점 허리가 더 아파오고 걷지도 못하고 계속 누워만 있었다. 얼마 전에는 냉면이 먹고 싶다고 남자가 냉면을 시켜 주기도 했다. 그런 후 여자는 점점 더 밥을 잘 못 먹었다. 그래서 내가 김치전을 해주었더니 너무 맛있게 먹어 주었다.

내가 여자를 마지막 본 날, 머리를 정리해 주겠다고 했더니 화를 냈다. 남자 친구가 염색도 하고 머리 정리도 하라고 자꾸 말을 했지만 욕을 했다. 몸이 아프지는 않은데 힘이 든다고 했다. 119에 신고해서 병원에 보내주겠다고 했더니 돈이 없어 병원에 못가니 말하지 말라고 했다. 친정 부모님한테 연락해서 말 잘 해줄 테니 연락하자고 해도 엄마 아빠는 돈이 있어도 안준다고 했다.

어제 아침, 다른 댁을 방문하고 그 집으로 출발하는데 남자한테 연락이 왔다. 누나가 이상하니 119에 신고했다고 오지 말라고 했다. 나는 아니라고 내가 가는 중이라고, 여자 친구 엄마 전화번호 잘 챙겨서 가지고 가라고 했다. 도착하니 구급차가 와서 이미 하늘나라로 간 여자를 싣고 있었다. 나는 너무 무서웠다. 금요일 날 마지막

여자의 모습이 자꾸만 떠오르고 속상하고 아쉬웠다. 우겨서라도 엄마한테 연락해 줄 것을, 생전에 모습을 보고. 하고 싶은 말이라도 나누게….

내 무지함이 너무 싫었고 고인한테 너무 미안했다. 한 많고 서럽고 힘든 세상을 살다간 여자인데… 그래도 마지막 생은 행복했을 것이다. 남동생 같은 남자랑 살면 서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는 남자, 아옹다옹 살았어도 행복했을 것이다. 나는 안타까 운 짧은 인연이었지만, 그녀의 죽음에 묵묵히 고인의 명복을 비는 것 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오늘 아침 연락을 해보니 남자가 울먹거렸다. 그런 남자가 안쓰러워 수요일 날 가 겠다고 했더니 알았다고 대답했다. 알콜 중독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고 홀대받는 두 사람이 그래도 서로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홀로 남은 남자가 또 다시 더 깊은 늪에 안 빠졌으면 좋겠다.

안쓰럽고 안쓰럽다.

김학분님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서비스 일을 하면서 경험한 기슴 아팠던 사건을 통해 느꼈던 애틋한 마음을 나누고자 글을 쓰셨습니다.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서비스 일을 하던 중 만나게 된, 한 수혜자와 그의 동거녀를 돌보면서 겪은 사건을 소재로 한 글로써 일을 통해 알게 된 짧은 만남이지만 힘들고 열악한 환경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글입니다.

##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 음영옥 |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생활도우미

나는 지역사회에서 성당, 여성의용소방대 등 여러 방면으로 봉사활동을 하던 중에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을 돕는 생활도우미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전에는 개인 '음영옥' 으로만 봉사활동을 하다가 '생활도우미' 란 낯선 단어를 처음에 무척이나 어색하게 느껴졌다.

처음 만난 장애인은 여성장애인으로 교통사고로 시각장애를 갖게 된 여성을 도와주게 되었다. 어린 딸을 양육하고 있어 본인 보다는 주로 딸 양육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었다. 그렇잖아도 손길이 많이 필요한 어린아이가 엄마의 장애로 인해 세심하게 보살피지 못해 손녀딸을 키우듯 돌봐 주었다. 동화책 읽어주기, 유치원에서 데려오기, 현장학습 갈 때는 김밥도 싸서 주곤 했었다. 옛말에도 있듯이 들판에 나가 일하는 것보다 아이보는게 더 힘들다는 말을 실감했었다.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게 아이키우는 것 아닌가. 하루 해가 금방 저물었다. 더구나 아이엄마는 처음부터 장애인이

아니었고 중간에 사고로 장애인이 되어 그런지 이것저것 따지고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아 솔직히 아이 보는 것보다 더 피곤했다. 걸핏하면 복지관에 전화 걸어 무리한 요구도 많이 해서 담당직원들까지 힘들게 했다. 사회생활을 잘 하던 사람이 그렇게 되었으니 오죽하면 저럴까 하고 이해하려 했지만 어느 때는 지나치다 싶을 때도 많았다.

생각해 보면 여러 장애인들이 있지만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제일 안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깨물어도 시원치 않을 예쁜 딸의 얼굴도 못보고 손끝으로만 느껴야 하니 옆에서 보면 마음이 찌릿하게 아파올 때도 많았다. 나도 자식 키우는 중년여성으로서 내 딸처럼 생각하고 이해해야지 하고 마음을 다스렸었다.

활동보조사업이라는 것이 새로 생기면서 그 여성은 다른 서비스를 받게 되면서도

기끔씩 전화가 온다. "이줌마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효린(가명)이가 많이 컸어요. 효린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내가 누구에겐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흐뭇해진다.

지금은 중년의 남성 장애인과 나보다 나이가 많은 아주머니를 담당해서 지원하고 있다. 혼자 사는 남성 장애인 집에 가면 반찬도 만들어 주고 집안도 구석구석 쓸고 닦는다. 내 집일하는 것처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다. 복지관에서는 다른 사람을 더 맡아 달라고 하는데 내가 다른 단체의 봉사도 하고 있어 지금처럼만 해도 좋겠다고 했다.

장애인이 직접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도와줌으로 인해 그 장애인에게 큰 도움이되었을 때, 큰 보람도 있었고 나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생각하니 자부심도 생겼다. 그리고 장애인을 이해하는 마음도 많이 생겼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혼자 가만히 노래를 읊어보며 차 한 잔을 마셔본다.

공모동기 | 복지관에서 도우미로 활동하면서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면서 보람을 느낀 점을 글로 쓰고 싶었다. 장애인이 직접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도외줌으로 인해 그 장애인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 때, 큰 보람도 있었고 나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생각하니 자부심도 생겼다. 그리고 장애인을 이해하는 마음도 많이 생겼다.

# "진호야 안녕?"

김명자 |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생활도우미

진호야! 안녕? (가명)

우리 진호를 만난지 어느덧 일년하고 반년이 훨씬 지나고 있네.

처음 만났을 때는 서로가 이기려고 싸움 아닌 싸움도 하곤 했는데 그래서일까…이제는 정이 들 때로 들어 주말이 되면 왠지 궁금하고 월요일에 만나면 무척 반갑게 느껴진다. 난 나름 반가운 표시를 하면 진호는 왠지 쑥쓰러워하며 힐끔 쳐다보고 약간의 미소를 나에게 보여줄 때, 내가 보이지 않으면 나를 찾는 모습에 나 혼자 진호를 짝사랑하는 것은 아니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는 한편으로 기뻤어, 진호를 처음만났을 때 보다는 키가 한 뼘 정도 자랐고 어느덧 사춘기에 접어들어서인지 유독 여자아이들만 보면 얼굴이 불그락 해지면서 수줍어 하는 모습, 여자 친구가 있냐고 물어보면 질색을 하면서 "묻지 마세요."라고 크게 소리 지르는 모습, 선생님 딸과 어쩌다 차를 함께 타고 갈때면 한마디 말도 없이 마냥 웃기만하면서 곁눈질 하는 진호 모습을 보면 참으로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 그만큼 진호도 여느 아이와 마찬가지로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 감사할 따름이지, 그것은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다는거 아니겠니?

눈이 예쁜 진호야~

지금도 아주 잘하고 있지만 좀 더 나아가 사회생활도 척척해나가는 진호의 모습. 생각 만해도 뿌듯함이 느껴진다.

수영장도 혼자 갈 수 있고 치료 센터도 혼자서 잘 다니고 있잖아, 작년 같아서는 꿈도 못 꾸는 일인데 지금은 척척해내고 있는 진호의 모습 정말 장하고 대견하다.

다만 부탁이 있다면 진호야

지금 하고 있는 언어치료 선생님과두 좀 더 친하게 지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 좋으신 선생님인데, 진호가 가끔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우리 진호는 알고 보면 속도 깊은 아이인데,,, 가끔 화가 나면 감당하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것이다 커가는 과정이라 생각하자, 진호는 뒤끝이 없어 좋고 말로 이해를 시키면 금방 알아들고 바로 시행하는 예쁜 아이지.



진호야!

요즘 날씨가 상당히 추워서 수영하기 힘들지, 그래도 해야 하는 것은 해야 되지 않을까? 힘내고 겨울이 지나면 또 다시 따뜻한 봄이 오듯이 어렵고 힘이 들긴 하겠지만 포기하지마, 넌 수영선수라는 것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지금은 이주 자그마한 선수지만 더 나아가서 나라에서 아니 세계에서 이진호를 알아볼 수 있는 그날이 올지도 모르는 일이잖아.

희망을 갖고 하면 되지 않을까? 희망사항이 아니고 진호의 꿈이였으면 좋겠다. 꿈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진호야 그 꿈이 현실로 다가오는 그날까지 파이팅하고 늘 건강하고 지금처럼 항상 웃는 얼굴로 매일매일 만나자 안녕~~

김명자님은 남양주장애인복지관의 생활도우미로 진호(가명)라는 장애를 가진 친구에 대한 편지글로 생활도우미 서비스 제도를 통해 알게 된 진호에 대한 애정을 글로 표현해주셨습니다.

### 그대가 주신 희망 한 모금

#### 김태훈 | 사회복무요원

2009년 여름··· 사회복무요원 한 2개월쯤 했을 시기에 일어난 일이다. 한창 확장 이사로 바쁜 센터에 있었을 때 간호사 선생님께서 내게 지금 빨리 위급하신 할아버님이 계셔서 같이 좀 가달라는 부탁에 같이 길을 나섰다. 차의 에어컨을 틀어도 찌는 듯한 더위를 못 이겨서 약간의 짜증이 나는 찰나에 산 입구 앞에 도착했다. 선생님과 난 급히 산 위로 올라갔다. 중턱쯤에 있는 컨테이너박스 하나··· 거기에 어떤 할아버지께서 술을 드시고 쓰러져 계셨다. 다행히 그 할아버지는 저혈당이셨지만 정신은 있으셔서 얼른 119를 부르고 간이 보호자로 같이 나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셨다. 링거를 어느 정도 맞으신 후에 정신이 깨신 할아버지는 이제 괜찮다고 집에 가도 될거 같다고 말씀을 하셔서 행정인턴 선생님과 같이 모셔다 드렸다.

다행히 할아버님은 이제 술이 다 깨신 거 같았고 우리에게 진짜 감사하다며 집에 도착했을 무렵 요구르트를 한 개 쥐어주시면서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술 안마시고 열심히 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다. 난 오히려 "아니요. 할아버님 깨어나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라고 했다. 그렇게 다시 센터로 돌아와서 퇴근을 했고. 다음날 말복 즈음 후원물품 '설렁탕'이 들어와서 나와 행정인턴 선생님은어제 그 할아버지 안부를 여쭈려고 같이 길을 나섰다. 근데 이게 웬일인가…. 침대에누워는 계셨지만이미 숨은 멎으셨고 피부는 딱딱하셨다…. 이미 돌아가셨던거다…. 그 후로 나는 몇 일간 심각한 피해망상에 빠졌었다.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건가.' '내가 뭘 잘못했었던 건가?'

'내가 모셔다 드릴 때 너무 힘들게 해서 돌아가신 건가?'

그렇게 몇 일간 피해망상에 젖은 나는 다행히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 이유는 할아버지께서 주신 요구르트 하나에 희망이 담겨 있음을 보았던 것이다. 할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끝까지 생명의 끈을 놓지 않으시려고 했었을 것이다. 그 이유는 할아버지께서는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술 안마시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 말을 하시며 나에게 건내준 그 요구르트… 단순히 목을 축일 수 있는 요구르트가 아니라… 그것은 끝까지 자기 자신의 생명의 끈.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겠노라 사람과 사람에게 다짐한 자기 자신의 약속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난 이렇게 생각했다. 할아버지께선 다음날 돌아가실 때에도 분명히 생명의 끈을 놓지 않으셨을 것이다. 비록 운명을 거스를 순 없었지만 그래도 그 할아버님께서 주신 이 요구르트 한 모금에는 그 할아버님의 모든 삶이 담겨 있는 그런 소중

한 것이었다.

가끔 생각해본다. 경찰에 나오는 자살 사건…

그들은 자기 자신이 제일 불행하다며 팔목을 칼로 긋고 목을 밧줄에 맸다.

하지만 이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산 중턱에서 3평도 안되는 단칸방 컨테이너에서 사시는 그 할아버지. 그 분은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에도 자기 자신의 생명의 고귀함. 그 끈을 놓지 않으셨다고….

김태훈님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며 만난 대상자 할아버님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을을 사연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김금선 |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활동보조인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만큼 보람을 느끼는 일은 없을 것 같다. "바우처"라는 생소한 단어를 접하면서 활동보조인이 하는 일을 알게 되었다. 관심을 갖고 전업하게 된 동기는 단지 내가 그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에서였지만 오히려 많은 것을 받는 입장이 될지는 처음부터 기대하지도 알지도 못했다.

60시간의 활동보조 실기교육까지 마친 다음 날 바로 남양주장애인복지관에서 전화가 왔다. "22살난 예쁜 아가씨를 보조할 수 있느냐?"라고. 나는 할 수 있다고 답한후 며칠 뒤 아침 8시가 조금 지난 시간에 정혜씨(가명)를 처음 만났다.

정혜씨를 만나자 마자 난 죽어야 했다. "빵! 빵!" 검지 손가락을 뽑아 들고 나를 향하여 권총을 마구 쏘아 대는 것이었다. "으악! 으악!" 이렇게 내가 죽는 시늉을 하자 정혜씨는 박장대소로 만족감을 표하였다. 이렇게 나는 매일 20~30번을 죽어야 끝이 나는 하루하루를 정혜씨와 함께 하게 되었다.

정혜씨 어머니는 첫 아이를 임신하여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다고 기뻐했는데 다른

아이들보다 "말하기, 걷기"가 늦어져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해보니 "임신파상풍" 감염으로 인한 지적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의 정혜씨는 너무나 천진난만하게 웃는 예쁜 아가씨로 성장해 주었다.

우리 정혜씨는 운동을 참 좋아 한다. 오후 6시 쯤 만나 한강으로 운동을 나가면 걷기 운동에서부터 달리기까지 내 걸음으로는 도저히 따라 잡을 수 없는 날쌘 돌이다. 한 번 운동을 시작하면 2시간 정도는 끄떡없다. 내가 먼저 지쳐 집에 가자고 하면 한사코 더 하고 싶어 하는 정혜씨에게 "엄마가 빨리 집에 오래요"라는 말 한 마디에 "엄마~~"하며 두말 않고 집으로 발걸음을 돌리고 한다.

요즘 우리는 남양주장애인복지관으로 월요일과 목요일에 수업을 하러간다. 걸음 걸이가 바르지 않아 예쁘게 걸을 수 있도록 또 손의 힘을 조절할 수 있도록 근력 향 상을 위해서다. 오전 9시 30분 지하 체력단련실은 정혜씨로 인해 웃음바다로 변해 버린다. 처음 인사를 "빵"으로 날려 모두를 죽인 후 "무한~~도전!"으로 분위기를 다 시 업시킨다.

건는 것이 어설퍼 걸음걸이 교정을 할 땐 청테이프 자국을 따라 걸어야 한다. 그러나 마음대로 되지 않아 이리 저리 비켜가는 모습을 보며 나는 "아자! 파이팅!"을 연발하며 힘을 북돋아 준다. 그렇게 10분가량 걷기 연습을 끝내면 정혜씨가 제일 좋아하는 공놀이가 시작된다. 공을 던지고 받는 것을 연속하면서 자기 자신도 만족하는 듯 "최고!"라고 엄지손가락을 뽑아 보이는 정혜씨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나는

인생을 다시 설계하며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작은 일에도 잘한다고 칭찬해 주고 격려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상대를 기분 좋게 만들고 앤돌핀을 생성케 하는지 몸소 매일 느낀다. 그래서 나도 정혜씨처럼 웃음꽃이 활짝 핀 아이 같은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욕심을 버리고 조건 없이 웃음으로 대하려 한다.

정혜씨는 요즘 꿈이 생겼다. 치료 담당 선생님께서 정혜씨의 운동 신경을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평가해 주셨다. 치료 단계를 높이면서 정혜씨에게 가장 적합한 운동 종목을 발췌해 꾸준히 그 길을 가보자고 하신 것이다. 정혜씨의 재능과 의욕적인열정을 보면 분명히 무언가를 해 낼 수 있으리라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아마도몇년이 지나지 않아 장애인 올림픽 선수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오늘도 나는 정혜씨가 꿈을 향해 힘차게 던진 공을 받기위해 함께 뛰고 있다.

김금선님은 남양주장애인복지관의 장애인활동보조인으로서 어린 아이처럼 순수하고 맑은 1급 장애인 여성과의 에피소드를 통해 대상자를 만나는 즐거움과 보람을 글로 전하고 있습니다.

# 외치지 않아도 사랑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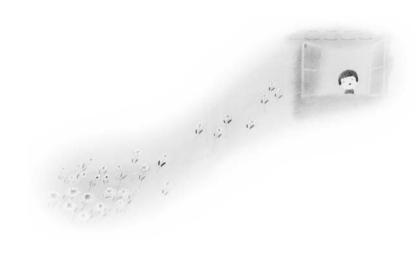
배양숙 | 자활사업근로자

창살로 막혀진 병실 안, 벨소리와 함께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나의 하루 일과는 시작된다. 코를 찌르는 악취와 까맣다 못해 시커메진 바닥. 월요일은 정말 죽음의 요일이라 하고 싶다. 삼층 병실부터 일층 병실까지가 나의 작업감이다. 그곳에서 일한지 일주일 정도 되는 날이다. 처음에는 일과 환자들에 적응하느라 바빴고 지금은 인사 받고 말상대 해주기에 바쁘다. 정에 굶주리고 사람이 그리운 환자들이기에 새로운 사람이 가면 인사를 하고 또 하고, 매우 신기해하며 움직임에 따라 새까만 눈동자들은 쉴 새 없이 뒤를 따라 다닌다.

삼층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아가 너덧 명은 된다. 여름이던 어느 날, 회장실 바닥을 닦던 나는 "안녕하세요?"라는 인사에 고개를 들었다. 세상에나 '오 마이 갓' 이란 표현이 딱 안성맞춤이랄까? 바지 위에 나타나 있던 그 무엇. '저런, 미친…' 속으로 욕을 하면서 나는 모른 척했다. '참자. 그러니까 정신병원이지.' 내가 지금 일하는 곳은 ○○ 정신병원이다. 저런 인간은 아마 일부러 저러는 것이라 여기고 정신병자

취급해버리는 게 속이 편한 것 같았다. 그 뒤에도 몇 차례 더 그랬지만 나는 무시해 버렸다. 그리곤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청소도구가 담긴 수레로 막아버렸다.

또 다른 환자는 '스컹크' 라는 별명을 가진 김〇〇 환자이다. 목욕탕에 갇혀서 나를 곤욕스럽게 하는 정말 말 안 듣는 골치 덩어리이다. 항상 말도 듣지 않고 떼를 쓰고 소리를 질러서 매일 목욕탕에 갇혀 있다. 처음에는 그걸 모르고 화장실 청소를 하려고 목욕탕에 호스를 가지러 갔다가 마주쳐버린 것이다. '아이고, 정말이지 산 너머산이로구나.' 목욕하는 줄 알고 한참을 기다려도 나오질 않는 것이다. 시간은 쫓기고 기다리다 못해 환자를 관리하는 보호사님을 불렀다. 안에 사람이 있으니 호스 좀 갖다 달라고. 보호사님 왈, "그 인간이 말을 듣지 않아서 간병해주는 사람이 가둬놓은 거라고." 그 때 이곳의 모두가 정신병자만 있는 게 아니고 알코올 중독으로 들어온 사람이 더 많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런 알코올 중독 환자들이 약간의 간식비를 받고 정신 이상 환자들을 간병하고 있다는 것이다.



병실 안은 정도, 사랑도, 미움도 많은 곳이다. 힘들게 일을 하고 있으면 자기들보 다 내가 더 딱해 보이는지 힘듴겠다고 위로해 주면서 사탕도 나눠 주고 귴도 주고 뭌 도 건네준다. 다른 건 다 받아도 물만은 받아 줄 수가 없었다. 때가 꼬질꼬질한 컵에 물을 따라 들고 와서 마시라고 건네면 정말이지 당황스럽다 처음에는 건네준 성의 를 봐서 받아 들었지만, 지금은 경력이 두 달 쌓여 거절해버린다. 거절이라기보다는 협박이다. 그것을 받아먹으면 내가 혼난다고 했더니 그 후로 거의 주지 않는다. 이층 과 일층은 여자 병실이다. 여자들은 상태가 무척 심각하다. 날씨가 궂은 날이면 우는 사람이 많다 한 사람이 울면 이곳저곳에서 따라 우다 그럴 때면 내 맘도 많이 심란 해진다 어느 할머니는 핫삿 집에 보내 달라고 소리치며 욕을 하다 어느 날은 내게 오시더니 경찰에 연락해 달라고 했다. 이곳의 의사, 보호사, 간호사는 모두가 한통속 이라 자기들을 가둬 놓는다는 것이라 했다. 아마도 사무실에서 전화 올 때 받는 모습 을 본 것 같았다. 생각 끝에 전화기가 받는 것만 되다고 하니까 집에 가서 꼭 해 달라. 고 하신다. 그리고 차비를 이천 원 갖다 달라고 하신다. 그 돈으로 뭐 하실 거냐고 물 었더니 수워 집에 가는 차비를 하실 거라고 했다. 할머니는 아마 몇 년 동안을 이곳 에 계셨던 것 같다.

일층에 사는 '오명물' 별명만큼이나 명물이다. 팔을 잡고 떨어질 줄 모르는 나에게 엄마라고 부르며 항상 만지작거리는 마흔이 훌쩍 넘은, 아주 많이 통통하고 싸움도 절대 지지 않는 터줏대감이다. 계속해서 쭉 있을 것 같은 상태다. 나이는 항상 네살에, 밥은 조금만 먹는다는 거짓말쟁이다. 식판에 수북수북 쌓인 밥은 어쩌고? 하

도 귀찮게 해서 엄마가 아니고 아줌마라고 부르라 가르쳤지만 금방 엄마라 한다. 미워할 수 없는 뚱뚱보. 언제나 한결 같이 엄마가 치마와 떡을 사온다는 노래를 부르던 그 모습이 지금은 그립다. 지금은 '나' 동이 아닌 '가' 동에서 일을 한다. 가끔 한 번씩 가보면 벌써 명물 이는 나를 잊은 것 같다.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다른 사람을 엄마라고 부르고 있었다.

'나' 동 병실에 사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TV 프로는 '뽀뽀뽀' 다. 딱 어울리는 것 같다. 지금은 정신병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좋다.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눈동자를 가진 사람들.

처음에 일을 하러 들어가면서 나는 '사랑하자'를 세 번씩 외치고 들어갔었다. 지금은 그냥 들어간다. 외치지 않아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이 나는 좋다.

공모동기 지활공동체 근로자로 일하는 현장에서 느끼고 배운 소박한 사랑을 나누고자 글을 씁니다. 정신병원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는 나는 처음에는 보통 사람들과 다른 환자들을 대하며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어려움을 많이 느꼈지만, 매일매일 그분들을 대하면서 그분들만의 소통 방식과 사연 등을 통해 또 다른 인간미를 느끼게 되면서 그분들에 대한 사랑을 갖게 되었습니다.

### 포기하지 않는 억척이

#### **김옥선**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생활도우미

저에게는 지적장애 1급을 가진 딸아이가 있습니다. 제가 일을 다니기 시작하게 되면서 딸아이를 위해 활동보조인 선생님이 저희 집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분께서 생활도우미라는 것이 있는데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물어 왔습니다. 처음엔 너무나 망설였습니다. 제가 과연 내 아이를 두고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생활도우미를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생활도우미라는 것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힘든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배치된 할머니는 제가 가는 첫 날부터 마늘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마늘을 까라고 해서 몇 시간을 까다가 결국 손에 허물이 벗겨지고 아파서 너무 혼이 난적도 있고 요즘에는 약수터에 가서 약수 물을 떠오라고 해서 더우나 추우나 약수 물을 떠다 드립

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서너시간 동안 앉아서 할머니의 하소연을 주저리주저리 듣고 있으려면 다리가 다 절여옵니다. 그러나 생활도우미로서의 기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또 다른 아저씨께서는 처음 만나 뵈었을 때 너무나 얼굴이 어두우셨고 즐거움 없이 홀로 외로이 나날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활도우미를 함으로써 아저씨 댁을 자주 방문하고 말벗이 되어드림으로써 요즘에는 눈에 띄게 아저씨의 모습이 밝아졌습니다. 저에게 웃으며 너무나 고맙다고 하시고 음식 솜씨가 정말 대단하다며 칭찬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아··· 나 한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다른 외로운 분들이 힘이 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 생각만 하면 힘이 납니다.

이처럼 힘들 때도 있고 보람을 느낄 때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생활도우미를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활에 즐거움을 전해 드릴뿐만 아니라 삶에 용기까지 불어 넣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 자신을 힘들어 지더라도 더욱 저의 '생활도우미' 라는 직함을 떠올려 책임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김옥선**님은 장애이동을 둔 생활도우미로서 성인 장애인을 지원하면서 느낀 소감을 나누고 남양주시의 다양한 사회복지 현장의 모습을 알리기 위해서 수필공모전에 글을 공모하셨습니다.

# "대성아 학교가자!"

이순이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생활도우미

작년 10월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 친구 대성이가 고등학교 진학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중학교까지는 집 근처라 걸어서 통학을 하면 되었는데, 고등학교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통학이 어려운 친구는 할머니, 아버지, 동생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 할머니께서는 다리가 많이 불편하셔서 전동 휠체어 없이는 이동하기가 어려우시고, 아버지는 직장 일을 하시느라 거의 아이에 대해 신경을 못 쓰고 계시고, 동생은 형을 많이 도와주는 편입니다. 할머니께서 통학을 도외줄 수가 없어 특수학교를 생각해 보셨으나, 사회성이 좋은 이 친구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 특수학교 보내는 것도 꺼려지고, 일반 고등학교에 보내려니 같이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장애1등급이라면 활동보조라도 신청할 텐데 장애 2등급이라 활동보조 신청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시다가 아예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려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복지관에 생활도우미 사업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저는 곧바로 할머니께 복지관과 상담해보시라고 권하여 드렸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그렇게 복지관에 신세를 져도 되나 싶어 망설이셨고, 저는 생활도 우미 사업은 장애인 가족의 어려운 일을 도와주기 위해 있는 사업이라고 할머니를 설득하여 복지관에 모셔와 상담을 받게 하였습니다. 상담 후에 할머니께서는 그간의 고민이 싹 가셨다며 좋아하셨고, 제가 생활도우미로 대성이의 등하교 길을 책임지기 로 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식 하는 날, 중학교 때 친구들과 헤어지지 않아도 되고, 좋은 선생 님을 만날 수 있게 해 준 것이 생활 도우미 사업 덕분이라며 할머니께서는 고마워하 시며 기뻐하셨습니다. 대성이의 하교를 위해 학교로 가면 복도에까지 큰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이 웃음소리는 이 친구가 치료교육으로 도입된 닌텐도will을 하며 좋아서 웃는 소립니다. 닌텐도will 프로그램 중 복싱을 제일 좋아하며, 다른 프로그램에도 많은 호기심을 보입니다. 요즘은 좋아하는 여자 친구(미선이)가 생겼다며 얼굴이 빨 개지기까지 합니다. 다른 예쁜 친구와 미선이 중 누가 더 좋으냐고 물으면 행복한 미 소를 지으며 "당연히 미선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끔 대성이에게 생활도우미 사 업이 없었더라면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친구에게 하나의 과제가 생겼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혼자서도 통학 할수 있도록 충분히 연습하고 시험해보는 일일 것입니다. 이런 연습들이 더 나아가서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이순이님은 남양주장애인복지관의 생활도우미로 대성(가명)이라는 고등학생 장애친구의 학교 통학을 지원하며 장애를 가진 청소년이 활동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일반인과 같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보람을 전하고 있다.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



#### 김혜숙 |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활동보조인

내가 장애인을 돕는 활동보조인을 시작한 게 2007년 9월 초에 시작하여 벌써 세월이 이만큼 갔구나! 싶다. 처음엔 "봉사"라는 마음으로 먼저 하고 있던 언니의 권유로 하게 됐는데 처음부터 벽이요, 산이었다. 내 맘과 같지 않게 상대성이었다.

지금은 가장 큰 보람이고 어딜 가나 자랑하고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과 자녀들 교육에 한몫을 하고 있다. 언니에게 고맙고 남양주시 장애인 복지관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하고 고마움을 전하고 우리나라에 활동 도우미를 하게 해주신 기관에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제가 소중하게 여기며 월요일 날어김없이 만나는 ○ ○님의 부부를 소개합니다. 금술이 좋으셔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시는데 서로의 삶의 끈이 되시는 분들입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가면서 목욕과 청소와 손과 발이 되어 드리고 있습니다. 사계절 변함없이 반겨주시고 목욕도 행복해 하시는데 마음에 불편한 일이 있으실 때는 욕을 많이 하시고 서로 다투기도 하실 때 중간에 내가 심판이 되어 드리며 집안이 떠들썩 하게 웃곤 합니다. 이웃에서 이 집은 왜 도우미만 오면 웃고 떠드냐고 오십니다.

이웃들이 늘 반찬을 해오시고 목욕시켜 드리고 온 몸에 땀으로 목욕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늘 고맙소." 하시며 나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나도 눈물나도록 고맙고 감사해서 "나도 고맙소, 하하하" 웃습니다. 모든 피로가 다 풀리고 행복합니다. 오후에 다른 가정에 가서 일을 할 땐 꼭 차로 동행해 주시며 수고하라고 말씀해주십니다.

젊을 때 마누라에게 못해준게 미안해서 잘한다고 하시는데 정말 아이를 엄마가 돌보는 것처럼 세심하시고 걱정하시고 챙기시는 모습에 많이 배우고 집에 돌아와서 도 남편과 아이들을 새삼 보며 나의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럴 때마다 일의 소중함을 감사합니다.

○○가정입니다. 류마티스를 앓으시는데 다리가 기역자로 굳어있고 몸에 뼈가 앙 상하시고 치아도 몇 개 없으시고 몸이 오그라들어 작게 의자에 앉아 계셨는데 얼굴

모습은 첫사처럼 예쁘셨습니다 음식은 가을 전혀 하지 않고 도마에 다져야하고 밥 도 죽밥을 드시고 조금만 딱딱해도 삼키시지 못하시고…두렵기까지 했습니다. 막막 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처음 뵙자 교회다니냐 물으시기에 "예 장로회 ()()교회 집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랜더니 "어머! 너무 잘됐다. 기도했거든 요. 응답이에요. 그동안은 간병인을 쓰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라고 하시며 반기시 는데" "네에…"하며 작아지는 나를 발견했다. 몸은 손도 못되게 하신다. 아프시다며 고통을 호소하신다. 어깨와 겨드랑이 사이에 내 팔을 넣어 들어서 소변기에 앉혀드 리는데 처음에 꼼짝도 안하셨다. 죄송했다. 다시 힘을 내서 조심해서 바들바들 떨면 서 들어서 옮겨드렸다. 후유… 첫날만 하고 다른 분을 보내야겠다 맘먹고 최선을 다 해 내 마음 들키지 않으려고 기장하고 시간을 보냈다. 마치는데 "수고하셨어요. 내 일도 오실 거죠? 다른 분은 싫어요!"하신다. "네에…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셔요!"하 고 나와서 하숙을 쉬었다 '어떡하지… 하나님 어떡하죠" 라고 기도했다 다른 사람 싫대요. 그럼 들기라도 해주세요. 꽉 잡으면 아프다고 하지 팔만 겨드랑이에 대고 살 짝 들어야 하는데 일주일에 4일 동안 쭉 가야 되고… 아찔했다. 다른 장애를 갖으신 분들도 뵙지만 이분처럼 심하신 분은 처음 뵙기 때문에 마음이 아팠다. 다음날 갔더 니 "어제 나 드는데 힘들었죠? 기도했어요 나를 들 때 힘주시라고…"하고 웃으신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소변을 보신단다. 들었다. 근데 신기했다. 들렸다! 쉽게 들수 있었다.

"거봐요. 내가 기도했다니까."라고 웃으신다. "아멘!", "하하하" 우리 둘이 웃었다 50이 넘은 연세인데도 인형같이 예쁘셨다. 너무 예쁘시다고 했더니 너무 좋아하

신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렸다. 너무 부담 되서 도망갈려고 했다고… 그랬더니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도 그랬고 간병인들도 하루 이틀하고 못하겠다고 가버려서 그냥 가족과 남편이 다 수발을 들고 계셨는데 허리 디스크가 오고 발목이 아프셔서다리를 끌고 다니시고 계셔서 가족이 지쳐 계시던 차에 복지관에 도우미가 있다는소식을 들으시고 신청을 했는데 내가 왔답니다.

처음 오셔서 성의껏 잘해주셔서 고맙고 계속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과 가족처럼 지낼 수 있는 분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 했어요. 하신다. 그래서 일하기 전에 먼저 늘 물어보고 기도로 시작하고 마쳤다. 그랬더니 너무 고마워하시고 좋아하신다. 그렇게 한 주가 갔다.

내 몸이 지치고 무리를 해서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지쳐갔다. 몸이 안 따라 주기에 너무 지쳤다. 이 분이 목욕도 해줄 수 있냐 물으시기에 "네! 우리가 할 일입니다." 했더니 남편이 해주셨는데 오늘은 나와 하시고 싶단다. 목욕을 시작했다. 화장실로 옮기고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머리감고 목욕하고 때를 미는데 너무 세게 밀어달라기에 왜요? 했더니 남편이 그렇게 해주셨다고 하셨다. 헉헉거리며 때를 밀어드리고 발가락 사이사이는 손가락을 넣어서 닦아드렸다.

그렇게 정이 들어 해를 넘기며 서로에게 감사하고 있다. 음식을 다질 때는 손도 많이 다치고 어깨가 너무 아파 들 수도 없을 정도로 아팠는데 내가 해주니까 다 맛있어요. 하시는 말씀에 내 아픔은 사라지곤 했다. 바느질도 많이 해야 했다. 내가 바느질하는 것을 참 좋아하신다. 그래서 바느질을 시키실 땐 너무 재미있어 하셨다. 한쪽



다리가 더 짧기 때문에 기장도 줄여야 하고 허리도 고쳐야 한다. 바느질로 하루를 보낼 때도 있다. 남편분이 늘 웃으며 일하는 나를 지켜보시고 "웃으면서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신다. "저도 고맙습니다! 이쁘게 봐주셔서요." 하며 웃는다.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보람을 느끼고 기쁨도 크고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세 번째 도우미하는 가정은 14살 초등학교 4학년 S양이다. 학교 동행이고 집에서 돌봐주면 된다기에 시작했다. 성광학교 다니는데 처음 만났는데 이 아이도 중증장애로 말도 못하고 듣는지 마는지 반응이 없고 비닐 찢어서 먹고 종이 찢어서 먹고 줄이나 끈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늘 컵에다 대고 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하고 인지능력이 전혀 없다. 소변은 늘 기저귀를 차고 있고 아무대서나 앉아버리고 자기 몸을 때리

며 지내는 아이였다. 그저 거의 똑같은 행동을 하고 그 이상은 없었다. 암담했다. 사 탕을 줬더니 버려버리고 봉지를 달란다. 줬더니 먹어버린다. 너무 놀랐다. 뺏으려 했 지만 입속에 있는 걸 쉽게 내놓질 못한다. 길가다가 갑자기 옷을 벗고 오줌을 싼다. 깜짝 놀랐다. 집에서는 비닐과 종이를 찢어서 쓰레기통을 만들어 놓는다. 나보고 치 우라고 손을 잡아끈다. 치우면 또 시작이다. 냄비랑 쓰레기통을 던지고 음식 쓰레기 통을 바닥에 패대기치고 그 소리를 듣고 본인은 웃고 있다. 찌개 냄비도 바닥에 던지 고 좋아서 웃는다. 나는 어이가 없어서 울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회의가 들었다 그만하고 싶었다 짜증도 났다 조용해서 보면 기저귀를 벗어서 벌거벗고 않 아서 기저귀를 뜯어먹고 있다. 깜짝 놀라서 울면서 치우는데 오줌을 싸서 젖어서 바 닥에 붙어서 떨어지지도 않았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왜 이런 수발을 들어야 하냐고 울고 또 울었다. 목욕 시켜서 나오면 마룻바닥에 서서 그냥 오줌을 싸버린다. 신기한 것은 뜻은 꼭 화장실에 가서 싼다 그나마 다햇이었다 고마웠다 S양 엄마를 보면 '그만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하려 마음먹었다가도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다. "고생하셨어요! 고마워요! 힘드시죠!" 하시는 바람에 할 말이 없었다. "나도 아이 키 우는데요. 뭐 그렇지요"하고 만다.

집에 오는 길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생긴 것에 민감한 세상에 살아가는 현실이 안타깝다. 외모에 치우쳐서 살을 빼고 성형을 하고 못생기면 끼지도 못하는 세상을 보면서 S양을 보고 세상에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생각하고 귀했다. 우리 아이들도 내놓을만한 인물은 아니지만 건강 주신 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일을 마치고 아이들을 만날 땐 꼭 끌어안아주며 고맙다, 사랑한다, 건강하거라, 외모를보지 말고 건강이 최고란다. 건강하거라! 한다. 아이들도 좋은가보다. 네! 한다.

하루는 S양을 집에서 돌보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통을 갑자기 집어던지는 바람에 부엌이 엉망이 되버렸다. 나도 모르게 화가 오르면서 "왜 그래!"하고 소리를 지르고 털썩 주저앉았다. 그 순간 S양이 그렇게 불쌍하게 느껴졌다. "그래 너도 이 세상에 우리랑 더불어 살 자격이 있는 존재야! 미안해 S야! 사랑해. 내가 소홀했고 야속했지! 미안해 그리고 괜찮아. 내가 치울게. 이리와!" 하며 S양을 안고 한참 울었다. 그리고 목욕탕에 넣어놓고 울면서 감사하며 부엌을 말끔히 치웠다. 그 뒤로 이 아이가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졌다. 사랑해! 하며 자주 안이주고 같이 뒹굴 때는 갑자기 깨물기도 한다. 좋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모양이다 생각하며 이해한다. 갑자기 꼬집기도 한다. 늘 긴장하고 방어태세를 갖출 때도 있다. 밥도 엄청 많이 먹는다. 특히 햄과 닭고기, 삼겹살을 좋아한다. 잠잘 때는 천사같이 예쁘다. 이게 자식 키우는 엄마 마음일 것이다. 내 아이와 조금 다를 뿐이다.

지금은 샬롬의 집 장애인 시설에 같이 다니며 봉사도 하고 있다. S양 언니도 같이 동행하며 좋아한다. S양 언니는 중학생인데 봉사활동 해야 한다며 같이 동행하며 자 기 동생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몸이 불편한 모습을 보며 자기 동생을 더 챙기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난다. "그래 고맙구나. 서로 소중히 여기며 그 마음 변 치 않고 이사회와 동생을 사랑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감사하 고 사람들이 소중하고 정을 느끼며 감사한 마음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이 닿는 데까지 앞으로 꿈을 가지고 활동 도우미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보람 있는 삶이 되고 몸과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의 손과 발이 되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일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복지관에 감사합니다 모두 사랑합니다

김혜숙님은 남양주장애인복지관의 생활도우미로 활동하면서 만난 장애인분들과의 사연을 통해 생활도우미로서의 어려움과 보람을 현장중심의 글로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일이 라기보다는 사람에 대한 따뜻한 애정으로 장애인분들을 만나 오신 김혜숙님의 헌신과 섬김에 절로 고개 숙여집니다.